

90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4-3)

3이.32  
정리48  
v.4-3  
22

# 한국인의 가구 및 가족유형

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권태환(서울대학교)

박영진(서울대학교)

통

계

청



이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의견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것이며 통계청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머 리 말

이 보고서는 1990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실시한 「1990 인구주택 총조사」자료의 심층 분석결과를 수록한 것으로서 조사기획, 조사준비, 조사실시, 자료처리 그리고 22권의 결과 보고서 발간에 이르는 5년간의 방대한 사업을 마무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모든 국가에서 국가의 정책수립에는 물론 국민생활 전 분야에 걸쳐 이용되고 있는 국가 기본통계로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통계수치의 제공에 국한되어 왔으나,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현상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된 결과에 대한 이용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희 통계청에서는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 및 인구학적 당면 문제에 관한 4개 분야에 대하여 종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주제별 보고서에 각각 수록·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주제별 보고서 중 1권에서는 출생률과 사망률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을 파악하고 이 변동이 인구노령화, 고용,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적정인구 규모 및 구조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2권에서는 수도권 및 대도시의 인구과밀 그리고 농촌의 인구 과소 등 지역간 인구 불균형 분포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들 지역간 불균형 분포를 초래한 원인과 그 결과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총체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권에서는 산업화와 서구화에 따른 전통적 가치관 붕괴로 인하여 핵가족화와 탈가족화로 상징되는 우리 나라 가족의 분화 현상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가족분화 가속화로 나타나는 노인가구 및 결손가족 증가 등 사회병리적 현상을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권에서는 가구원수 감소와 가구수의 증가에 따른 주택수의 절대적 부족문제와 주택의 주거밀도, 노후화, 부대시설 상태 등 주거환경을 가구 유형, 그리고 사회·경제 및 인구학적 제 요인과 연관시켜 우리 나라 주택의 양적·질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동안 각 연구주제에 대하여 바쁘신 중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훌륭한 연구결과를 이끌어 내 주신 연구자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 나라의 인구, 가구(가족) 및 주택과 관련된 사회·경제 및 인구학적 제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아울러 각종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로써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1990 인구주택 총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993년 12월

통 계 청 장  
민 태 형



# 차 례

I.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1
2. 자료와 개념 .....	7
II. 가구 및 가족의 성격변화 : 센서스보고서 자료의 시계열적 분석 .....	13
1. 가구의 크기 .....	15
2. 가구구성 .....	19
3. 가족의 세대별 구성 .....	23
4. 가족형태 .....	28
5.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생활 .....	36
III. 1990년의 가구구성 및 가족구조의 특성과 인구학적 차별성 .....	50
1. 가구구성과 가족구조 .....	50
가. 가구구성과 가구규모 .....	50
나. 가구주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가구형태 .....	55
(1)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	55
(2) 가구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가구형태 .....	60
2. 가구 및 가족형태의 인구학적 차별성 .....	66
가. 가구원의 혼인상태별 가구형태의 특성 .....	67
(1) 미혼인구의 가구형태 .....	68
(2) 유배우 인구의 가족형태 .....	71
(3) 사별·이혼여성의 가구형태 .....	73

나. 가족구성원의 연령별 가족구성 유형 .....	78
다. 가족구성별 가족원의 인구학적 특성 .....	86
(1) 「부부」가족 .....	88
(2) 「부부+미혼자녀」가족 .....	90
(3) 「편부모+미혼자녀」가족 .....	92
(4) 기타 친족가족 .....	93
<b>IV. 가구분화와 탈가족화 .....</b>	<b>95</b>
1. 1인가구 .....	97
가. 1인가구의 성향과 특성 .....	97
나. 25-34세 미혼 1인가구의 특성 및 결정요인 .....	101
다. 여성노인 1인가구의 특성 및 결정요인 .....	107
2. 노인가구 .....	112
가. 노인가구의 유형과 특성 .....	113
나. 노인가구 가구주의 특성 .....	119
<b>V. 요약 및 결론 .....</b>	<b>122</b>
<b>&lt; 참고문헌 &gt; .....</b>	<b>131</b>
<b>&lt; 부록 &gt; .....</b>	<b>137</b>

## 표

<표 2-1> 일반가구 및 친족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1955-90 .....	17
<표 2-2> 총인구 중 친족가구와 1인가구 거주인구의 비율 및 일반가구 중 .. 20 1인가구의 비율, 1960-90 .....	
<표 2-3> 1인가구원의 3개 연령집단별 분포, 1985년과 1990년도 .....	21
<표 2-4> 친족가족의 세대구성, 1960-90 .....	26
<표 2-5> 친족가족 개별가구원의 세대구성, 1966-90 .....	27
<표 2-6> 친족가족의 가족형태 구성, 1966-90 .....	30
<표 2-7> 핵가족 중 1세대 가족(부부가족)의 비율, 1966-90 .....	31
<표 2-8> 직계가족 중 양친과 동거하는 가족의 비율, 1966-90 .....	33
<표 2-9> 친족가구 개별가구원의 가족형태 구성, 1966-90 .....	34
<표 2-10> 일반가구중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 1966-90 .....	37
<표 2-11> 일반가구 가구주의 중위 연령, 1966-90 .....	38
<표 2-12> 선택된 연령집단에서의 여성가구주 중 유배우자의 비율, 1975-90 .. 40	
<표 3-1> 일반가구의 지역별 가구형태분포(1990년) .....	52
<표 3-2> 친족가구의 지역별 세대구성분포(1990년) .....	53
<표 3-3> 일반가구의 지역별 총친족 가구원수 및 총가구원수 분포(1990년) .. 54	
<표 3-4> 가구주의 지역 및 성별 연령분포(1990년) .....	56
<표 3-5> 가구주의 지역 및 성별 혼인상태분포(1990년) .....	57

<표 3-6> 여성가구의 연령별 가구형태분포(1990년) .....	58
<표 3-7> 가구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가구형태분포(1990년) .....	62
<표 3-8> 미혼인구의 가구형태(1990년) .....	69
<표 3-9> 유배우 인구의 가족형태(1990년) .....	72
<표 3-10> 사별, 이혼여성의 가구형태(1990년) .....	74
<표 3-11> 사별, 이혼여성의 생존자녀유무에 따른 가구형태(1990년) .....	76
<표 3-12> 친족가구의 세대구성 및 지역별 연령분포(1990년) .....	87
<표 3-13> 「부부」가족 구성원의 거주지 및 성별 연령분포(1990년) .....	89
<표 3-14> 「부부+미혼자녀」가족 구성원의 거주지 및 성별 연령분포(1990년) .....	90
<표 3-15> 「편부모+미혼자녀」가족 구성원의 거주지 및 성별 연령분포(1990년) .....	91
<표 3-16> 편부, 편모의 연령분포(1990년) .....	92
<표 3-17> 기타 친족가족 구성원의 거주지 및 성별 연령분포(1990년) .....	94
<표 4-1> 전체인구와 친족가구인구의 연령구조의 비교(1990년) .....	96
<표 4-2> 각각의 연령, 성, 혼인상태별 인구집단의 1인가구 인구비율 (1990년) .....	98
<표 4-3> 1인가구의 지역 및 성별 연령분포(1990년) .....	100
<표 4-4> 25-34세 미혼인구의 성 및 교육상태별 1인가구형성자의 비율(1990년) .....	101
<표 4-5> 25-34세 미혼인구의 성 및 경제활동상태별 1인가구형성자의 비율(1990년) .....	102
<표 4-6> 25-34세 미혼인구의 성 및 직업별 1인가구형성자의 비율(1990년) .....	103
<표 4-7> 25-34세 미혼인구의 성 및 1년간의 이동상태별 1인가구형성자의 비율(1990년) .....	104
<표 4-8> 25-34세 미혼인구의 성 및 5년간의 이동상태별 1인가구형성자의 비율(1990년) .....	104

<표 4-9> 25-34세 미혼자의 1인가구거주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1990년) .....	106
<표 4-10>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인구의 비율(1990년) .....	108
<표 4-11> 여성노인인구(60세 이상)의 지역 및 경제활동상태별 1인가구 인구비율(1990년) ....	109
<표 4-12> 여성노인인구(60세 이상)의 지역 및 생존자녀수별 1인가구 인구비율(1990년) ...	110
<표 4-13> 여성노인인구(60세 이상)의 1인가구거주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1990년)...	111
<표 4-14> 노인인구(65세 이상)의 지역 및 성별 노인가구 인구비율(1990년) .....	113
<표 4-15> 노인인구의 지역, 성 및 가구의 경제상태에 따른 노인가구 인구비율(1990년) ...	116
<표 4-16> 노인가구의 가구유형별 소유형태분포(1990년) .....	118
<표 4-17> 노인가구 가구주의 성 및 연령별 혼인상태분포(1990년) .....	119
<표 4-18> 노인가구 가구주의 성 및 연령별 경제활동상태분포(1990년) .....	120
<표 부-1> 일반가구 가구주의 연령별 평균가구원수, 1975-90 .....	139
<표 부-2> 가구구성원의 지역 및 연령별 가구형태분포, 1990 .....	143

## 그림

<그림 2-1> 친족가구의 세대별 평균가구원수, 1970-90 .....	41
<그림 2-2> 친족가구의 가족형태별 평균가구원수, 1970-90 .....	42
<그림 2-3> 일반가구 가구주의 연령분포(전국) .....	43
<그림 2-4> 일반가구 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별 평균가구원수, 1975-90 ....	44
<그림 2-5> 친족가구 가구주의 연령별 세대구성(전국) .....	45
<그림 2-6> 친족가구 가구주의 연령별 가족형태구성(전국) .....	46
<그림 3-1> 연령별 가족형태분포, 1990(도시) .....	82
<그림 3-2> 연령별 가족형태분포, 1990(농촌) .....	83
<그림 3-3> 「부부」가족의 거주지별 연령분포, 1990 .....	84
<그림 3-4> 「부부+미혼자녀」가족의 거주지별 연령분포, 1990 .....	84
<그림 3-5> 「편부모+미혼자녀」가족의 성별 연령분포, 1990 .....	85
<그림 3-6> 기타 친족가족의 거주지별 연령분포, 1990 .....	85
<그림 부-1> 일반가구 남성가구주의 연령분포 .....	146
<그림 부-2> 일반가구 여성가구주의 연령분포 .....	147
<그림 부-3> 일반가구주의 연령집단별 평균가구원수 .....	148
<그림 부-4.1> 친족가구 가구주의 연령별 세대구성, 1985(지역별) .....	149
<그림 부-4.2> 친족가구 가구주의 연령별 세대구성, 1990(지역별) .....	150
<그림 부-5.1> 친족가구 가구주의 연령별 가족형태구성, 1985(지역별) ...	151
<그림 부-5.2> 친족가구 가구주의 연령별 가족형태구성, 1990(지역별) ...	152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센서스 자료를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경험해 온 인구변천과 사회변동의 결과로서 나타난 가구유형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제도 및 형태의 변화를 밝히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1인가구 및 노인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의 증가로 대표되는 가족의 해체현상도 아울러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가구 및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한국사회 변동의 성격을 조명하는데는 물론 한국의 인구변천과 현상을 조망하는데도 커다란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연구는 한국인의 삶의 조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증거를 제공해 주며, 특히 가족복지와 주택문제 등 사회정책과 관련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인구학에서의 가족연구는 주로 두 가지 배경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째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역사인구학 전통과 관련된 것으로서 과거의 인구학적 요소들, 특히 출생률과 사망수준 추정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주로 산발적인 교구기록에 의한 출생과 사망수준의 결정은 자연히 가족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였다. 특히 1970년대 초기부터 일기 시작한 유럽 가족의 역사적 연구는 바로 이러한 인구학적 요구의 직접적 산물로 볼 수 있다. 두번째는 주로 개발도상사회의 인구변천, 특히 출산력 변천과 연관된 것이다. 1960년대 이후의 세계적인 출산억제 운동은 “전통적인 가족의 요구가 고출산가치의 결정요인”이라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전제하였다. 뒤에 이러한 전제에 대한 비판이 널리 일지만, 여하간 세계적인 인구

억제 운동은 인구증가의 주요원인으로 가족을 증시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오면서 가족은 새로운 관점에서 중요한 인구학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학적 변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가족의 변화와 그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여기에 속한다. 과거의 가족연구가 인구학의 결정요인으로서의 관심의 대상이었다면 최근의 것은 인구변동의 결과적인 산물로서의 가족에 대한 관심이라는 점에서 이 둘은 서로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관심과 조망에서는 한마디로 인구변천으로 야기되는 새로운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가족문제, 가족복지를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망의 바탕에는 가족의 변화가 인구변천의 요인이라기보다는 인구변천이 가족의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본 연구도 바로 이러한 조망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인구변천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가족 또는 가구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는 직접적인 경로로서, 출생률과 사망률 저하에 따른 가족규모, 가구구성, 가족형태의 변화가 그것이다. 두번째는 간접적인 경로로서 그 영향의 폭은 매우 넓고, 내용은 다양하며, 의미는 포괄적이다. 인구변천은 거의 예외 없이 인구변동이나 도시화를 수반한다. 그리고 인구가동이나 도시화는 가구의 형성과 해체, 가족생활의 유형, 가족형태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인구변천은, 우리 사회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공업화, 도시화, 근대화로 특징지워지는 전반적인 사회적 변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하게 중요한 사회제도의 하나인 가족의 변화를 요구한다. 새로운 요구로서 우리 사회에 빠르게 떠오르는 여러 가지 가족복지와 관련된 문제들, 가령 노인문제, 탁아소문제, 여성취업문제, 불안정 가구문제, 주택문제 등이 바로 이러한 가족의 변화와 연관된 것들이다. 이와 같은 인구변천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구



성하는 가족생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할 때, 인구학적 맥락에서의 가구 및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의 의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인구학에서 가족과 가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 주 이유에 대해서는 상반된 논의가 있다. 첫째는 가구 또는 가족중심의 인구학적 분석을 위한 이론적 연구의 부족이며, 둘째는 가족과 가구분석을 위한 적절한 센서스나 조사 자료의 부족이다 (Keyfitz 1987: 3). 이론적 논의의 부족은 다른 말로 인구학에서의 가구나 가족에 대한 연구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주요 분석의 대상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자료의 부족은 인구학에서 가구나 가족에 대한 독자적인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점과, 따라서 자료의 수집에 힘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가구와 가족에 대한 연구는 선진사회에서도 이론 및 방법론적인 제약은 물론 자료의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연구의 질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가구와 가족에 대한 연구와 연구의 발전에 결정적인 장애라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모든 연구는 현재의 상태에서 시작이 되고, 연구의 성과가 쌓이면서 이론 및 방법론의 세련화와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국제인구학회(IUSSP)는 인구학자들에게 가족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기 위해 1982년 가족사회학과 생활주기 연구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이 위원회의 노력으로 1984년 방법론 워크샵(Workshop)이 조직되었고 그 결과가 1987년 출간되었다(Bongaarts & others, 1987). 이 연구는 특히 통계적 모형의 개발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가구와 가족의 개념과 이론에 대해서는 별 공헌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가 부족하고 적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계적 모형의 개발은 실제 관찰되는 현상의 파악과 설명에는 적합하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구의 적용성은 때

우 제한적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가구와 가족 연구의 활성화는 현재 있는 자료의 충실한 분석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첩경일 것이다. 다행히 우리 나라에서는 센서스를 통한 가구와 가족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인 정리가 1966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들 자료를 이용한 가구와 가족에 대한 각종 추세의 파악과 유형의 분석은, 그것이 바로 가구와 가족에 대한 인구학적인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사회변동과 가족과의 연관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학적 이론과 논의에 대한 간접적인 검증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고려들이 이 연구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떠한 체계적인 이론적 검증도, 정밀한 기법을 사용한 분석도 시도하고 있지 않다. 현재의 단계에서는 그러한 시도가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앞으로의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진전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마디로 탐색적 성격을 가진 서술적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한국에서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한 가구와 가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 그 최초의 것으로는 아마도 최재석의 1955년 센서스 자료의 분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66: 1-4장). 이 연구는 0.1%에 해당하는 1955년 센서스의 원래 질문지를 다시 정리하여 분석한 것이다. 표본의 수로 보아 다변수 분석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수반하지만, 이 연구의 제표는 수작업에 의한 것으로 지역별 교차제표이외에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 연구는 가족의 구성과 형태에 대한 매우 포괄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원수의 계산이나 가구구성의 분류가 각종 센서스 보고서에 사용된 것들과는 차이가 커, 이 결과를 그 이후의 센서스 결과와 연결하여 분석하는데는 커다란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우리 연구에서는 이 연구 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음, 가구와 가족에 대한 연구로는 1966년 센서스

보고서를 정리하여 분석한 이해영(Lee H-Y, 1974: 234-254)의 것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1966년의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과거의 단편적인 자료들과 비교함으로써 1966년 센서스에서 나타난 유형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우리 나라 최초의 가구 및 가족에 대한 인구학적 연구라는데 큰 의의를 갖고 있다. 우리 연구에서는 1966년 자료의 정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직접 이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들 초기 연구를 제외하고는 센서스 자료를 이용한 가구와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대부분이 제한된 관심의 영역 안에서 센서스의 가구와 가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보다 포괄적인 인구학적인 논의나 가족연구의 부분적인 자료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가구와 가족에 대한 전반적이며 시계열적인 전망이 결여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데 소위 “근대화론의 신화”에 빠질 위험이 크며,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변화와 유형을 무심히 넘기기 쉽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가구와 가족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이것이 인구학적 성격의 연구라는 점이다. 따라서 가구와 가족의 인구학적 구성을 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이용하고 있는 자료도 인구센서스의 결과이다. 가구와 가족구성 유형과 변화에 대한 설명도 주로 인구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힘이나 요소가 가족과 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직접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구학적 요소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인구학적 요소들은 직접적 결정요인 또는 중간변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특징으로서는 이 연구가 포괄적이며 서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부분적으로는 1990년 2% 표본자료를 이용해 통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지만, 주 내용은 센서스를 통해 나타나는 가구 및 가족 구성의 시계열적인 추세를 서술하고 또한 1990년 2%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최근에 관찰되는 가구와 가족에 대한 각종 사회적 차별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주어진 관찰에 대한 분석적인 설명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가족이나 가구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 개개인을 단위로 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보통 가구나 가족의 분석은 가구를 단위로 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구원들의 생활 조건에 대한 고찰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족 생활주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는 가구원을 단위로 하지 않고서는 그 내용이 극히 피상적이 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앞으로의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고찰을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특히 1970년 이후의 센서스 표본 자료를 사용할 경우, 가구와 가족에 대한 여러 주제 하나하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앞으로의 본격적인 연구의 계획과 틀의 작성에 공헌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이 연구는 크게 세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센서스 보고서를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의 가족과 가구구성의 변화를 살핀다. 여기서는 주로 가구와 가족의 크기, 가족의 세대구성과 형태의 구성, 가구의 특성에 따른 가구와 가족구성의 변화 등을 다룬다. 다음 1990년 센서스 2%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1990년의 가구 및 가족구조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90년 센서스를 통해 관찰되는 가족해체 또는 가족 분할 현상과 이러한 현상을 야기시키는 주요 인구학적 또는 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 2. 자료와 개념

가구와 가족은 개념상 뚜렷이 구분된다. 가구는 단순한 거주 단위인데 반해 가족은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기초로 한 개념이다. 그러나 자료 수집에 있어서 이 둘의 구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접근도 가구를 통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을 거주를 중심으로 고찰할 때에 가족은 가구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다시 말해 가구자료를 통해 가족을 연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가구에 대한 고찰은 가족의 형성과 해체의 연구에 필수적인 항목이다. 가령 1인가구는 가족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족제도의 변화에 대한 이해에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즉 이 두가지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센서스의 가구자료는 어떤 자료 못지 않게 중요한 가족연구의 자원으로 취급할 수 있다. 특히 구조적이고 유형적인 측면에서의 가족의 연구에서는 다른 어떤 자료보다 높은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1966-1990년 센서스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의 가구구성 및 가족구조의 특성과 인구학적 차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1990년 인구센서스 2% 표본자료를 이용하였다.

센서스의 기본원칙의 하나가 개인을 단위로 조사를 실시하는 개별조사의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센서스는 가구를 단위로 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 단 개별조사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는, 당사자에게 묻지는 않는다하여도 개인별로 작성된다. 그리고 개인의 확인은 “가구주와의 관계” 또는 “가구에 있어서의 지위”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하간 센서스가 가구를 단위로 하여 조사된다는 사실은 센서스 자료에는 가구와 가족에 대한 상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센서스를 통해 가구와 가족에 대한 보다 풍부한 자료의 수집도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센서스보고서에 가족과 가구에 대한 내용이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수록되기 시작된 것은 1966년 센서스부터이다. 그 이전의 보고서로부터는 가구에 대해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추출할 수 있을 뿐이다. 1955년 센서스보고서의 경우, 각 도별로 보통가구와 준가구의 수가 총 인구수와 함께 제시되었고 시부, 군부로 나누어 주거의 종류별로 가구수가 제표된 것<sup>1)</sup>이 고작이다. 이 외에 주거의 종류별로 영농 및 비농가구의 수 및 인구에 관한 정보가 주어져 있다.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우리의 연구에 필요한 정보로는 준가구를 포함하여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가 각 지역별로 몇 명인가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1960년에 오면 여러 가지 가구에 대한 집계는 20%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가구는 일차적으로 개인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가구는 다른 센서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1인가구를 포함한 보통 또는 일반가구를 의미한다. 그리고 집단가구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생활 공동체를 뜻한다. 이외에 영농여부에 따라 가구를 영농가구와 비농가구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과 함께, 가구주와의 관계별 인구(제6표), 세대수 및 가구원수별 개인가구수(제7표), 사별, 이혼, 미혼인 가구주의 성별 및 가구원수별 개인가구수(제8표), 산업(대분류), 성별 및 가구원수별 가구수(제9표), 그리고 직업(대분류), 성별 및 가구원수별 가구수(제10표)의 4가지 표가 작성되었다. 이들 표는 모두 시부, 읍부, 면부로 세분하여 작성되었다. 이들 표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1966년 이후 자료와 비교 가능한 정보로는 가구의 형태별 구성, 친족가구의 세대별 구성 및 일반가구와 친족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정도이다.

1966년 센서스에서는 가구에 관한 정보를 세분하여 10% 표본조사구를

1) 내무부 통계국, 제5표 및 제9표, 1959.

대상으로 하여 수집하였다. 우선 가구는 보통가구와 준가구로 구분하였다. 집단 수용시설 가구 등은 10% 표본조사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구구분에서는 빠졌다. 보통가구는 다시 친족가구와 스스로 취사를 하는 -혼자 생활을 하는- 단독가구 및 비친족가구로, 그리고 준가구는 취사를 하지 않는 1인 준가구와 기타 준가구로 나뉘었다. 또한 친족가구는 가구원들의 가족관계에 따라 세대 및 형태 구분을 하고 있다. 이외에 보통가구의 경제적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분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1970년 이후 센서스의 가구 분류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1975년 이후의 분류와 비교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1966년의 경우, 1인가구를 보통가구와 준가구로 나누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실제 제표를 살펴 보면 친족가구에도 1인가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1970년 이후의 자료와의 비교를 목적으로 1966년 보고서를 이용할 경우, 특별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은 1966년 센서스보고서 자료를 재구성하여 사용하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여하간 1966년 센서스부터 가족형태의 구분은 가능하게 되었고 가족형태에 따른 여러 가지 제표가 보고서에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 센서스에서도 가구는 보통가구와 준가구로 분류하였다. 보통가구에는 비친족가구가 제외되었고 준가구에는 단독가구가 제외되는 대신 비친족가구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가구 자료의 집계에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그것은 1970년 센서스 보고서에 수록된 가구 자료는 친족가구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다.<sup>2)</sup> 다시 친족가구는 세대와 가족원의 구성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제표에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친족가구의 구분은 그 이후 센서스 보고서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되

2) 친족가구라는 용어는 1970년 센서스에서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 보고서에서는 다른 센서스의 분류에 따르면 친족가구인 경우를 보통가구라고 부르고 있다.

고 있다. 이 외에 1970년 센서스에서는 가족의 기본 단위로서 가족핵(family nuclei)을 가구별로 파악하고 있다.<sup>3)</sup> 1970년 센서스 보고서의 가구에 관한 제표는, 1960-66년과는 달리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나, 가구원수 및 가족 핵수별 친족가구의 구성과 세대, 가족구성 및 가구원수별 친족가구 분포에 한정되어 있다. 한편 1970년 센서스부터는 인구와 주택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실시되어, 그 명칭도 “총인구및주택조사”로 바뀌었다. 따라서 주택에 관한 제표부분에 주택 또는 거주생활과 관련된 가구에 대한 정보가 이때부터 수록되기 시작한다.<sup>4)</sup>

1975년 센서스에서는 1970년 센서스에서 사용한 가족의 개념과 분류 방법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가구에 관한 제표내용도 연령 및 혼인상태별 가구주의 분포 하나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보통가구의 세대별 가족관계별 구성에 1인가구가 더 추가된 것이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1975년 센서스 보고서의 가구주에 관한 정보의 추가는 가구주 특성에 따른 가구유형 분석의 출발점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1980년 센서스부터는 가구를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가구란 이전의 보통가구를 뜻한다. 영어로는 두가지 다 “ordinary household”로 번역된다. 그러나 과거의 보통가구와 1980년 이후의 일반가구는 내용에 있어서 한가지 차이가 있다. 그것은 1980년 이후의 일반가구에는 5인 이하의 비친족가구<sup>5)</sup>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한편 집

3) 1975-85년 센서스에서는 핵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가족핵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핵이 하나인 가족은 핵가족일 수 있으나 확대가족인 경우에는 가족핵이 둘 이상일 수 있어 이 둘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들 센서스에서 사용된 핵가족이라는 용어는 가족핵으로 파악해야 한다.

4) 주택 및 거주관련 사항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5) 1980년 이후 센서스 보고서에는 친족이라는 용어 대신 혈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그러나 가족성원이 혼인, 혈연 및 입양에 의해 맺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혈연가구 또는 비혈연가구라는 용어보다는 친족 또는 비친족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혈연이라는 용어 대신 친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단가구는 과거의 준가구와 비슷한 개념으로 집단시설가구와 6인 이상의 비친족가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가구에 대한 제표는 모두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 가구에 관한 제표의 내용은 1975년 것과 같으나 지역별 제표를 보다 세분하였다. 과거의 도별 제표에는 시부, 읍부, 면부의 구분이 없었으나 1980년에는 이것이 추가되었다.

1985년 센서스에는 가구주에 관한 정보가 대량 추가된다. 가구주의 연령, 혼인상태, 교육정도, 직업에 따른 세대-가족구성과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거처의 종류, 거처의 점유형태가 그것이다. 1990년 센서스의 가구에 관한 제표는 가구주의 직업에 따른 세대-가족구성이 빠진 것을 제외하고는 1985년의 것과 동일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1955년 이후 센서스 보고서에 사용된 가구에 대한 분류의 원칙과 용어가 계속 바뀌어 왔고 제표의 내용도 달라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말해 센서스 자료와 보고서를 사용한 가구와 가족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에는 상당한 정도의 비교성의 문제가 개재되며 일관된 분석의 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적 최근 즉 1980년 이후의 자료만이 엄격한 의미에서 비교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자료를 재구성하면 적어도 1966년부터 1990년 사이의 가구와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그리고 유용한 분석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교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초기의 센서스 자료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가구 및 가족과 관련된 용어는 어떤 특정 센서스의 것을 따르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가구의 분류 및 개념은 1980-90년 센서스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가구 또는 보통가구이다. 여기서는 1980년 이후 센서스에서 사용하는 일반가구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 센서스에 따

르면 일반가구는 다시 혈연가구, 단독가구 및 비혈연가구로 나뉜다. 이 연구에서는 혈연이라는 용어 대신 실제내용을 보다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친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단독가구라는 말이 일반인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1인가구로 고쳐 쓰고 있다.

## II. 가구 및 가족의 성격 변화 : 센서스보고서 자료의 시계열적 분석

이 장에서는 가구와 가족의 구성 및 그 변화 양상을 센서스보고서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먼저 가구와 가족의 크기를, 다음 가구와 가족의 구성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특성과 그에 따른 가구와 가족 형태의 차이를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의 초점은 시계열적인 추세와 각각의 센서스 시점에 있어서의 지역간 차이에 두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보고서를 이용한 분석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갖게 마련이다. 이미 앞의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내용이 센서스 사이에 차이가 있어 모든 항목에 대한 일관된 분석은 어렵다. 또한 센서스 사이의 자료의 비교성도 문제가 된다. 같은 용어를 사용하거나 비슷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조사에 사용된 구체적인 지침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된 자료의 정리, 부호화 및 제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개재된다. 이 장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숨겨진 비교성의 문제에 대한 통제는 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이로 인한 잘못된 논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센서스 보고서는 가구와 가족의 구성 및 변화의 유형을 개괄적으로 살피는 데에 매우 유용한 자료원으로 판단되었다.

지역별 추세분석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점은 비교 시점들 사이에 엄격한 비교성이 없다는 점이다. 계속되는 도시화로 우리 나라는 1960년까지만 해도 농촌 지배적인 사회였으나 1990년에는 완전히 도시 지배적인 사회로 바뀌었다. 도시화의 결과로 과거 면부에 속했던 많은 지역들의 행정적인 지위가 읍부 또는 시부로 바뀌었고, 읍부는 시부로 승격하였다. 또한 계속되는 대규모 이촌향도로 인해 같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인구학적 비교성은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구 및 가족의 지역별 유형파악은, 그것이 우리 사회의 변동이 가구형성과 가족생활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지적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장에서는 관찰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체계적인 설명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자료의 성격으로 보아 이러한 시도가 효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관찰된 내용의 타당성의 간접적인 지표로서 인구학적인 해석이나 설명을 그때 그때 제시하고 있다. 실제 센서스보고서로부터 구성되어 나오는 가구와 가족의 유형 및 변화의 양상은 상당히 높은 인구학적인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사회적 내지 인구학적 요인의 보다 포괄적인 분석은 개인별 또는 가구별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 장들에서 1990년 센서스의 2% 표본가구 및 개인별 자료를 사용하여 시도하고 있다.

모든 인구학적 요인은 가구와 가족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간변수로서 작용한다. 가령 출산력은 가구 및 가족의 크기에 직접 간여한다. 사망력은 유효 출산력의 주요 변수이며 동시에 혼인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인지를 결정한다. 한편 지역간의 선택적인 인구이동은 기원지와 목표지의 인구구조를 바꾸고 따라서 가구 및 가족의 형성과 해체, 가족 생활주기에 영향을 준다. 혼인연령은 가족형성의 시기를 뜻하며 젊은 층 가구 및 가족구성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들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가구 및 가족의 구성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자.

## 1. 가구의 크기

전통적으로 한국 가족생활의 이상은 많은 가족 성원이 몇 대에 걸쳐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사는 것이었다. 이는 간단히 수세대에 걸친 대가족으로 이루어진 확대가족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이 전통사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웠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기본적인 이유는 우선 인구학적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인구는 무엇보다도 높은 사망률로 대표된다. 한편 높은 사망률은 유효 출산수준을 낮춤으로써 많은 자녀로 구성되는 대가족의 형성을 어렵게 한다. 또한 높은 사망률은 낮은 평균수명을 뜻한다.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낮다는 것은 다시 결혼한 자식이 부모를 모실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적거나 오랜 기간 모시기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 즉 높은 사망력 상태에서는 대가족을 전제로 한 확대가족의 이상이 보편화되기란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이해영·권태환 1968: 28-31).

한국 사회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전통사회의 성원은 매우 가난한 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빈곤은 흔히 커다란 집과 많은 가족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확대가족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가부장이 부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많은 가족성원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가족의 분할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 인구학적인 조건을 고려해 볼 때, 과거 우리 사회에서 대가족이나 확대가족의 이상이 쉽게 현실화되었으리라는 가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위의 논문: 10).

우리 나라에서 믿을 만한 인구자료가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1925년 센서스의 실시를 그 효시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20년에 들어오면 상주조사를 통해 비교적 정확한 가구와 인구의 수가 매년 수집되고 있다. 이들 자

료에 의하면 1920년 우리 나라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5.30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 수는 1930년에 5.35명으로, 1940년에는 5.42명으로 매우 점진적인 증가를 기록하였다 (Kim Y. 1966). 한편 1930년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5.26명<sup>6)</sup>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제시대의 점진적인 평균가구원수의 증가는 아마도 1920년경부터 시작된 초기 사망률 변천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던 것이 1960년 일반가구원수와 친족가구원수는 각각 5.57명과 5.68명으로 늘어나고, 1966년에는 약간의 감소를 보이거나 아직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sup>7)</sup>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평균 가구의 크기는 1966년 이후 계속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친족가구의 경우 평균 가구원수가 1970년에는 5.24명, 1980년에는 4.76명, 그리고 1990년에는 4.00명에 이르게 된다.

한편 일반가구는 1975년 평균 5.01명의 크기를 나타내던 것이 1990년에는 3.71명으로 크게 줄고 있다. 이러한 1960년 이후의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는 친족가구와 일반가구 사이의 차이 확대를 동반하고 있다. 1960-90년에 이르는 30년 동안 둘 사이의 차이는 거의 3배 가까이 커지고 있다.

1960년까지의 평균 가구원수의 증가는 한국동란 이후 시작된 급격한 사망률의 저하와 베이비 붐(baby boom) 현상에 직접적으로 기인하고 있다. 한편 1960년 이후 가구와 가족 크기의 빠른 감소는 소위, 인구변천의 마지막 단계인 출산력의 변천과 사회변동의 주요 요소인 대규모 이촌향도로 인한 빠른 도시화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출산력의 저하는 자녀수의 감소를 통해 그리고 이촌향도 현상은 많은 농촌가구의 가구분할을 통해 가구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농촌의 젊은 층의 도시로의 이동은 도시에서의 젊은 층 1인가구의 증가와 농촌에서의 노인 1인가구의 증가를 가져와 전반

6) 일본인 가구가 포함되었음. 그들을 빼면 약 5.3명 정도로 추계된다.

7) 최 재석의 1955년 센서스 1%집계에 따르면 평균(일반)가구원수는 전국 5.40, 도시 5.28, 농촌 5.44명으로 계산되었다.(1966:42).

〈표 2-1〉 일반가구 및 친족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1955-90  
(단위 : 명)

지 역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A) 일반가구								
전 국	5.66*	5.57	5.44	-	5.01	4.55	4.09	3.71
시 부	5.60*	5.38	5.05	-	4.77	4.42	4.04	3.71
군 부	5.67*	5.65	5.67	-	5.27	4.72	4.18	3.69
읍부		5.49			5.04	4.71	4.21	3.79
면부		5.69			5.32	4.73	4.16	3.64
(B) 친족가구								
전 국	5.48#	5.68	5.64	5.24	5.22	4.76	4.35	4.00
시 부	-	5.48	5.30	4.88	4.99	4.63	4.30	3.99
군 부	-	5.75	5.83	5.51	5.44	4.94	4.44	4.01
읍부		5.61		5.24	5.25	4.92	4.47	4.09
면부		5.78		5.56	5.49	4.94	4.43	3.98

주 : \*집단가구 및 준가구 포함.

#판잣집 및 수용소 등을 제외한 일반 주택거주자.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전국편.

적으로 일반가구와 친족가구 사이의 평균 가구원수의 차이를 증가시킨다.

1955년에서 1990년에 이르는 기간에 가구 또는 가족의 크기는 도시와 농촌 사이에 다른 변화의 궤적을 그리고 있다. 먼저 시부에서는 1960년에서 1970년에 이르는 기간에 0.60명 또는 11%에 달하는 평균 친족가구원수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다음 5년간 시부에서의 가족의 크기가 오히려 약간 증가하다가 다시 1975년 이후 매 5년마다 7.1-7.2%에 달하는 빠른 감소를 보인다. 한편 군부에서는 1966년까지 평균 가구원수가 오히려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다음 1966-75년 사이에 서서히 감소하다가 1975년 이후에는 시부의 감소속도를 훨씬 능가하는 빠른 속도(매 5년간 9.2-10.1%)로 줄어들고 있다. 1955년 도시-농촌간의 가구규모의 차이는 매우 미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양상의 차이로 1955-70년간에 도시와 농촌 사이에 평균 가구원수의 차이는 커지게 된다. 일반가구의 경우 1955년 0.07명에 불과했던 차이가 1966년에는 0.62명으로 늘어난다. 그 이후 차이는 다시 줄어 1990년에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 즉 현재 도시와 농촌 사이에 가구의 평균크기는 거의 같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도시와 농촌 가구의 재수렴현상이 과거와 같이 가구나 가족의 형태나 구조의 수렴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구 및 가족구조의 이질화가 심화되면서 가구 규모의 수렴현상이 관찰된다. 바로 뒤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지난 30년간의 가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 농촌의 가구 및 가족규모는 도시의 것보다 작아지고 그 차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과 도시의 가구 및 가족의 상대적인 변화는 일차적으로 도시-농촌 사이의 출산력 변천의 차이에 의해 설명된다. 출산력의 차이가 커질 때 가구 및 가족의 크기의 차이가 늘어나고 작아질 때 줄어든다. 이는 자녀의 수가 가구나 가족규모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라는 사실을 뜻한다. 현대적인 인구이동의 효과는 대규모 이농현상이 관찰되는 196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1955년부터 1966년 사이의 이동은 주로 한국동란 기간에 발생했던 국내 피난민의 귀환과 북한 피난민의 재정착과정에서 의해 지배되었다(Kwon T-H, 1977: 223-237). 이러한 이동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출산력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의 평균 가구 및 가족의 규모를 크게 하는데 공헌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이후의 대량 이농현상은 농촌 가족원의 분할을 통해 이동의 목표지와 기원지인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평균 가구원수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연령 선택적인 이동의 현상은 도시와 농촌 가족생활의 이질화를 촉진하였다.



## 2. 가구구성

일반적으로 주어진 사회에서 가족이 얼마나 보편적인가는 친족가구에 사는 인구의 비율을 통해 살필 수 있다. 1960년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96.8%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당시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가족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의 보편성은 도시와 농촌 사이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에 상당히 약화되고 1975년에 다시 강화되다가 그 이후 보다 점진적인 그러나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표 2-2> 참조). 1960년대의 친족가구 거주 인구비율의 감소는 특히 도시에서 뚜렷하였다. 그러나 1975년 이후에는 그 비율이 농촌에서 오히려 더 빨리 떨어져 1990년에 이르면 도시보다도 농촌에서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작게 나타난다.

1960년대의 급격한 친족가구 거주 인구비율의 감소는 아마도 자료의 집계와 분류의 문제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우리 사회에서 최초의 대규모 이농이 발생하여 서울로 인구가 집중된 때이고, 그 주된 이유가 빈곤과 연속적인 흉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자료의 문제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한편 1970-75년은 급격한 초기 대규모 이동에 따른 여러 가지 불균형 현상의 재조정이 이루어진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75년 이후의 점진적인 가족해체 현상은 경제발전, 도시화 및 인구변천의 영향이 가족생활에 반영되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2〉 총인구중 친족가구와 1인가구 거주 인구의 비율 및  
일반가구중 1인가구의 비율, 1960-90

지 역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A) 친족가구 거주 인구 비율 (%)								
전국 시·부 군·읍·면	국	96.76	95.01	93.00	95.80	94.98	94.11	93.62
	부	96.06	92.80	89.75	94.73	94.32	93.98	93.95
	군	97.03	96.27	95.29	96.77	95.86	94.35	92.65
	읍·면	96.85	-	92.91	95.95	95.27	94.08	93.16
		97.06	-	95.72	97.05	96.10	94.49	92.40
(B) 일인가구 거주 인구 비율 (%)								
전국 시·부 군·읍·면	국	0.40	0.71	-	0.81	1.02	1.64	2.35
	부	0.43	1.02	-	0.90	1.03	1.62	2.24
	군	0.39	0.55	-	0.73	1.02	1.67	2.68
	읍·면	0.48	-	-	0.85	0.92	1.53	2.28
		0.38	-	0.70	1.05	1.80	2.88	
(C) 일반가구* 중 1인가구의 비율 (%)								
전국 시·부 군·읍·면	국	2.30	4.01	-	4.23	4.80	6.91	9.00
	부	3.39	5.36	-	4.52	4.71	6.75	8.55
	군	2.26	3.26	-	3.93	4.93	7.20	10.30
	읍·면	2.68	-	-	4.44	4.48	6.67	8.90
		2.20	-	3.39	5.11	7.53	10.92	

주 : \*1960년도 및 1975년도에는 친족가구 + 1인가구를 뜻함.

1966년에는 친족가구 + 1인가구 + 비친족가구를 그리고 1980-90년도에는 친족가구 + 1인가구 + 비친족가구를 뜻함.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전국편.

친족가구 거주인구의 감소는 다시 두가지 요소로 나뉜다. 첫째는 1인가구의 증가이고 둘째는 집단가구 또는 비친족가구의 증가이다. 1인가구에 거주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1960년에 0.4%에 불과하던 비율이 1990년에는 2.4%정도로 약 6배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전체로 볼 때 혼자 사는 인구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리고 그 비율도

1980년 이후에는 도시보다도 농촌에서 더 높고, 더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한편 1960-90년 사이에 집단가구 및 비친족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볼 때 3.8%에서 4.1%로 매우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즉 지난 30년 사이의 친족가구 거주 인구비율의 감소는 전반적으로 혼자 사는 인구의 증가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나 센서스 기간에 따라서는 특히 1966-70년의 변화에는 집단가구나 비친족가구 거주인구의 증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 집단가구나 비친족가구 거주인구 비율이 농촌에서 더 커지는 것은 아마도 도시 땅 값의 급등으로 인한 집단 수용시설의 농촌지역으로의 이전에 주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2-3> 1인가구원의 3개 연령집단별 분포, 1985년과 1990년도  
(단위 : %)

지 역	합계	30세 미만	30-54세	55세 이상
(A) 1985년				
전 국	100.00	40.67	25.85	33.48
시 부	100.00	53.63	27.63	18.74
군 부	100.00	16.92	22.60	60.48
읍부	100.00	29.04	25.93	45.03
면부	100.00	11.33	21.05	67.62
(B) 1990년				
전 국	100.00	36.87	29.22	33.91
시 부	100.00	46.78	32.57	20.65
군 부	100.00	12.77	21.10	66.13
읍부	100.00	20.65	28.79	50.56
면부	100.00	8.85	19.10	72.05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전국편.

인구가 아니라 가구를 단위로 할 때 1960-90년의 30년 사이에 1인가구 비율은 매우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였다. 1960년에 집단 및 비친족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1990년에는 9.0%로 늘고 있다.<sup>8)</sup> 초기의 1인가구 비율의 증가는 도시에서 더욱 뚜렷하였고 이는 주로 젊은 전입인구의 일시적인 1인가구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촌으로부터 젊은 인구의 대규모 진출은 농촌에 노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 보통이다. 그 결과 특히 노인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농촌의 1인가구 비율이 도시의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우리 사회 전체로 볼 때, 젊은 층과 노인층 모두에서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관찰된다. 그러나 그 양상은 도시와 농촌 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가령 1985년 센서스에 따르면 시부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 가운데 나이가 30세 미만이 53.6%, 55세 이상이 18.7%인데 반해, 면부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11.3%와 67.6%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에 이르면 그 차이가 더 확대된다(<표 2-3>참조). 1인가구의 비율을 가족해체의 주요 지표로 간주하면 현재 도시보다도 농촌에서 가족해체가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사회성원이 어느 정도 나이에 이를 때까지 결혼을 하는 혼인의 보편성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젊은 층의 1인가구는 일시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현재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이동자의 절대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젊은 층의 1인가구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혼인연령의 상승과 함께 최근 도시간 또는 도시내에서의 전반적인 이동성의 상승에 의해 대부분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일반가구의 개념이 연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표 2-2>와 1장의 자료에 대한 논의 참조.

### 3. 가족의 세대별 구성

사람들의 주거의 단위인 가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친족가구이다. 친족가구는 기본적으로 가구의 형성원칙이 가구원들 사이에 혈연, 결혼 및 입양을 전제로 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물론 비친족 동거인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친족가구 판정에 있어서 그들의 위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친족가구는 두 사람이상의 가족관계에 있는 성원이 있을 때에만 성립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친족가구는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 "가족"과 동일시 해도 무리가 없다. 다시 말해 센서스의 친족가구 구성을 통해 우리는 주어진 사회의 가족형태를 살필 수 있다.

우선 센서스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족구성은 가족의 세대별 구성이다. 1960년 센서스에 따르면 다시 우리 나라 가족의 93%는 2세대 내지 3세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가족은 결혼한 부부와 미혼의 자녀가 동거하는 경우가 주가 되는 2세대 가족으로 이는 총가족의 65.4%를 차지하였다. 다음이 부모와 혼인한 자녀, 미혼의 손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3세대 가족이 27.6%의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세대구성은 1960년 이후 지속적인 변화를 보인다. 우선 일차적으로 3세대 이상 가족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다. 1960-90년 사이에 3세대 이상 가족의 비율은 29.3%에서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0%로 줄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1세대 및 2세대 가족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가장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인 것은 1세대 가족이다. 1960년 5.3%에 불과했던 1세대 가족은 1990년에 이르러서는 3세대 가족과 비슷한 12%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2세대 가족 또한 꾸준한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1990년에는 전체 가족의 3/4이 2세대 가족을 이루는 정도에 까지 도달하였다.

1세대 가족의 증가는 보통 세 가지 요소에 의해 촉진된다. 첫째는 가족형성 규범의 변화이다. 여기에는 무자녀 가족의 증가와 결혼 후 첫번째 자녀를 갖기까지의 기간의 연장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앞의 것은 가족제도의 전반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널리 관찰되거나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도 자녀는 가족의 가장 보편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자녀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85년과 1990년에 35-39세의 가구주집단의 경우, 1세대 가족을 이루는 비율이 2% 정도에 불과한 사실로도 확인된다(<그림 2-6>참조).

두번째 요소는 성인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해 노인부부만이 남게 되는 경우이다. 젊은 인구층의 지속적인 이동으로 인해 노인 1인가구와 함께 노인만의 가족이 농촌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요소는 1세대 가족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요소는 형제들로만 구성된 가족의 증가이다. 이러한 형제가족은 혼인 이전의 연령층과 노인연령층에서 주로 발견된다. 젊은 미혼형제가족은 농촌-도시 이동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주로 형성되었고 이들 연령 인구집단의 크기도 커져 1960년대 이후 계속 늘어 왔으리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촌-도시 이동인구의 절대수의 격감과 새로 이 연령층에 진입하는 연령층의 축소로 미혼형제가족의 비율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인형제가족은 약간씩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1세대 가족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할 때,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에서 1세대 가족이 증가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는 노인부부가족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은 시부에서는 1세대 가족의 비율이 별로 크게 증가하지 않는데 비해 면부에서는 4배의 증가를 보인 사실, 보다 일반적으로

시부 가족의 세대구성이 매우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반해 농촌에서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표 2-4〉 참조). 1960년 1세대 가족의 비율은 시부가 7.1% 면부가 4.4%를 보였다. 그러나 1990년에 이 비율은 각각 10.7%와 17.7%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시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되던 1세대 가족은 최근에는 오히려 농촌에서 훨씬 많이 보인다. 또한 시부에서는 2세대 가족의 비율이 약간씩이나마 올라가고 있는 반면, 면부에서는 1980년 이후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바로 최근에 올수록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농촌의 노인가족비율에 의해 설명된다.

세대별 가족구성을 통해 우리는 가족유형을 고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개인의 가족생활의 유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가족의 성원이 몇 세대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가족의 크기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1세대 가족의 크기가 2세대 가족에 비해 작고 3세대나 4세대 가족의 크기가 2세대 가족에 비해 크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세대에 따른 평균 가구원수가 얼마나 뚜렷이 차이가 나는가는 〈그림 2-1〉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 2-4〉와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각각의 세대별 비율변화의 추이는 가족을 단위로 했을 때나 개별 가족성원을 단위로 했을 때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가족의 세대구성과 가족성원들이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관찰된다. 가족단위로 볼 때 1970년의 1세대 비율은 6.8%이나 개인단위로는 2.8%에 불과하다.

1990년의 경우 1세대 가족과 3세대 가족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나 개인을 단위로 한 고찰에서는 3세대의 비율이 1세대의 약 3배 가까이에 이른다. 그 이유는 바로 가족의 세대별 평균 가구원수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표 2-4〉 친족가족의 세대구성, 1960-90

(단위 : %)

지역 / 세대	1960	1966 <sup>1)</sup>	1970	1975	1980	1985	1990
전국/1세대	5.30	5.21	6.75	7.06	8.81	10.46	12.00
2세대	65.42	68.01	70.04	71.76	73.06	73.28	74.06
3세대	27.64	24.17	22.06	20.20	17.56	15.80	13.60
4세대이상	1.63	2.61	1.15	0.98	0.56	0.46	0.35
시부/1세대	7.08	7.53	9.16	8.65	9.67	10.29	10.69
2세대	73.33	74.74	75.44	76.32	76.46	76.51	77.28
3세대	19.02	16.02	14.88	14.51	13.55	12.92	11.79
4세대이상	0.56	1.72	0.52	0.51	0.32	0.27	0.24
읍부/1세대	5.82	-	6.36	6.39	7.47	9.27	11.97
2세대	68.60	-	72.02	72.95	73.33	72.38	71.16
3세대	24.42	-	20.68	19.74	18.59	17.76	16.34
4세대이상	1.16	-	0.95	0.93	0.61	0.60	0.53
면부/1세대	4.41	3.94	4.70	5.20	7.67	11.59	17.69
2세대	61.29	64.32	64.91	65.56	66.30	64.20	61.36
3세대	32.10	28.63	28.66	27.65	25.01	23.28	20.22
4세대이상	2.20	3.10	1.74	1.59	1.02	0.93	0.73

주 : 1) 1966년도 자료중 면부의 수치는 군부에 해당 됨.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전국편.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연도에서 세대별 평균 가구원수의 차이는 매우 뚜렷하다. 그러나 차이의 추세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다르다. 1970-75년에는 평균 가구원수가 1세대와 2세대 가족에서는 많아 지는데 비해 3-4세대 가족에서는 약간이나마 적어진다. 1975-80년에는 거꾸로 4세대 가족의 규모가 커지고 1-3세대의 규모는 줄어든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모든 세대에서 지속적으로 가족의 크기가 축소된다.

4세대 가족을 제외하고 1-3세대의 경우만 보면 1975년 이후 지속적인 하향곡선이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표 2-5〉 친족가족 개별가구원의 세대구성, 1966-90

(단위 : %)

지역 / 세대	1966 <sup>1)</sup>	1970	1975	1980	1985	1990
전국/1세대	2.19	2.82	3.19	4.28	5.39	6.58
2세대	63.34	66.78	69.24	71.08	72.07	73.95
3세대	31.45	28.67	26.10	23.70	21.74	18.85
4세대이상	3.02	1.73	1.46	0.94	0.80	0.62
시부/1세대	3.47	4.24	4.28	4.97	5.52	6.01
2세대	73.14	74.88	75.63	75.85	76.16	77.35
3세대	21.57	20.07	19.30	18.63	17.83	16.21
4세대이상	1.72	0.82	0.79	0.55	0.48	0.42
읍부/1세대	-	2.59	2.81	3.50	4.54	6.30
2세대	-	69.24	70.29	70.81	70.17	70.17
3세대	-	26.74	25.53	24.68	24.26	22.60
4세대이상	-	1.43	1.37	1.01	1.04	0.93
면부/1세대	1.56	1.76	2.05	3.31	5.44	9.18
2세대	58.47	60.07	61.60	62.44	61.38	60.91
3세대	36.36	35.68	34.10	32.61	31.60	28.60
4세대이상	3.61	2.49	2.25	1.64	1.57	1.30

주 : 1) 1966년도 자료중 면부의 수치는 군부에 해당 됨.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전국편.

특히 주목할만한 현상은 1980년대에는 평균 가구원수의 절대적 감소의 수준이 2-4세대의 경우 거의 비슷하며 이러한 현상이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는 점이다. 2-3세대 가족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1975년부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1960년 이후, 특히 1965년 이후의 출산력 저하의 효과가 가족의 평균 자녀수 감소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전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1975년 이후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4세대 가족의 평균 규모의 뚜렷한 저하가 1980년 이후에 시작된 것은 4세대 가족의 가구주 연령이 비교적 높으리라는 점과 따라서 이 집단의 규모는 다른 집단에 비해 이전의 출산 코호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으리라는 가정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다

시말해 적어도 자녀가 중요한 구성요인으로 되어 있는 2-4세대 가족의 규모는 적어도 지난 10-15년 또는 10-20년까지의 출산력 변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그림 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4. 가족형태

가족형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센서스보고서를 통해서 얻어 낼 수 없다. 그러나 1966년 이후의 센서스보고서에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기초로 한 친족가구의 분류가 비교적 상세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가구형태의 분포가 주어지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우리는 개괄적으로나마 가족형태별 가구분포를 구성해 낼 수가 있다. 센서스보고서에 사용된 분류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순수한” 핵가족<sup>9)</sup>과 직계가족의 비율이다. 핵가족이나 직계가족을 중심으로 다른 가족성원이나 가구원이 함께 사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분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경우와 확대가족 가운데 순수한 직계가족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경우는 기타 가족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기타 가족에는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핵가족이나 직계가족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각각의 가족형태의 조작적 정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핵가족: 부부로 구성된 가족 +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 +  
 편부 또는 편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  
 직계가족: 부부와 양친 또는 편친 부모로 구성된 가족 + 부부와  
 양친 또는 편친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  
 기타 가족: 위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

9) 1985년 이전의 핵가족 분류와 1990년의 분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1985년 이전의 보고서 자료에 따른 핵가족 유형 중에는 기혼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2세대 가족형태도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나 센서스에서의 핵가족 정의에 따를 때, 1985년 이전의 경우 보고서자료에서 계산된 핵가족의 비율보다 약간 낮을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기혼의 자녀가 배우자없이 부모와만 사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1966년 센서스에 의하면 당시 우리 사회의 순수 핵가족의 비율은 66.6%에 달했다.<sup>10)</sup> 아마도 미혼의 형제들이나 동거인이 함께 사는 준핵가족까지 포함하면 핵가족의 비율은 전체 친족가구의 70%를 훨씬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66년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성장과 공업화가 막 시작은 되었으나 그 영향은 전혀 느낄 수 없었고 아직 전통적인 가난이 지배했던 시기이다. 동시에 결혼적령기 인구의 생산율이 세계 제2차대전과 한국 동란 등으로 떨어져, 예전에 비해 확대가족의 형성에 어느 정도 유리한 인구학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던 때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당시의 핵가족 비율이 근대화 영향의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사망률조건을 염두에 두면 과거 우리 전통사회의 핵가족 비율은 이보다 높았으리라 가정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한마디로 우리의 전통사회가 확대가족이 지배하는 사회였다는 일반적인 주장이 허구이며 신화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즉 전통사회에서 가족생활의 이상과 현실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1966-70년 사이에 핵가족 비율은 상당히 올라간다. 전국적으로 핵가족 비율은 1970년대 전반기에 약간 떨어졌다가 1975년 이후에는,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거나, 1990년의 76%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해석하는데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1966-75년 사이에 핵가족 비율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믿을만한 것이냐하는 것이다. 그 추세의 일부는 아마도 1970년 자료의 문제와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다른 연도의 자료와 비교할 때, 1970년에는 기타 가족의 비율이 매우 낮다. 이는 센서스보고서 제표상의 기준이 1970년의 경우 달랐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6-70년 사이에 농

10) 최재석의 1955년 센서스 1%집계표를 재구성하면 당시 순수 핵가족 비율이 65-67% 사이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1966:173-174).

촌으로부터 도시로의 대량 인구이동이 발생했고, 그 결과 도시에서 일시적으로 비친족가구 거주비율이 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이 반드시 자료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하간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10년 동안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핵가족화가 모든 지역에서 일어났음은 <표 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6> 친족가족의 가족형태 구성, 1966-90

(단위 : %)

지역 / 가족	1966 <sup>1)</sup>	1970	1975	1980	1985	1990
전국/핵가족	66.63	71.53	70.48	72.90	75.27	76.00
직계가족	21.36	21.89	14.70	14.06	13.67	12.51
기타	12.01	6.58	14.81	13.04	11.06	11.49
시부/핵가족	72.24	76.90	73.80	74.74	76.74	77.56
직계가족	14.28	16.75	11.39	11.61	11.76	11.07
기타	13.48	6.35	14.81	13.64	11.49	11.38
읍부/핵가족	-	74.11	73.37	74.62	76.14	74.27
직계가족	-	19.86	13.64	13.85	13.84	13.71
기타	-	6.03	12.99	11.54	10.02	12.02
면부/핵가족	63.57	66.31	65.41	68.62	70.47	70.00
직계가족	25.23	26.80	19.27	18.95	19.20	18.27
기타	11.20	6.89	15.32	12.43	10.34	11.73

주 : 1) 1966년도 자료중 면부의 수치는 군부에 해당 됨.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전국편.

그러나 이러한 핵가족화가 근대화 의 영향으로 인한 가족형성의 관념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핵가족의 세대별 구성을 보면, 1966년 이후 핵가족 비율의 증가는 대부분이 1세대 핵가족 즉 부부만이 사는 가족의 증가에 의해 설명된다. 그리고 1세대 핵가족의 증가는 농촌 특히 면부에서 더욱 뚜렷하다. 시부의 경우 핵가족 중 1세대 가족의 비율은 1975년의 7.1%에서 1990년에는 9.5%로 약 2.4%포인트 늘었다(<표 2-7> 참조). 이에 비

해 면부에서는 1975년 비슷한 7.0%에서 24.1%로 놀랄만한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전국 수준에서의 핵가족 비율의 증가가 주로 농촌의 노인 부부가족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는 다시 젊은 층의 대량 이혼향도와 연결된다.

〈표 2-7〉 핵가족 중 1세대 가족(부부가족)의 비율, 1966-90

(단위 : %)

지역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전국	6.16	7.61	7.07	8.79	10.33	12.20
시부	7.12	8.59	7.07	8.04	8.59	9.54
군부	5.57	6.79	7.06	9.90	13.94	20.77
읍부	-	7.47	7.23	8.46	10.64	14.20
면부	-	6.65	7.01	10.52	15.78	24.06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전국편.

도시에서의 핵가족 비율의 증가가 새로 결혼한 젊은 부부의 자녀출산 연기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 그 영향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직 무자녀 가족의 규범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할 때, 최근 핵가족화는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1985-90년 사이에 농촌에서는 핵가족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도시에서도 핵가족화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구조의 노령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는 노인 핵가족 비율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노인들을 포함하는 기타 가족 또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가족의 비율을 높이기도 한다. 또한 196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출산력의 감소 또한 우리의 가족제도와 가족규범에 근본적인 변

화가 없는 한, 앞으로 전국적으로 핵가족 비율을 낮추는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가족형태의 이념이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직계가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자녀수가 적어 진다는 것은,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그들이 혼인을 해 자기의 가족을 이루게 될 때 부모를 모시고 살게 될 확률이 그 만큼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직계가족은 크게 보아 양친과 동거하는 가족과 부모 가운데 한 분과 함께 사는 가족으로 나눌 수 있다. “같은 조건하에서” 양친 동거비율이 높다는 것은 가족내에서 부모의 가부장적 권위의 정도가 그 만큼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리고 비율이 낮다는 것은 부모가 배우자를 사별한 후 자식에게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개입되는 인구학적 조건으로는 혼인연령, 사망수준, 남녀간의 평균수명의 차이, 부부의 나이차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전반적인 조건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무어라고 말하기 어렵다.

1966년 센서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직계가족 가운데 양친 동거가족의 비율은 35%에 이르고 있다. 그 비율은 1970년 30%로 떨어진다. 그러다가 1975년에는 19%로 엄청난 감소를 보인다(<표 2-8> 참조). 그 이후에는 양친동거 직계가족의 비율이 안정된 상태에서 약간씩 올라간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1970-75년 사이의 급격한 변화로, 그것이 전반적인 직계가족 비율의 감소와 동시에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인구학적 구조의 변동에 의해 설명되지는 않고, 오히려 이 기간에 가족형성의 사회적 조건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인구가동으로 인한 가족의 분할로 노인 부부가 자녀들을 위해 남편은 농촌에 남아 있고 부인은 도시로 가 임시 별거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이 그 한 요소일 수 있을 것이다.

〈표 2-8〉 직계가족 중 양친과 동거하는 가족의 비율, 1966-90  
(단위 : %)

지 역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전 국	35.04	30.26	19.01	19.36	21.02	20.54
시 부	29.58	25.57	13.96	15.00	17.61	18.62
군 부	36.73	32.21	21.45	22.42	24.48	23.65
읍부	-	28.70	18.57	20.04	22.66	22.87
면부	-	32.68	21.99	23.06	25.13	23.91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전국편.

가족원 개개인을 단위로 한 가족형태별 분포는, 세대구성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단위로 한 분포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것은 핵가족거주 가구원수가 직계가족의 가구원수에 비해 적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직계가족의 경우 핵가족에 부모 또는 편부모가 추가 된다고 보면, 그리고 자녀수는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 두가지 형태의 가족 사이에는 2명에 못 미치는 차이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그 차이는 직계가족에 있어서의 부모의 동시 생존 확률과 별거의 가능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표 2-9〉에서 알 수 있듯이, 핵가족은 개별가구원이 거주하는 가족의 형태구성에 있어서도 모든 지역에서 계속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1970년 핵가족거주 가족성원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65.0%, 1990년에는 70.6%였다. 이는 가족단위의 경우에 비해 4-5%정도 낮은 수준으로, 그 추세에는 아무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이의 차이의 양상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시부의 경우 차이가 미미하나마 줄어드는 반면 면부에서는 커진다. 이는 주로 면부에서 1970-90년 사이에 가구원의 가족형태 구성의 변화가 매우 적은데 기인한다. 가족형태별 평균 가구원수의

〈표 2-9〉 친족가구 개별가구원의 가족형태 구성, 1966-90

(단위 : %)

지역 / 가족	1966 <sup>1)</sup>	1970	1975	1980	1985	1990
전국/핵가족	59.37	65.01	64.57	66.92	69.52	70.64
직계가족	27.76	29.60	18.53	18.04	17.80	16.44
기타	12.87	5.39	16.90	15.05	12.69	12.92
시부/핵가족	66.77	72.08	69.00	69.77	72.09	73.00
직계가족	19.32	22.99	14.48	14.87	15.25	14.45
기타	13.91	4.93	16.53	15.36	12.66	12.54
읍부/핵가족		68.04	67.32	68.47	69.62	67.62
직계가족		26.96	17.30	17.60	18.04	17.99
기타		5.01	15.38	13.93	12.34	14.40
면부/핵가족	55.69	59.01	58.75	61.06	62.10	61.73
직계가족	31.95	35.18	23.52	24.01	24.96	24.43
기타	12.35	5.81	17.74	14.92	12.94	13.84

주 : 1) 1966년도 자료중 면부의 수치는 군부에 해당 됨.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전국편.

분포는 <그림 2-2>에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에는 핵가족과 직계가족 사이의 평균 가구원수가 전국적으로 2.3명의 차이를 보인다. 지역별로도 시부의 2.1명에서 면부의 2.4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2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1975년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그 차이가 2명 이하, 보다 구체적으로는 1.5명에서 1.9명 수준으로 줄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올수록 시부에서의 차이가 면부에 비해 더 작아진다. 그 결과 1975-90년 사이에 두 지역간에 나타나는 이들 차이에 있어서의 격차는 0.13명에서 0.3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평균 가구원수 1.5명 이상의 차이는 직계가족 가운데 편친 동거의 비율이 80%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핵가족과 직계가족 사이에 현존 자녀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들어내는 수



치이다. 1970년의 2명을 넘는 차이도 마찬가지이다. 1970년의 경우에는 물론 자료의 신뢰성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여하간 모든 경우에 핵가족과 직계가족 사이에 자녀수 또는 출산력의 차이가 있다는 가정은 가족형태별 가구원수의 차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 가능성은 상당히 설득력을 가진다. 우리 나라의 차별출산력 연구에 의하면 어떤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장남과 차남 이하 사이에 출산수준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형제 사이의 출산력 차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 또는 가족형성의 원칙에 따르면 직계가족은 장남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보편화된 관습이다. 또한 1960년 이후 1990년에 이르는 3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지속적이고 빠른 출산력의 저하가 관찰된다. 이는 다른 말로 한 부모의 아들들의 자녀수는 출생순위에 비례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아들이 많을 경우, 장남과 막내 사이에는 그 차이도 커진다. 또한 이 기간의 지속적인 혼인연령의 상승도 형제들 사이에 자녀수의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농촌에서는 직계가족과 핵가족사이의 평균 가구원수의 차이가 지속되는 반면 도시에서는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 이는 도시 직계가족에서 편모를 모시고 있는 가족의 비율이 늘고 있다기보다는 도시와 농촌간의 출산력 저하유형의 차이에 의해 상당한 부분 설명된다. 출산력 저하는 도시에서 먼저 발생했으며 초기의 출산력 저하는 도시에서 훨씬 빨랐다. 반대로 1980년대 이후 도시에서 출산력이 떨어지는 속도는 상당히 둔화된다.

이와는 대조적인 현상이 농촌에서는 관찰된다. 농촌에서는 초기에 출산력 저하의 속도가 완만했고 오히려 1970년대 중반이후 최근에 대체출산력 이하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빠른 감소를 보였다. 출산력과는 달리, 편부모 직계가족의 비율은 오히려 도시에서 줄어 핵가족과 직계가족의 상대적인 규모의 차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 5.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생활

가구주란 통상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친족가구의 경우에는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거나 지는 것이 당연시되는 가구원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부장적 전통과 남성과 여성의 관습적인 역할규범으로 인해 자녀를 생산하고 부양하는 위치에 있는 부부 가운데 남성, 즉 생식가족(Family of Procreation)의 남성이 가구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구주의 특성 변화는 인구학적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가족제도 나아가서는 사회변화의 지표로서 간주되기도 한다. 또한 가구주에 대한 각종 논의는 현실적으로 주택수요 및 주택형태의 예측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

〈표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가구주는 거의 남자로 되어 있다. 1966년 센서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일반가구의 12%가 여성가구주로 되어 있다. 이 비율은 계속 조금씩 늘어 1990년에는 15.7%로 올라간다. 친족가족만을 대상으로 할 때 가구주의 남성 지배 현상은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가구주율이 상당히 낮지만, 1975-90년 사이의 변화는 지역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1966년에는 도시지역의 여성가구주 비율이 농촌지역보다 훨씬 높았고, 차이는 줄지만 그 추세가 1985년까지 지속되었으나 1990년에는 반대의 현상이 발견된다. 1985-90년 사이에 시부에서는 오히려 여성가구주 비율이 줄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에서의 여성노인 1인가구 비율의 증가,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전입인구의 절대적 감소, 도시에서의 여성 재혼율 상승 등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표 2-10〉 일반가구중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비율, 1966-90

(단위 : %)

지 역	1966	1975	1980	1985	1990
전 국	12.02	13.22	14.66	15.69	15.74
시 부	15.44	15.96	15.52	16.39	15.32
읍 부	-	12.02	14.03	14.59	16.16
면 부	10.16*	9.00	13.22	14.18	17.31

주 : \*군부의 자료임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전국편.

한편, 가구주의 연령별 구성의 유형과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중위연령을 이용하는 것이 간편하다.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가구주의 중위연령은 1966년에 42.0세, 1975년에 42.6세이던 것이 1990년에는 43.1세로 비교적 미미한 상승을 기록하였다.

이 기간의 평균수명의 연장을 고려할 때 가구주의 중위연령의 변화는 거의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위연령의 변화는 도시와 농촌사이에 차이가 크다. 도시에서는 가구주의 중위연령이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반해, 농촌에서는 1966-90년 사이에 8세 가량 올라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농촌에서 젊은 층 인구가 도시로 대량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속적인 인구 노령화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구주의 중위연령은 남녀 사이에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모든 연도에서 남자 가구주의 연령이 여자의 것에 비해 낮다. 남자 가구주의 경우, 중위연령은 전국적으로 볼 때 42-43세로 고정되어 있다. 아마도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인구이동의 영향으로, 도시에서는 1980년에 이르

기까지 가구주의 중위연령이 떨어지다가 1980년대부터 다시 약간씩 올라간다. 농촌에서는 거꾸로 1980년대 중반까지 약간 올라가다가 1985-90년 사이에 떨어진다. 여자 가구주의 경우 중위연령의 변화 폭은 남자에 비해 크다. 또한 도시에서의 변화의 방향은 남자의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농촌, 특히 면부에서는 여성 가구주의 연령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한편 1985-90년 사이의 변화는 특히 괄목할 만하다. 1966년 약 45세였던 면부 여성 가구주의 중위연령이 1990년에는 57세를 넘어서게 된다.

<표 2-11> 일반가구 가구주의 중위연령, 1966-90

지역		1966	1975	1980	1985	1990
		합 계				
전 시 읍 면	국	41.96	42.59	42.11	42.98	43.14
	부	40.73	41.10	39.24	41.33	41.55
	부	-	42.70	43.13	43.88	46.46
		42.70*	44.26	47.61	47.47	50.43
		남 자				
전 시 읍 면	국	41.68	42.23	41.34	42.49	42.52
	부	40.24	40.56	38.67	40.85	41.04
	부	-	42.36	42.21	43.26	44.24
		42.51*	44.02	46.60	46.98	45.52
		여 자				
전 시 읍 면	국	43.68	46.57	47.82	47.88	47.61
	부	43.21	45.87	44.10	46.09	47.20
	부	-	46.60	50.00	49.45	53.78
		44.07*	47.94	50.06	52.93	57.35

주 : \*군부의 자료임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전국편.

이상의 가구주 중위연령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가구주의 연령분포를 통해 살필 수 있다. <그림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구주의 연령분포

는 남녀간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남자는 15세에서 59세 사이에서 중위 연령을 전후로 해 봉우리가 형성되는 앞이 가파르고 뒤가 완만한 산과 같은 형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60세 이후에서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린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에는 곡선의 모양이 보다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여성 가구주의 수가 많아지는 양상을 보이나 20대 중반을 전후해 1차 굴곡이 형성되고 50대 후반에 비교적 완만한 2차 굴곡이 관찰된다. 20대 전반기는 여성의 지역이동이 가장 심한 시기이며, 20대 후반은 여성의 대부분이 결혼을 마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1차 굴곡은 쉽게 이해된다. 한편 50대 후반기의 여성 가구주수의 상대적인 감소는 남성 가구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이는 이때가 가족 생활주기에 있어 마지막 변화의 시점, 즉 마지막 자녀가 혼인을 하고 배우자와 사별할 확률이 높아지는 시점이 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세권 외 1987:149 참조).

여성 가구주 가운데 배우자를 가진 경우는 1966년의 33.7%에서 1975년에는 23.6%, 1990년에는 17.7%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남성 유배우 가구주의 비율은 1966년의 93.8%에서 1990년 91.2%로 매우 미미한 감소만을 기록하였다. <표 2-12>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29세 미만의 집단에서, 농촌에서는 55세 이상의 층에서 여성 유배우자의 비율은 급속히 줄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위에서 살펴본 여성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의 변화와 매우 큰 상관성을 보인다. 즉 여성가구주 가운데 분포가 보다 집중되는 연령에서 여성 가구주의 유배우비율은 더 떨어진다. 이상의 관찰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이 가구주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강력한 제도적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가령 집을 떠난 젊은 미혼 여성이나 남편을 사별한 노인 여성의 경우에 주로 여성이 가구주가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올수록 강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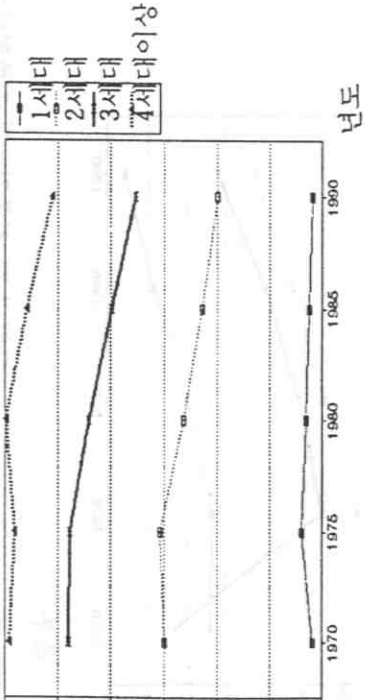
<표 2-12> 선택된 연령집단에서의 여성 가구주 중  
유배우자의 비율, 1975-90

(단위 : %)

연령	1975	1980	1985	1990
전 국				
14-24세	10.08	6.22	3.56	2.14
25-29세	48.82	43.57	31.80	19.62
55-59세	13.90	12.94	17.07	12.72
60세 이상	9.36	8.24	11.08	6.29
전 연령	23.62	22.25	22.72	17.67
시 부				
14-24세	8.45	5.25	3.29	2.06
25-29세	46.03	40.61	29.87	18.49
55-59세	15.74	14.62	19.01	15.23
60세 이상	11.05	9.90	13.11	7.90
전 연령	24.41	24.47	24.72	20.27
읍 부				
14-24세	17.02	8.51	4.35	2.59
25-29세	55.90	49.97	41.01	29.80
55-59세	12.76	11.67	16.50	10.08
60세 이상	8.65	7.50	10.46	4.83
전 연령	25.01	20.66	21.19	13.88
면 부				
14-24세	19.92	15.82	7.85	3.54
25-29세	58.28	60.05	47.72	32.61
55-59세	11.60	10.89	13.37	7.89
60세 이상	7.73	6.76	8.42	4.36
전 연령	21.54	17.77	16.68	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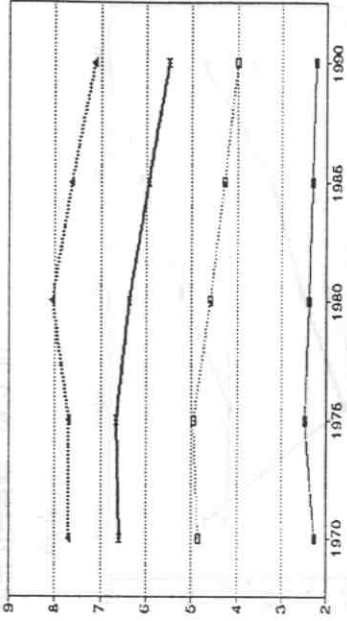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전국편.

위의 가구주의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우리는 여성 가구주 가구는 높은 비율이 소위 불안정 가구나 가족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의 타당성은 가구주의 성별 평균 가구원수의 차이에서도 확인된다. 남성 가구주와 여성 가구주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975년에는 약 2명의 차이를 나타냈다. 1990년에는 그 사이 출산력 저하의 효과로 간격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1.4명의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사이의 거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전체적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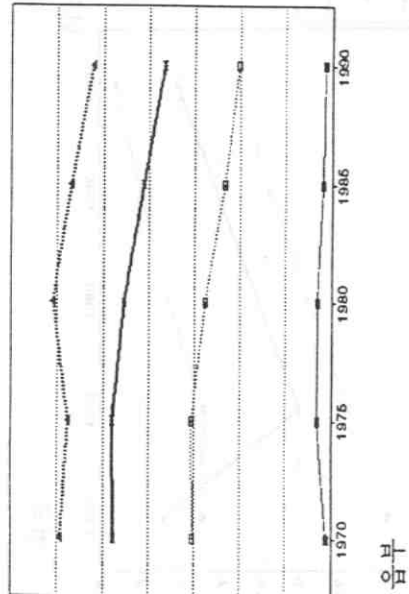


전국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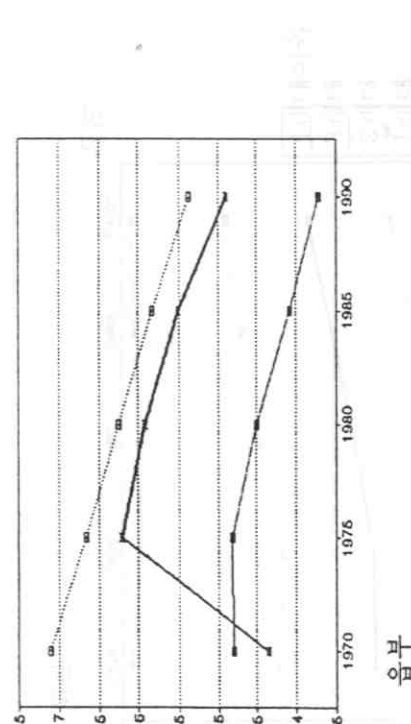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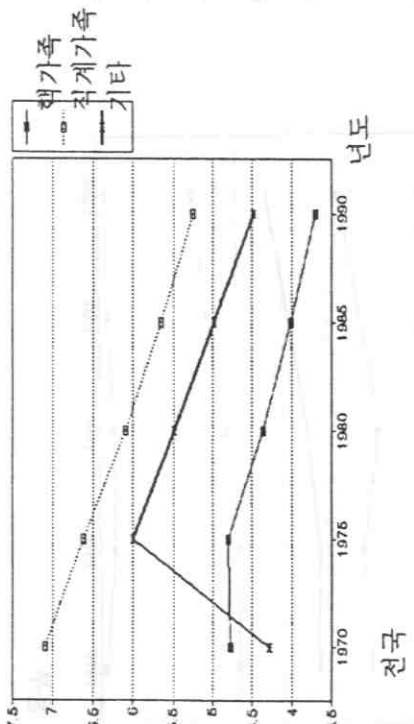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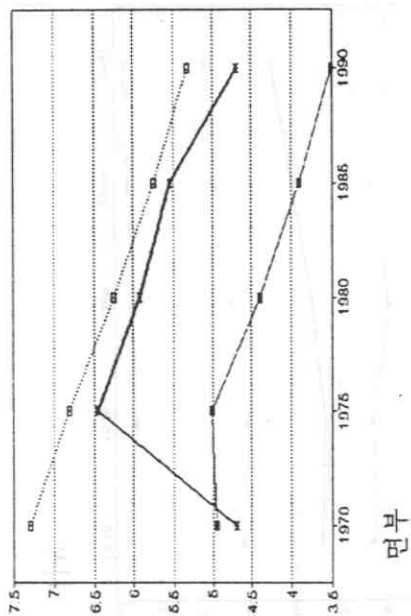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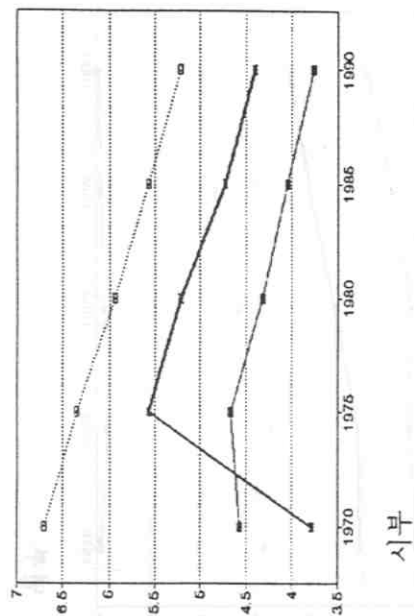
시부



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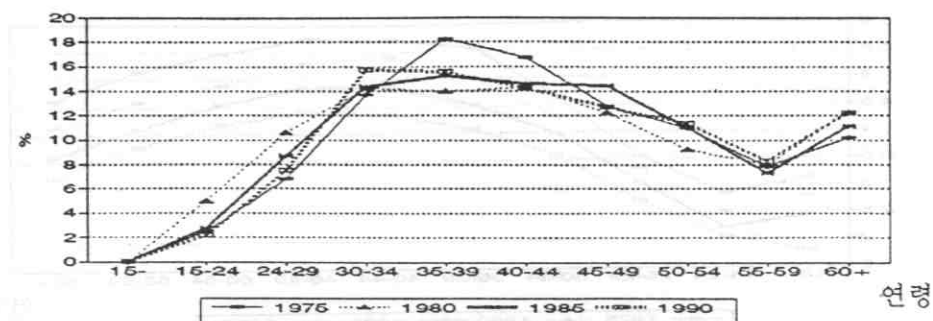
면부

<그림 2-1> 친족기구의 세대별 평균가구원수, 197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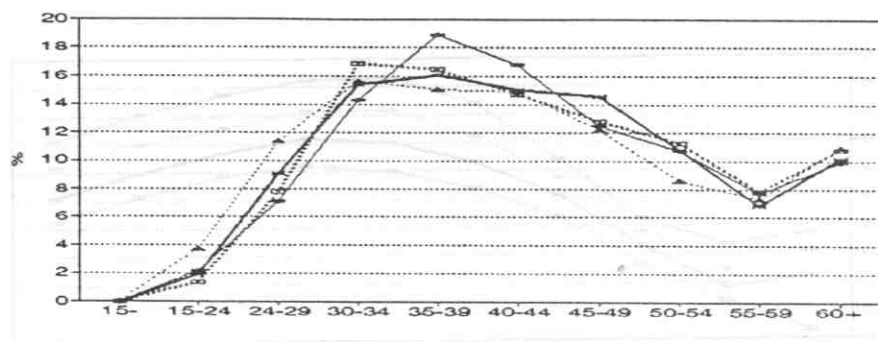


<그림 2-2> 친족가족의 가족형태별 평균가구원수, 197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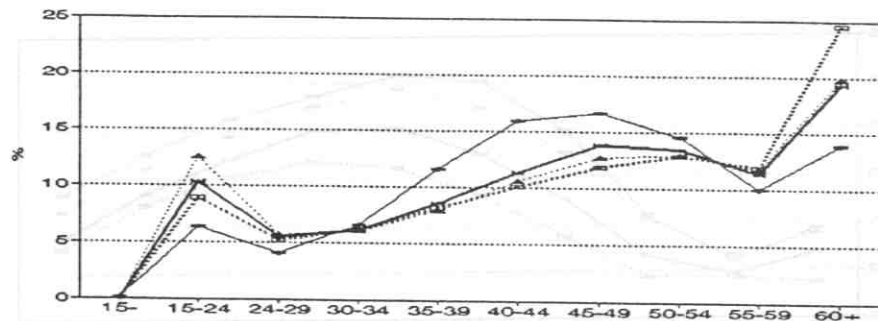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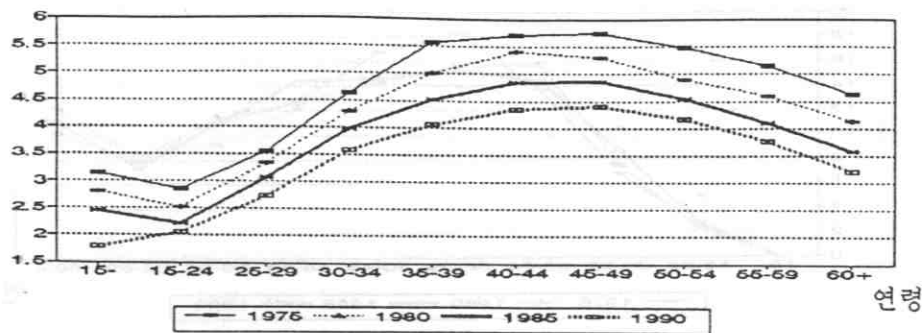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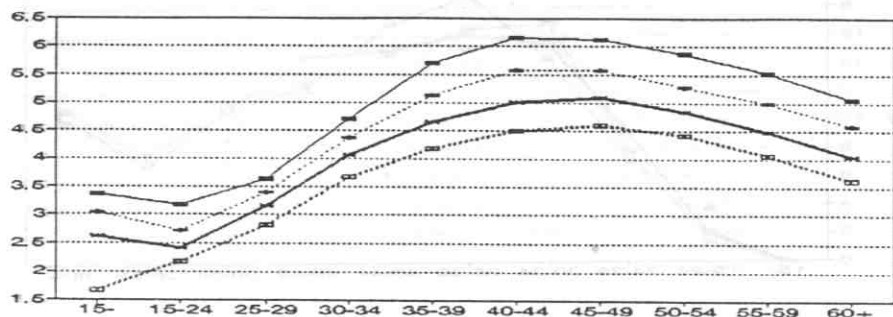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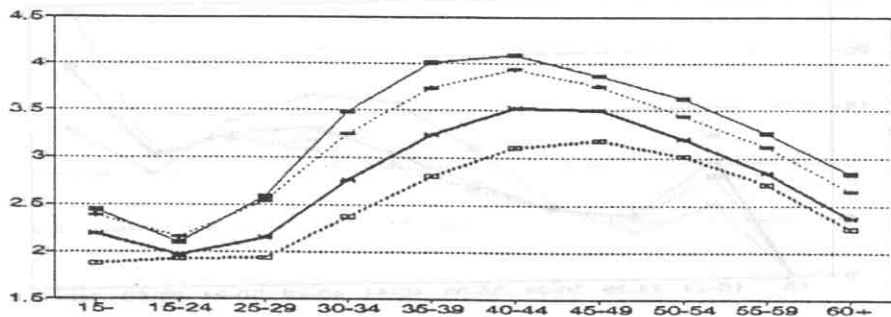
〈그림 2-3〉 일반가구 가구주의 연령분포(전국)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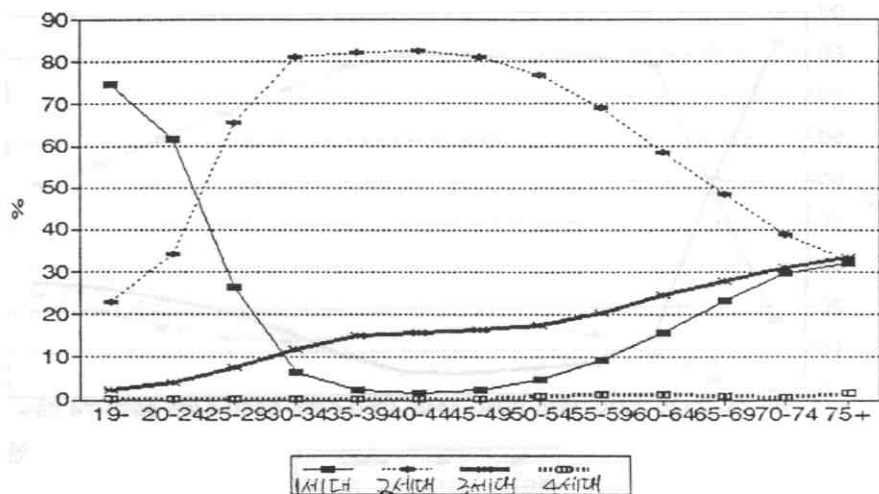
남성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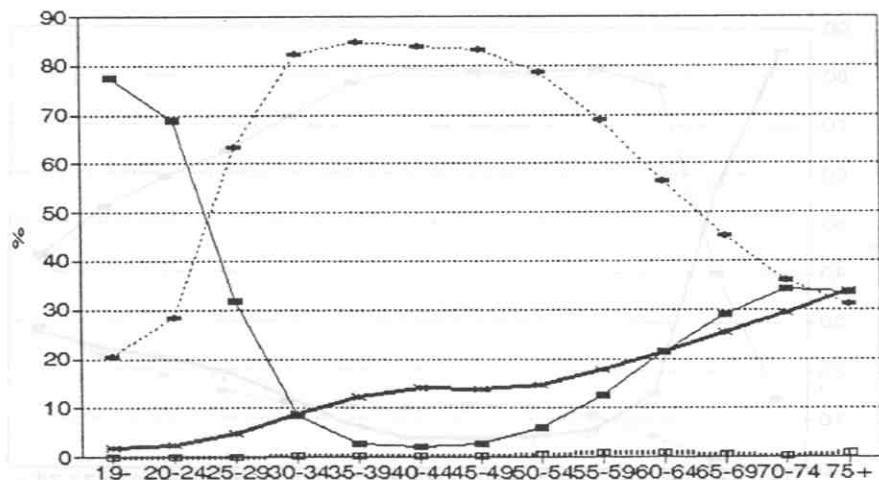
〈그림 2-4〉 일반가구 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별 평균가구원수, 1975-90

198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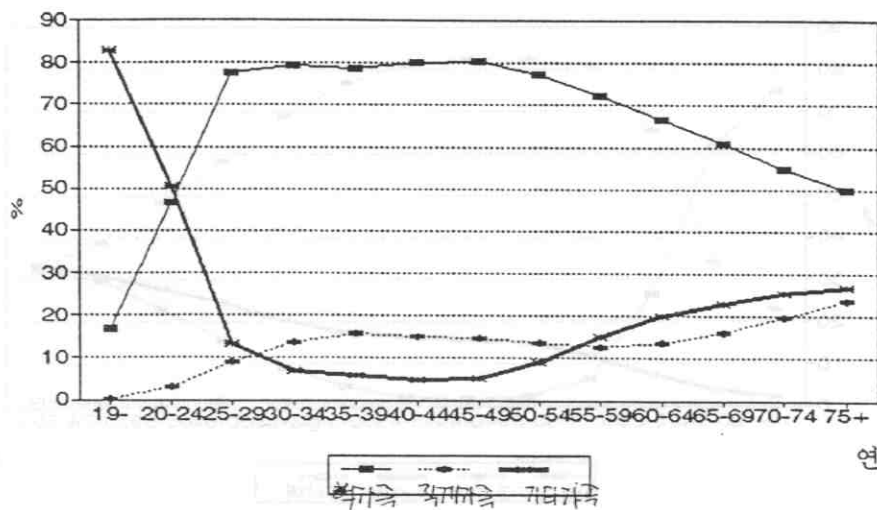
연령

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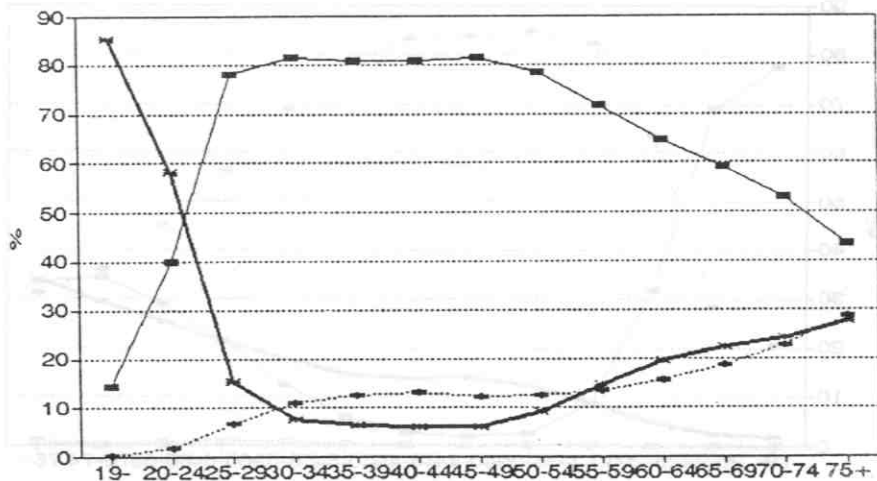


〈그림 2-5〉 친족가구 가구주의 연령별 세대구성(전국)

1985년



1990년



〈그림 2-6〉 친족가구 가구주의 연령별 가족형태구성(전국)

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분포의 차이에 일부 기인한다. 그러나 <그림2-4>와 <표 부-1>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주의 성에 따른 평균 가구원수의 차이는, 1990년의 29세 이하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에서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로 관찰된다. 그리고 그 차이는 여성의 재생산 초기의 연령에서는 작고 후기 또는 이후 연령에서는 높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가구주의 연령별 평균가구원수는 자녀출생의 시작연령인 24세 이하에서 가장 낮고 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재생산 마감연령인 40-49세에 최고 수준에 달한 후 자녀가 결혼하여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가족규모 또는 가구규모는 줄어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가구규모의 도시-농촌간 차이는 1970년대에 확대되다가 그 이후 줄어들어 1990년에는 거의 무의미해지고 있다. 가구주의 연령을 통제할 때, 이러한 경향은 발견되지 않는다. 1975년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시부, 읍부, 면부사이의 지역별 차이는 44세까지 일관되게 관찰된다. 즉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작은 규모를 보인다. 그러나 45세부터는 이들 지역간에 거의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44세까지의 추세는 1990년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45세부터의 경향은 바뀌어 가구주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농촌지역의 가구규모가 도시지역보다 오히려 훨씬 더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차이도 최근에 올수록 더 커진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가구주 비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최근에 올수록 농촌에서 더 빨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구주의 연령은 개별가구의 크기뿐만 아니라 개별가족의 구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젊은 연령층이 가구주일 때, 또는 가족 생활주기의 초기에 있는 경우와 나이든 연령층이나 가족 생활주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가구나 가족의 구성과 형태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센서스 보고서에 이와 관련된 논의를 가능케 하는 자료가 실린 것은 1985년과 1990년의 것들 뿐이다.

먼저 가족의 세대구성을 살펴보자. 연령별 1세대 가족의 비율과 기타 가족의 비율은, 1985년 및 1990년 센서스 모두에서, 가구주의 나이가 20세 미만인 경우에 가장 높다. 전국적으로 이 연령층에 속한 가구주가 1세대 가족을 이루는 비율은 70%가 넘으며, 기타가족을 이루는 경우는 80%를 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2세대 가족과 핵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연령층 가구주의 친족가구원이 주로 미혼 형제이라는 것을 뜻한다. 각각의 가구주 연령집단에서 1세대 및 기타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히 떨어져 30-34세에 이르면 10%이하에 달한다. 그리고 40-44세에서 최하의 수준을 기록한 뒤 다시 비교적 빠른 비율성장을 나타낸다. 한편 2세대 가족과 핵가족은 25-29세 집단에서부터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2세대 가족은 30-54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핵가족은 25세에서 54세까지 80% 정도의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 다음 2세대 가족과 핵가족의 지배현상은 계속 줄어든다. 즉 각각의 가구주 연령집단 내에서의 1세대 가족과 2세대 가족, 그리고 핵가족과 기타가족은 서로 반대의 추세를 보인다. 한편 3세대 가족은 가구주의 연령이 상승하는데 따라 계속 비율이 올라가 75세 이상 가구주 연령집단에 이르면 2세대 가족 비율과 거의 비슷해 진다. 직계가족의 비율은 30-35세까지 올라간 후 그 다음 35-59세 기간에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는 곡선을 그린다. 한마디로 가구주의 연령별 가족 구성은, 세대구성이나 가족형태구성에 있어 마찬가지로, 50세 중반을 넘어가면서 수렴현상이 발견된다(<그림 2-5>와 <그림 2-6> 참조).

이러한 가구주의 연령집단별 친족가구 구성의 유형이 모든 지역에서 같지는 않다. 도시지역에서는 변화의 곡선이 더욱 뚜렷하고 50대 이후의 각종 가족구성 요소들의 수렴현상도 보다 명백하다. 반면 농촌에서는 19세 미만에서 1세대 기타가족의 지배가 뚜렷하지 못할 뿐 아니라 25세 미만 집

단에서의 유형이 1985-90년 사이에 상당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3세대 가족과 직계가족 비율이 모든 연령에서 도시보다 높고, 또 35세에서 44세에 이르는 집단에서 봉우리를 형성한다(<그림 부-5.2> 참조). 다시 말해 농촌에서는, 도시에서와는 달리 이 연령층의 가구주가 부모를 모시면서 자녀를 양육할 확률이 가장 높다.

이와 같은 논의에서 우리는 1980년대에 실제 나타나고 있는 가구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 생활주기의 개략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전국적으로 볼 때, 결혼에 의한 생식가족의 형성이 30세를 전후로 해 이루어지며, 자녀 출산과 양육이 40대 말까지 지속되며 그 이후 자녀의 출가로 인한 가족의 축소와 혼인한 자녀가족의 동거로 인한 복합 가족생활로의 전환의 두가지 과정이 관찰된다. 또한 가족주기의 형태가 도시와 농촌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극히 피상적인 관찰을 통해서도 우리는 센서스의 가구 및 가족자료가 가족 생활주기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Ⅲ. 1990년의 가구구성 및 가족구조의 특성과 인구학적 차별성

#### 1. 가구구성과 가족구조

##### 가. 가구구성과 가구규모

1960년 이후 우리 사회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해 왔으며, 특히 여성의 노동력 참여의 증가, 출산력, 결혼율의 변화, 교육 등에 있어서의 변화는 지대하다. 여러 산업사회에서 그러하듯, 한국도 사회변동과 인구학적 변천의 결과로서 가구구성 및 가족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변화의 양상은 서구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1960-1990년 기간에 가구수의 증가가 2.6배나 되었고, 이러한 가구수의 증가를 기간별로 나누어 같은 기간동안의 인구증가와 비교해 보면, 1960-1966년 기간에는 가구수의 증가가 16.05%이었고, 같은 기간의 인구수의 증가는 16.22%로 이 기간사이의 가구증가와 인구증가의 수준은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1966-1970년 기간에는 가구수의 증가가 14.5%인데 비해 인구의 증가는 7.8%에 불과하였다. 즉 1966년 이후 가구증가와 인구증가의 커다란 불일치 현상이 나타난다.<sup>11)</sup> 그리고 가구분화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의 급격한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이동이 가구분화의 주 원인이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인구증가율을 훨씬 앞지르는 빠른 증가율의

11) 같은 기간의 인구증가와 가구증가 수준의 불일치를 항상 가구의 분화나 통합의 지표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인구증가가 주로 인구가동에 의해 발생했을 때에는 그러한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연증가가 인구증가의 주된 요소일 경우에는 인구증가가 가구수 증가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약 1세대의 기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1955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동일 시점의 인구증가와 가구증가를 가지고 가구분화 여부를 논하기는 어렵다.



가구수 증가는 평균가구원수의 감소를 뜻한다. 또한 소가족화와 더불어 핵가족비율의 증가, 1인 가구, 노인가구 등의 증가가 가구분화현상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이미 논의된 바이다.

1960년 이후 가구와 가족구성의 추세에 관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이미 1990년 센서스에 나타난 가구 및 가족구성의 특성에 관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하였다. 여기서 이러한 논의를 반복할 필요는 없으나 1990년 센서스 2% 표본자료를 이용한 심층분석을 시도함에 있어, 이와 연관된 1990년 센서스 결과의 개괄적인 소개는 논의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1990년 센서스에 나타나는 가구 및 가족특성을 다시 간단히 요약한다.

이미 앞 장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지난 30여년 동안에 친족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크지는 않지만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이것은 결국 점진적인 가족해체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제발전, 도시화, 인구변천의 영향이 가족생활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친족가구 인구비율의 감소는 다른 말로는 1인가구, 비친족가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1960-1990년 사이에 10배가 넘는 1인가구 인구의 증가<sup>12)</sup>는 친족가구 인구비율의 감소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농촌인구의 이촌향도현상으로 인하여 젊은 도시 전입인구의 일시적인 1인가구 형성과 농촌의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 증가가 1인가구의 증가를 초래하였고 앞으로도 노인 1인가구의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족가구 인구비율의 감소와 함께 나타나는 특징적인 변화는 친족가구 중 핵가족비율의 점진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일반가구 중 순수핵가족, 즉 「부부」가족, 「부부+미혼자녀」가족 그리고 「편부모+미혼자녀」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68.1%이었다. 친족가구

12) 1960년 100,210이던 1인가구는 1990년에 1,021,481로 늘어났다.

중 핵가족비율의 증가는 약 60%가량이 부부가족으로 대표되어지는 1세대 가족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미 앞 장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족형성규범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도시화와 이촌향도 성향으로 인한 농촌 노인 부부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설명될 수 있다.

〈표 3-1〉 일반가구의 지역별 가구형태분포(1990년)

(단위 : %)

가구형태	전국	시부	군부
핵가족/ 부부	8.30	6.65	13.65
부부+미혼자녀	51.92	55.08	42.67
편부모+미혼자녀	7.83	7.96	7.45
기타친족가족	21.49	20.16	24.86
1인 가구	9.00	8.55	10.30
기타비친족가구	1.46	1.60	1.07

주 : 가구유형중 기타친족가족은 핵가족이외의 기타 친족가구 유형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지역별로는 일반가구 중 순수핵가족의 비율이 도시가 69.7%, 농촌이 63.8%로 도시가 농촌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3-1).<sup>13)</sup> 도시와 농촌간의 핵가족유형의 차이를 보면 부부와 미혼자녀만이 같이 사는 가구의 비율이 도시가 55.1%, 농촌이 42.7%로 도시가 훨씬 높은 반면에, 부부만이 사는 가구의 경우는 농촌이 13.7%로 6.7%인 도시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도·농간의 차이는 농촌의 경우 미혼의 젊은 연령층의 극심한 이농현상으로 인한 중년층이상의 부부가구의 증가에 기인하

13) 친족가구중 핵가족비율은 전국 76.0%, 도시가 77.6%, 농촌이 72.0%로 나타난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핵가족 중 「부부」가족 비율의 변화는 농촌에서 훨씬 극심했으며, 이것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아직도 농촌에는 핵가족이외의 친족가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도시보다 농촌에서 가족구범의 변화가 컸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인구학적, 사회적 변화의 필연적 결과로서 농촌 가족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 친족가구의 지역별 세대구성 분포(1990년)

(단위 : %)

세대구성	전국	시부	군부
1세대	12.00	10.69	15.86
2세대	74.06	77.28	64.49
3세대 이상	13.94	12.03	19.64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친족가구의 세대구성율을 보면, 1세대 가족이 친족가구의 12.0%를 차지하고 있고, 2세대가 74.1%, 3세대 이상의 가족이 13.9%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 1990년 현재 가족 가운데 가장 지배적인 세대구성은 부부와 미혼자녀, 편부모와 미혼자녀, 그리고 부부와 양친 또는 편친으로 구성된 2세대 가족이다. 그리고 소위 확대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3세대와 부부와 미혼 또는 기혼형제만으로 구성된 1세대 가족이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1990년 현재 가족분포는 2세대 핵가족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총가구원수 분포는 <표 3-3>에 제시되어 있다. 1990년 자료에 의하면

1인가구 비율이 9.5%, 2인 가구가 14.4%, 3-4인 가구가 48.6%, 5인 이상의 가구가 27.6%로, 일반가구중에는 3-4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가장 많다. 이것은 가구형태중 부부와 자녀중심의 가족형태가 지배적인 사실과 과거 출산력의 추세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표 3-3> 일반가구의 지역별<sup>14)</sup> 총친족 가구원수 및 총가구원수 분포(1990년)  
(단위 : %)

가구원수	총친족가구원수			총가구원수			두 비율간의 불일치		
	전국	시부	군부	전국	시부	군부	전국	시부	군부
1명	(10.9	10.6	11.8)	9.5	9.1	10.8			
2명	13.9	12.2	18.8	14.4	12.8	19.0	-0.5	-0.6	-0.2
3명	19.3	19.7	18.0	19.4	19.8	18.1	-0.1	-0.1	-0.1
4명	29.2	31.6	22.5	29.2	31.5	22.5	0.0	0.1	0.0
5명	17.5	17.8	16.6	18.0	18.3	17.0	-0.5	-0.5	-0.4
6명+	9.2	8.2	12.3	9.6	8.6	12.6	-0.4	-0.4	-0.3

- 주 : 1) 1총친족가구원수는 각 가구내에서 가구주와 친족관계가 없는 가구원들의 수를 뺀 것임.  
2) 친족가구는 친족관계에 있는 2명 이상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이므로 총친족가구원수가 1명인 가구는 총친족가구원수 분포의 논의에서 제외된다.  
3) ( )안의 것은 백분율 구성비를 제시한 것임.  
4) 두 비율간의 불일치 수치는 각 총친족 가구원수별 비율에서 총가구원수별 비율을 뺀 것임.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총친족 가구원수의 분포로 본 가구규모의 특징에 있어서도, 총가구원수

14) 1990년 2%표본자료의 분석에서는 지역을 시부와 군부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시부는 도시를, 군부는 농촌을 의미한다. 센서스 보고서를 이용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읍부와 면부를 구분할 경우 읍부의 표본수가 적어 표집오차가 커지므로 읍부와 면부를 합쳐 군부로 분류했다.

에 따른 분포와 약간의 불일치는 있지만, 가구내에 가구주를 포함하여 가구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가구원수가 2명인 가구의 비율이 13.9%, 3-4명인 가구의 비율이 48.5%, 5명 이상인 비율이 26.7%로 나타난다<표 3-3>.

총친족 가구원수와 총가구원수에 따른 일반가구의 분포 차이를 보면, 3-4인 가구의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핵가족형태 가구의 경우 비친족인이 포함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 나. 가구주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가구형태

### (1)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주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1990년 가구주의 연령분포를 보면, 남성가구주의 80%정도가 25-54세 연령층에 속해 있으며, 지역별로는 도시와 농촌 각기 남성가구주의 82.8%, 64.5%가 이 연령층에 속해 있다<표 3-4>. 남성가구주의 연령분포에 있어서의 도·농간의 주된 차이는 농촌지역의 55세 이상 노년층의 남성가구주의 비율이 도시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는데 있다. 반면에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는 연령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편이나, 특히 4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다소 높은 비율을 발견할 수 있다<표 3-4>. 그러나 여성가구주 연령분포의 지역별 차이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에서는 여성가구주의 연령분포가 비교적 고른 반면 대부분의 농촌 여성가구주는 45세 이상의 중·노년층(82.3%)에 속하고 있다.

가구주의 지역간 연령분포의 차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시에 비해서 훨씬 높은 농촌지역 가구주의 연령은 두 지역간의 연령별 인구구조의 차이

뿐만 아니라, 두 지역간의 가족구조의 차이를 반영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젊은 연령층의 이농이 지속되고 이로 인하여 농촌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많아지고, 또한 농촌에 남은 많은 노년층의 인구가 가구를 이끄는 가구주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결과적으로 노인부부 또는 노인 혼자 남게되는 가구가 증가하게 되어 자연적으로 농촌가구주의 평균연령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표 3-4> 가구주의 지역 및 성별 연령 분포(1990년)

(단위 : %)

연령	전국		시부		군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 24세	2.5	11.8	2.9	14.9	1.3	3.9
25 - 34세	28.5	12.9	32.1	15.9	18.0	4.9
35 - 44세	28.4	15.8	30.6	18.4	22.0	8.8
45 - 54세	21.2	20.2	20.1	20.4	24.5	19.6
55 - 64세	12.5	21.7	9.9	18.2	20.3	30.9
65+ 세	6.8	17.6	4.4	12.2	14.0	31.8

자료: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가구주의 혼인상태 분포를 보면, 남성가구주의 경우는 당연히 거의 대부분(도시는 90.8%, 농촌은 92.9%)이 결혼한 상태인 반면, 여성 가구주의 경우는 60%가까이가 남편과 사별한 부인들이고, 그 다음으로는 20%정도가 미혼여성들이 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5>. 우리 사회에서는 규범적으로 부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경우, 남성이 가구를 대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아직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이러한 전통적 규범이 아직 지배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특히 친족가구만을 고려할 때 남성가구주의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그러나 우

리 사회에서는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여성가구주 비율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사이에 의미있는 차이<sup>15)</sup>가 발견된다는 점은 현재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5> 가구주의 지역 및 성별 혼인상태 분포(1990년)

(단위 : %)

혼인상태	전국		시부		군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미혼	6.1	20.5	7.0	26.0	3.4	6.2
결혼	91.3	17.4	90.8	20.0	92.9	10.6
사별	1.8	56.2	1.4	46.7	2.8	80.9
이혼	0.8	5.9	0.8	7.3	0.8	2.3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1990년에 들어와서 도시와 농촌간에 뒤바뀐 여성가구주 가구의 추세, 다시 말해서 최근 들어 도시보다 높은 농촌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인구학적, 사회적 변화에 있어서의 지역간 차이에 의해 설명되어진다. 우선적으로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지속되어 온 젊은 층의 이혼향도현상으로 농촌에 홀로 남은 여성들, 특히 남편과 사별한 여성들의 1인가구가 증가해 온 점을 들 수 있다. 농촌 여성가구주의 82.3%가 45세 이상의 연령층에 속하고 4/5 정도가 남편과 사별한 여성들인 점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45세 이상의 여성가구주의 경우 도시에서는 반수 정도(46%)가 홀로 되어 미혼자녀와 함께 살고있는 반면에 농촌에서는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15) 총 가구중 여성 가구주 가구비율의 변화를 보면 1966년에는 전국이 12.02%, 지역별로는 도시가 15.44%, 농촌이(군부) 10.16%였고, 1990년에는 전국이 15.74%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도시가 15.32%, 농촌중 읍부가 16.16%, 면부가 17.31%로 지난 25년간 여성 가구주 가구의 증가는 대부분이 농촌지역 여성 가구주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율이 28.3%에 불과하고 반수 정도(49.1%)가 홀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3-6>. 또한 45세 이상의 도시 여성 가구주중 혼자 사는 비율이 낮은 것은 도시 여성들의 재혼율 상승에 어느 정도 힘입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6> 여성가구주의 연령별 가구형태분포(1990년)  
(단위 : %)

가구주연령/가구형태	전국	시부	군부
30세미만/ 1세대 부부가족	0.5	0.6	0.2
기타	27.9	29.3	14.6
2세대 부부+미혼자녀가족	0.7	0.6	1.4
편부모+미혼자녀가족	6.1	5.7	10.4
기타	2.1	2.1	2.4
3세대 부부+자녀+부(모)	0.1	0.1	0.0
3세대 이상 기타	0.4	0.4	0.4
1인 가구	48.2	48.2	47.8
기타비친족가구	13.9	13.0	21.8
30-44세/ 1세대 부부가족	0.3	0.3	0.2
기타	2.5	2.8	0.6
2세대 부부+미혼자녀가족	1.6	1.7	1.1
편부모+미혼자녀가족	57.6	56.5	64.6
기타	4.8	5.0	3.7
3세대 부부+자녀+부(모)	0.4	0.3	0.8
3세대 이상 기타	5.4	4.8	8.8
1인 가구	24.7	26.2	15.5
기타비친족가구	2.6	2.2	4.8
45세 이상/ 1세대 부부가족	0.2	0.2	0.2
기타	0.4	0.4	0.3
2세대 부부+미혼자녀가족	0.4	0.4	0.0
편부모+미혼자녀가족	39.2	46.0	28.3
기타	10.4	11.0	9.3
3세대 부부+자녀+부(모)	4.7	5.3	3.6
3세대 이상 기타	7.9	8.3	7.4
1인 가구	35.2	26.5	49.1
기타비친족가구	1.7	1.7	1.7

주 : 각 연령집단별 표본 여성가구주 가구수는 다음과 같다.

30세 미만: 전국(6,685) 시부(6,060) 군부(625)

30-44세 : 전국(7,942) 시부(6,800) 군부(1,142)

45세 이상: 전국(21,534) 시부(13,526) 군부(8,278)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이것은 30세 미만의 여성 가구주 중 「편부모+미혼자녀」가족에 사는 비율의 지역간 차이에서도 발견되어진다. 젊은 여성가구주 중 남편없이 혼자 미혼자녀와 사는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도시 젊은 여성들의 재혼성향이 농촌보다 높고 재혼율도 상승하고 있음을 뜻한다. 30-44세 연령층의 여성가구주 가구형태의 지역별 차이를 보면 45세 이상의 여성가구주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도시나 농촌 모두 이 연령층의 여성가구주 반수 이상이(도시는 56.5%, 농촌은 64.6%) 홀로 되어 미혼자녀와 같이 살고 있으며, 이 비율은 농촌이 조금 높게 나타난다. 1인가구의 비율에 있어서는 도시가 26.2%로 농촌의 15.5%보다 높은데 이것은 평균결혼연령이 도시가 높고 따라서 30세가 넘는 독신의 여성들이 더 많으며 이들이 따로 독립하여 홀로 사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세 미만의 젊은 여성가구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미혼이다. 여기서 미혼여성이 가구주가 되는 경우는 주로 혼자 사는 가구이거나 자매, 형제만이 사는 가구로 생각할 수 있다. 도시의 젊은 여성가구주도 3/4 이상이 1인가구의 가구주이거나 1세대 기타가구의 가구주이다. 그런데 도시 여성가구주 중 혼자 사는 사람의 비율은 농촌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1세대 기타가구를 구성하는 비율은 거의 2배에 가깝다. 사실 농촌지역의 30세 미만 연령층의 여성가구주의 수는 도시에 비해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논의의 초점은 결국 도시의 젊은 여성가구주에 둘 수 밖에 없다. 도시에서 여성들이 결혼 전 독립해서 가구를 형성하고 가구주가 되는 것은 결혼연령의 상승추세, 여성노동력 참여의 증가와 함께 미혼여성들이 부모와 함께 살기 보다는 따로 독립해 살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성가구주의 상당부분이 취업을 하기 위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올라와 일시적으로 홀로 지내거나 자매나 친구와 같이 사는 미혼여성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혼여성들의 독립적인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또한 도시에서 여성가구주 비율이 오히려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 (2) 가구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가구형태

가구 혹은 가족형태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가구주의 연령은 가구의 크기나 가족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가족의 생활주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미 앞 장에서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가구구성의 변화를 통하여 가족 생활주기의 개략적인 양상을 논의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1990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특성 중 가장 대표적인,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구형태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구주의 연령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즉 가족 생활주기별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구형태의 차이의 고찰이 요구된다.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1980년대 이후 가구를 중심으로 한 가족 생활주기는 30세 전후의 연령층에서 결혼에 의한 생식가족이 형성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40대 말까지 지속되며, 그 후에는 자녀의 결혼으로 인하여 가족이 축소되거나 혼인한 자녀가족과 동거하게 되는 복합가족생활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최근의 가족생활 주기양상에 따라 가구주의 연령을 20-34세, 35-54세, 55세 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논의를 펴 나가고자 한다. 또한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교육기회의 증대와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교육수준에 있어서의 성별차이는 크게 줄어든 반면에, 연령별 교육수준의 차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교육수준에 따른 가구형태를 논하는데 있어서 연령의 통제는 불가피하다.

## (가) 남성가구주 가구

우선 가족 생활주기에서 부모중심의 가족에서 결혼을 통하여 자신의 가족을 새롭게 형성하는 연령으로 볼 수 있는 20대와 30대 초반 연령층의 남성가구주는 전국적으로 70%가까이가 결혼을 하고 부부끼리만 살거나 어린 자녀와 함께 핵가족을 이루고 살고있다<표 3-7>. 결혼을 하고 핵가족에 사는 남성가구주는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가구주의 65.9%, 고등학교인 경우의 70.7%, 전문대이상인 사람의 69.7%로 별로 의미있는 차이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비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라 결혼연령의 차이가 있지만 30대 초반까지는 대부분의 미혼자들이 결혼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핵가족안에서 어떤 형태의 가구를 이루는가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없이 부부만 사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가구주가 전문대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부부」가족의 비율은 14.6%인 반면,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에는 그 비율이 7.7%에 불과하다. 이것은 물론 남성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배우자인 부인의 교육수준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반적으로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균결혼연령이 높으며, 또한 이들 사이에서 결혼 후에 첫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된다. 20-34세 연령층에서의 1인가구의 비율은 교육수준별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20-34세 연령층의 남성가구주의 9.5%가량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의 연령이 상승하면 가구형태의 분포는 달라진다. 가구주의 연령이 35세가 넘어선 경우는 가족생활 주기상 대부분 결혼을 하여 가족을

〈표 3-7〉 가구주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가구형태분포 (1990년)(단위 : %)

연령/교육수준/가구형태	전국		시부		군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b>&lt;20-34세&gt;</b>						
중학교 이하/ 1세대 부부	7.7	0.7	8.6	0.7	5.4	0.5
기타	2.7	10.2	3.3	11.7	1.3	1.0
2세대 부부+미혼자녀	58.2	0.8	59.2	0.8	55.8	1.0
편부모+미혼자녀	4.4	36.3	3.5	33.2	6.7	54.9
기타	5.9	3.6	5.9	3.7	5.7	2.9
3세대 부부+자녀+부(모)	6.4	0.5	3.9	0.5	12.6	0.5
3세대 이상 기타	3.4	3.1	2.4	2.5	5.9	6.8
1인가구	9.5	37.4	11.2	40.0	5.2	21.4
기타 비친족가구	1.8	7.4	2.0	6.8	1.4	11.2
<b>고등학교/부</b>						
1세대 부부	12.6	0.4	13.1	0.4	9.7	0.0
기타	3.7	23.9	4.0	24.4	1.7	16.9
2세대 부부+미혼자녀	58.1	1.3	57.5	1.2	61.5	2.6
편부모+미혼자녀	2.3	14.0	2.0	13.6	4.0	19.8
기타	5.7	2.8	5.9	2.8	4.5	3.2
3세대 부부+자녀+부(모)	4.1	0.2	3.6	0.2	7.1	0.3
3세대 이상 기타	2.1	1.0	1.8	0.9	3.7	2.3
1인가구	9.4	45.6	10.0	46.2	6.0	36.7
기타 비친족가구	2.0	10.9	2.1	10.4	1.8	18.2
<b>전문대 이상/</b>						
1세대 부부	14.6	0.7	14.8	0.7	12.1	0.0
기타	4.6	26.2	4.9	28.8	1.6	3.6
2세대 부부+미혼자녀	55.1	1.1	54.3	1.1	62.6	1.0
편부모+미혼자녀	1.8	10.0	1.8	9.9	1.9	11.7
기타	6.1	2.7	6.3	2.7	3.4	2.5
3세대 부부+자녀+부(모)	3.9	0.1	3.8	0.0	4.2	0.5
3세대 이상 기타	1.9	1.4	1.8	1.4	2.1	2.0
1인가구	9.5	49.3	9.5	47.3	9.6	67.0
기타 비친족가구	2.5	8.4	2.5	8.1	2.4	11.7
<b>&lt;35-54세&gt;</b>						
중학교 이하/ 1세대 부부	3.9	0.1	2.7	0.2	6.0	0.1
기타	0.2	0.5	0.2	0.6	0.2	0.4
2세대 부부+미혼자녀	71.3	0.8	76.1	0.9	63.6	0.5
편부모+미혼자녀	2.8	68.0	3.1	69.0	2.2	64.7
기타	4.2	4.9	4.3	5.0	4.2	4.8
3세대 부부+자녀+부(모)	12.3	0.6	8.7	0.6	18.1	0.8
3세대 이상 기타	3.1	7.3	2.7	6.2	3.8	10.8
1인가구	1.9	16.3	2.0	16.4	1.6	16.0
기타 비친족가구	0.3	1.4	0.2	1.3	0.3	1.8
<b>고등학교/부</b>						
1세대 부부	2.7	0.4	2.2	0.4	5.3	0.6
기타	0.3	1.5	0.3	1.5	0.7	1.2
2세대 부부+미혼자녀	75.8	1.8	77.4	1.8	66.9	1.2
편부모+미혼자녀	1.6	60.2	1.6	60.7	1.4	53.1
기타	4.9	6.1	4.9	6.1	4.8	7.4

(계속)

〈표 3-7〉 계속

연령/교육수준/가구형태	전국		시부		군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3세대 부부+자녀+부(모)	10.3	0.6	9.7	0.6	14.1	0.6
3세대 이상 기타	2.4	5.7	2.2	5.8	3.5	5.6
1인가구	1.7	21.0	1.5	21.0	2.7	21.0
기타 비친족가구	0.2	2.6	0.2	2.2	0.7	9.3
전문대 이상/ 1세대 부부	2.3	0.3	2.1	0.3	4.8	0.0
기타	0.3	2.7	0.2	2.3	0.8	9.8
2세대 부부+미혼자녀	76.1	2.6	76.9	2.7	64.5	0.0
편부모+미혼자녀	1.0	55.8	1.0	57.5	1.2	26.8
기타	4.5	6.1	4.5	6.4	4.8	0.0
3세대 부부+자녀+부(모)	11.4	0.6	11.4	0.7	11.5	0.0
3세대 이상 기타	2.1	5.6	2.1	5.3	2.2	9.8
1인가구	1.9	22.7	1.5	21.6	7.6	41.5
기타 비친족가구	0.4	3.6	0.2	3.1	2.5	12.2
<55세 이상> 중학교 이하/ 1세대 부부	24.2	0.3	17.6	0.3	31.9	0.3
기타	0.7	0.4	0.7	0.4	0.8	0.3
2세대 부부+미혼자녀	40.0	0.2	44.4	0.3	35.0	0.0
편부모+미혼자녀	2.1	34.1	2.7	36.6	1.4	28.0
기타	8.5	11.6	8.1	12.0	8.9	10.5
3세대 부부+자녀+부(모)	12.8	7.8	13.0	8.8	12.6	5.4
3세대 이상 기타	8.7	9.4	10.7	9.6	6.4	8.9
1인가구	2.7	34.0	2.7	29.8	2.7	44.2
기타 비친족가구	0.3	2.1	0.2	2.1	0.3	2.3
고등학교/ 1세대 부부	17.5	0.0	14.5	0.0	28.3	0.0
기타	0.8	0.6	0.6	0.7	1.2	0.0
2세대 부부+미혼자녀	48.5	0.2	52.6	0.2	34.1	0.0
편부모+미혼자녀	2.3	37.6	2.4	39.5	2.1	16.7
기타	8.7	9.8	8.3	10.0	10.0	7.1
3세대 부부+자녀+부(모)	11.6	6.4	11.4	5.7	12.2	14.3
3세대 이상 기타	7.7	9.5	7.9	10.0	7.1	4.8
1인가구	2.6	33.2	2.0	31.8	4.6	47.6
기타 비친족가구	0.3	2.7	0.2	2.0	0.6	9.5
전문대 이상/ 1세대 부부	20.0	1.9	18.3	1.4	32.2	6.7
기타	1.3	1.2	1.3	1.4	1.4	0.0
2세대 부부+미혼자녀	47.0	1.2	49.8	1.4	27.2	0.0
편부모+미혼자녀	1.9	22.2	2.0	23.8	1.2	6.7
기타	8.4	9.9	8.0	10.9	11.1	0.0
3세대 부부+자녀+부(모)	11.1	6.2	11.4	6.8	8.9	0.0
3세대 이상 기타	6.7	9.9	6.5	10.9	8.2	0.0
1인가구	3.0	42.0	2.3	38.1	8.0	80.0
기타 비친족가구	0.5	5.6	0.4	5.4	1.8	6.7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형성하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1인가구의 비율은 훨씬 낮아지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형태의 비율이 높아진다. 교육수준별 가구형태의 분포를 보면, 1인가구 비율은 교육수준에 따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가족구성에 있어서는,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차이를 보인다<표 3-7>. 연령이 20-34세인 가구주는 가구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부+미혼자녀」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높고 이러한 젊은 연령층에서의 교육수준별 가족구성의 차이는 교육수준별 결혼 및 출산유형의 차이로 설명된다. 그러나 가구주의 나이가 35-54세인 경우에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미혼자녀」가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에서는 71.3%, 전문대 이상인 경우는 76.1%임). 양친 혹은 편친을 모시고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를 포함하여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의 비율이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가구주가구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된다. 즉 35-54세 연령층에 있는 가구주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구성에 있어서 비핵친족인을 포함시키는 경향이 비교적 낮고 따라서 핵가족을 구성하고 사는 비율이 높다.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가구에서는 다시 「부부」가족 비율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1인가구 비율도 35-54세 연령층에서보다는 높아지지만 큰 차이는 없고 교육수준별로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연령이 55세 이상인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경우에 부부가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각기 48.5%, 47.0%)이 그보다 낮은 중학교 이하 교육수준에서의 경우(40.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부만이 사는 가족의 비율은 남편이 중학교 이하의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에서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가구주가 고등학교까지 다닌 집단에서는 17.5%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표 3-7>.

지역별로 볼 때 가구주의 교육상태에 따른 가구형태의 분포는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가구주의 연령이 20-34세인 경우 도시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가족의 비율이 높고 「부부+미혼자녀」가족의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농촌에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가족의 비율과 함께 「부부+미혼자녀」의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한편 농촌에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라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의 비율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20-34세 농촌가구주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확대가족을 형성하고 사는 비율이 훨씬 낮다(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경우 18.5%, 고등학교는 10.8%, 전문대 이상은 6.3%, <표 3-7>참조).

#### (나) 여성가구주 가구

20-34세 연령층의 여성가구주 가구형태를 보면,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결혼 전 혼자 살거나 결혼했더라도 남편과 사별 혹은 이혼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단연 1인가구와 「편부모+미혼자녀」가구의 비율이 높다. 그 중에서도 1인가구 비율이 더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1인가구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진다(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에서는 37.4%, 고등학교수준은 45.6%, 전문대 이상은 49.3%임, <표 3-7>참조). 또한 「1세대 기타」가족형태, 즉 형제나 자매가 같이 사는 가족의 비율도 여성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2-3배 가까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에서는 10.2%, 고등학교는 23.9%, 전문대 이상은 26.2%임).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여성가구주 가운데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주로 결혼을 연기하고 취업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혹은 과거에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아직은 무자녀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낮은 교육수준의 여성

에 비하여, 남편과 사별 혹은 이혼한 후 혼자 지내거나 자녀가 아닌 다른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본다. 이것은 여성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편부모+미혼자녀」비율의 차이에서도 확인된다. 교육수준이 낮은(중학교 이하) 여성가구주 가구 중 「편부모+미혼자녀」가족의 비율은 36.3%나 되는 반면에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14.0%, 전문대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여성가구주 가구는 10.0%로 중학교 이하 교육수준의 1/3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35세가 넘는 여성가구주의 가구형태의 분포는 20-34세 여성가구주 가구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이것은 여성가구주의 연령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가구형태의 차이도 20-34세 연령층에서 살펴 본 것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나 그 정도는 미미하다. 여성가구주 가구형태 분포의 교육수준별 유형은 도시와 농촌지역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 2. 가구 및 가족형태의 인구학적 차별성

과거 30여년 동안의 가구의 변화로 말미암아 최근 1990년의 가구 및 가족구성은 가구의 소규모화, 친족가구비율의 감소, 핵가족화 성향, 높은 1인가구비율 등의 가구분화현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임을 보였다. 가구 및 가족구성의 변화는 인구의 변화, 특히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우선 출산력의 저하는 가구당 자녀수의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가족의 소규모화를 촉진시키고, 사망률의 저하는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부부가구, 노인1인가구의 증가를 초래한다. 인구구조의 변화 이외에 결혼연령의 상승도 가구 및 가족구성의 변화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만약 미혼성인들이 결혼 전 혼자 사는 것이 보편적이라면 결혼연령의 상승



은 결과적으로 가구수의 증가와 가구의 소규모화를 초래하지만, 만약 결혼할 때까지 부모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보편적이라면 결혼연령의 상승은 오히려 가구수를 감소시키고 가구규모를 약간씩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결혼연령과 함께 이혼, 재혼율의 변화도 가구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가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여러 인구학적, 사회적 변화가 갖는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인구학적 특성별로 각 인구집단이 살고 있는 가구 및 가족의 형태를 살펴 본다는 것은 가구 및 가족의 구조와 생활의 좀 더 분명한 이해와 설명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가. 가구의 혼인상태별 가구형태의 특성

일단 결혼을 하면 자신의 가족을 형성한다. 이를 보통 생식가족(Family of Procreation)이라고 일컫는다. 생애 주기단계로 볼 때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중심의 가족(Family of Orientation) 안에서 살고, 결혼을 하면 (특히 장남의 경우) 부모의 집에서 자녀와 함께 동거하고, 자녀가 모두 성장한 후에는 자식의 가족과 같이 사는 것이 이상적이었다. 이러한 이상적인 가족생활에 기초한 생애주기는, 이미 앞에서 반복해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사회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웠다. 오히려 생활이 부유해지고 사망력이 떨어지면서 그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가족관념의 도입, 도시화, 인구이동 등의 영향으로 생애주기의 조건이 달라졌다. 우선 결혼하기 전에도 부모의 집에 거주하지 않는 미혼들이 증가하고 있고, 결혼 후에도 부모와 거주하지 않고 분가하여 사는 핵가족이 늘고 있으며, 노후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기능으로써 자녀의 의미가 강했던 과거와는 달리 자녀가 성장한 후 노인(들)만이 남게 되는 가

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생의 주기별 가구형태에 있어서의 변화는 곧 여러 인구학적 집단이 영위하는 가구형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 (1) 미혼인구의 가구형태

성년이 되면 누구나 결혼을 하고 자기 중심의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리고 아직도 결혼 전에는 비록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모의 가족에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1990년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국 미혼인구의 89.5%가 친족가구 또는 가족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확인시켜 준다<표 3-8>. 그러나 이러한 미혼인구의 가족중심 생활은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 볼 때 큰 차이를 보이며, 미혼인구의 연령이 상승할수록 이러한 보편성은 사라진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층 미혼들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95.7%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86.3%는 부모와 함께 산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혼 친족가구 인구비율은 점차 낮아지며 반대로 비친족가구에 사는 미혼자의 비율이 높아진다. 가족과 함께 사는 비교적 높은 연령층의 미혼인구 중에서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에, 가족내에서 자신이 가구주이거나 혹은 가구주의 자녀가 아닌 기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가령 형제 또는 친척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짐을 볼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미혼의 경우, 1인가구를 이루는 비율은 20대 중반부터 높아지기 시작해서 35세에 이르면 남성미혼이 25.9%, 여성이 37.7%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표 3-8>. 미혼인구를 연령에 따라 나누어 생각해 볼 때 젊은 연령층에 속하는 미혼자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곧 결혼을 할 인구집단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30대 중반이 넘은 높은 연령층의 미혼자들은, 특히 여성의 경우 앞으로 쉽게 결혼하기 힘든, 혹은 “영구히” 결

〈표 3-8〉 미혼인구의 가구형태 (1990년) (단위 : %)

연령/ 가구형태	전국		시부		군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친족가구	3.8	2.6	4.1	3.2	3.2	0.7
자녀	73.4	75.3	70.8	72.9	81.3	84.4
기타 친족	12.3	13.1	13.2	14.1	9.4	9.1
1인가구	5.5	4.6	6.5	5.4	2.5	1.8
기타 비친족가구	5.0	4.3	5.4	4.4	3.6	4.0
19세 미만/						
친족가구	0.6	0.5	0.6	0.5	0.5	0.3
자녀	86.3	87.7	85.6	87.0	88.3	89.5
기타 친족	8.8	8.7	9.3	9.3	7.5	7.1
1인가구	0.7	0.8	0.9	0.9	0.3	0.6
기타 비친족가구	3.5	2.3	3.6	2.2	3.3	2.5
19-22세/						
친족가구	1.8	2.7	1.9	3.2	1.4	0.6
자녀	80.2	73.9	77.7	71.4	87.5	85.2
기타 친족	10.8	14.7	11.9	15.9	7.5	9.0
1인가구	2.2	3.4	2.7	3.8	0.9	1.4
기타 비친족가구	5.0	5.4	5.8	5.7	2.8	3.8
23-26세/						
친족가구	4.8	5.5	5.3	6.3	3.0	1.5
자녀	64.9	64.0	60.9	61.4	79.1	77.6
기타 친족	15.4	17.3	16.8	18.3	10.4	11.9
1인가구	7.7	8.0	9.0	8.7	3.2	4.0
기타 비친족가구	7.1	5.2	7.8	5.3	4.4	5.0
27-34세/						
친족가구	11.0	7.1	11.2	8.1	10.3	1.5
자녀	49.8	49.5	46.0	47.9	63.4	58.4
기타 친족	17.6	18.4	18.6	18.0	14.1	20.3
1인가구	16.1	18.2	18.5	20.2	8.0	6.7
기타 비친족가구	5.4	6.9	5.8	5.8	4.3	13.1
35-54세/						
친족가구	20.0	9.3	19.3	9.8	21.5	6.7
자녀	29.8	20.3	26.9	19.8	36.5	23.6
기타 친족	18.7	21.9	18.5	22.0	19.3	21.9
1인가구	25.9	37.7	30.0	40.4	16.5	21.9
기타 비친족가구	5.6	10.7	5.3	8.1	6.1	25.8
55세 이상/						
친족가구	13.0	7.7	25.9	8.4	4.8	5.9
자녀	1.4	1.7	-	2.4	2.4	-
기타 친족	37.7	24.8	29.6	24.1	42.9	26.5
1인가구	27.5	42.7	22.2	47.0	31.0	32.4
기타 비친족가구	20.3	23.1	22.2	18.1	19.0	35.3

주 : 가구형태중 친족가구는 가구주와의 관계에 따라 분류한 것임.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혼하지 않을 인구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젊은 20대, 30대 초반의 미혼자들이 사는 가구는 그들이 결혼과 함께 새로운 인생주기에 들어서기 전의 임시적인 가구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기가 태어난 가족 안에서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반면에 결혼적령기가 지난 30대 중반 이후 연령층의 미혼의 경우는 임시의 가구이기보다는 앞으로 그들이 계속 살게 될 영원한 가구로써 능력이 되면 혼자 독립해 살거나 비슷한 형편의 비친족인들과 함께 가구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이러한 미혼인구의 가구형태 특성은 전반적으로 큰 성별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분명한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혼남성보다는 오히려 미혼여성들이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35세 이상의 높은 연령층에서의 남성과 여성사이의 가구형태의 차이는 두드러진다. 35-54세 미혼여성들 중 1인가구에 사는 인구의 비율은 37.7%로 미혼남성의 25.9%보다 높으며, 5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각기 42.7%, 27.5%로 차이가 훨씬 커진다.

미혼인구의 가구형태에 있어서 지역에 따른 차이도 분명하다. 가족과 함께 사는 친족가구 인구비율을 보면 도시 미혼남성의 경우 88.1%, 농촌이 93.9%로 도시가 낮으며, 1인가구비율은 도시가 6.5%, 농촌이 2.5%로 도시가 2배 이상의 비율을 보인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시, 농촌간에 1인가구 비율은 명백한 차이를 나타낸다. 곧 도시의 미혼자들이 농촌미혼자들보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경향이 약하고 반면에 혼자 사는 경향이 강하다. 연령별로 지역간 가구형태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른 양상을 읽을 수 있다. 19세 미만의 아직 성년이 안된 어린 미혼자의 가구형태는 지역간에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20대에 들어 오면서 지역간 차이가 보이는데, 19-22세 미혼자들의 경우 도시에서는 친족가구비율이 남성이 91.5%, 여성이 90.5%로, 농촌의 96.4%, 94.8%에 비하여 낮다. 즉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미혼자의 비율이 높고 도시에서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상승할수록 높아지나, 5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반대로 농촌에서 도시보다 높은 비친족 가구비율이 발견된다.

나이가 비교적 많은, 혹은 앞에서 구분해 보았던 “영구히” 미혼일 가능성이 높은 인구집단, 특히 도시 미혼자들의 가구형태를 보면 미혼남성이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 다른 비친족인들과 동거하기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나이가 더 들면 미혼남성들은 혼자 살기보다는 다른 비친족인들과 동거하려는 경향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미혼여성의 경우, 혼자 사는 비율도 남성들보다 훨씬 높고 5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높은 1인가구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 (2) 유배우인구의 가족형태

미혼자들이 결혼을 하면 자기의 가정을 갖게 되고 따라서 혼인상태의 변화와 함께 가구유형도 변화한다. 옛날과는 달리 요즘에는 부모가 생존해 있더라도 차남이 혼인과 동시에 분가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남의 분가도 널리 허용되고 있다.<sup>16)</sup> 결혼한 사람들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이러한 분가로 인한 핵가족화 추세가 더욱 분명해진다.

유배우인구의 가구형태 중 단연 부부와 자녀중심의 핵가족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결혼하여 자녀와만 살고 있는 유배우인구의 비율이 62.8%이다<표 3-9>. 도시가 67.0%, 농촌이 51.0%로 도시의 유배우 인구가 농촌보다 월등히 높은 부부, 자녀중심의 핵가족성향을 보인다. 또한 유배우인구 중 3세대 이상의 가족형태에 사는 비율이 도시가 15.7%, 농촌이 24.4%로 아직도 확대가족 체제안에서 결혼생활을 하는

16) 한국가족의 분가관행에 관해서는 이해영, 권태환(1968) 참조.

부부의 비율이 농촌에서 높게 나타난다. 반면, 결혼한 인구의 가족형태 중 1세대 「부부」가족형태의 비율은 농촌이 16.4%, 도시가 8.6%로, 농촌이 도시의 2배가 되는데 이것은 주로 농촌의 높은 노년층 「부부」가족 비율에 기인한다.

〈3-9〉 유배우 인구의 가족형태 (1990년) (단위 : %)

연령/가족형태	전국	시부	군부
전체/			
1세대, 부부	10.6	8.6	16.4
기타	0.6	0.6	0.6
2세대, 부부+미혼자녀	62.8	67.0	51.0
편부모+미혼자녀	1.2	1.4	0.7
기타	6.7	6.7	6.9
3세대, 부부+자녀+부모	12.7	10.9	17.9
3세대 이상, 기타	5.3	4.8	6.5
30세 미만/			
1세대, 부부	19.2	21.0	11.5
기타	1.6	1.7	1.0
2세대, 부부+미혼자녀	55.1	56.1	50.6
편부모+미혼자녀	0.4	0.4	0.3
기타	9.1	9.3	8.5
3세대, 부부+자녀+부모	7.6	5.9	15.3
3세대 이상, 기타	7.0	5.7	12.7
30-44세/			
1세대, 부부	3.4	3.4	3.1
기타	0.4	0.3	0.4
2세대, 부부+미혼자녀	72.6	74.8	64.0
편부모+미혼자녀	1.3	1.4	0.8
기타	5.8	6.1	4.6
3세대, 부부+자녀+부모	12.5	10.4	21.0
3세대 이상, 기타	4.1	3.6	6.0
45세 이상/			
1세대, 부부	16.4	10.2	26.6
기타	0.6	0.5	0.7
2세대, 부부+미혼자녀	53.4	60.1	42.1
편부모+미혼자녀	1.6	2.1	0.7
기타	6.9	6.2	8.1
3세대, 부부+자녀+부모	15.2	14.5	16.3
3세대 이상, 기타	6.1	6.5	5.5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결혼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30세 미만 유배우인구의 가족의 경우 부부만 사는 비율이 도시가 21.0%, 농촌이 11.5%로, 아직 자녀가 없는 젊은 부부가 따로 사는 비율이 도시에서 훨씬 높다. 유배우인구의 가족형태는 그

들의 출산력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된다. 30세 미만의 도시 유배우인구 중 「부부」가족만 사는 비율이 농촌보다 높은 것은 이 연령층의 유배우인구 중 무자녀 가족의 비율이 그만큼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아직 무자녀 규범이 널리 용납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는 도시에서 결혼 후 첫 출산의 연기가 더 널리 행해지고 있음을 뜻한다. 자녀가 있는 젊은 유배우자들 중에도 자녀와 함께 부모를 모시고 사는 인구의 비율이 도시에서는 5.9%에 지나지 않고, 농촌에서는 15.3%로 도시의 3배 가까이 되고 있다.

가족팽창기로 볼 수 있는 30-44세 연령층에 오면 유배우인구의 대부분이 자녀를 갖기 때문에 자연이 도시, 농촌 모두 「부부」가족의 비율은 무시할만큼 낮아지게 되고, 대신 부부와 미혼자녀중심의 가족형성이 주를 이루게 된다. 도시에서는 30-44세 연령층 유배우인구 중 배우자와 미혼자녀와만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74.8%로, 이 연령층이 가족형태에 있어서 전형적인 핵가족유형의 절정을 이루는 연령층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의 경우엔 30-44세 유배우인구 중 64%가 「부부+미혼자녀」의 전형적인 핵가족에 살고 있고, 3세대 이상의 가족에 사는 비율도 27%가 된다.

45세 이상 연령층을 보면 다시 「부부」가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연령층에 있는 부부만이 사는 가족중에는 무자녀 가족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자녀를 출가시키고 난 후 1세대 축소기에 접어든 부부가족으로 이러한 가족형태의 비율이 농촌지역이 26.6%, 도시가 10.2%로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나이 든 부부만이 사는 노인부부가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3) 사별·이혼 여성의 가구형태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한 여성인구의 수는 남성의 수와 비교해 볼 때 절대적으로 많으면, 많은 사별·이혼 여성인구의 수는 남성의 인구의

의 사망률 차이, 재혼율의 차이 등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사별·이혼인구의 가구문제는 결국 사별 혹은 이혼한 여성들 가구의 문제로 좁혀 생각해도 사실 큰 무리는 없다.

〈표 3-10〉 사별·이혼여성의 가구형태 (1990년) (단위 : %)

연령/가구형태	전국	시부	군부
전체/			
1세대, 기타	0.6	0.7	0.5
편부모+미혼자녀	25.9	29.6	19.5
2세대, 기타	11.3	10.5	12.5
부부+자녀+부(모)	28.9	29.9	27.1
3세대이상, 기타	14.6	14.7	14.4
1인 가구	17.3	13.2	24.5
기타 비친족가구	1.4	1.3	1.5
30세 미만/			
1세대, 기타	5.7	6.1	4.4
편부모+미혼자녀	34.5	35.7	30.9
2세대, 기타	18.5	16.4	25.0
부부+자녀+부(모)	4.6	4.2	5.9
3세대이상, 기타	17.4	14.6	26.5
1인 가구	14.9	18.8	2.9
기타 비친족가구	4.3	4.2	4.4
30-44세/			
1세대, 기타	1.5	1.5	1.4
편부모+미혼자녀	58.1	58.3	57.4
2세대, 기타	10.9	11.0	10.3
부부+자녀+부(모)	1.6	1.1	3.6
3세대이상, 기타	10.6	9.5	15.5
1인 가구	14.7	16.3	8.2
기타 비친족가구	2.5	2.3	3.6
45세 이상/			
1세대, 기타	0.4	0.5	0.4
편부모+미혼자녀	22.0	25.0	17.2
2세대, 기타	11.3	10.4	12.6
부부+자녀+부(모)	32.3	34.7	28.5
3세대이상, 기타	15.1	15.6	14.3
1인 가구	17.6	12.6	25.5
기타 비친족가구	1.2	1.1	1.4

주 : 가구형태중 1세대, 기타는 「부부」가족을 제외한 모든 1세대 가족유형을 포함함.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배우자의 사망 혹은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는 가족 혹은 가구를 다룰 때 특별한 관심이 된다. 이러한 관심은 최



근에 들어올수록 높아지는데, 이것은 여성가구주 가구, 편모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노인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 1990년의 사별 혹은 이혼한 여성의 가구형태를 보면 사별·이혼여성 중 미혼자녀만 데리고 사는 여성의 비율이 25.9%, 「부부+자녀+부(모)」 가족의 비율은 28.9%, 혼자 사는 비율은 17.3%가 된다<표 3-10>. 지역별로는 도시가 각기 29.6%, 29.9%, 13.2%, 농촌이 19.5%, 27.1%, 24.5%로 상대적으로 사별·이혼여성의 경우 도시에서는 편모가구 비율이 높고 농촌에서는 1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한 여성들이 사는 가구형태는 그들의 연령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 혹은 이혼한 여성들은 자녀가 있는 경우 대부분이 어리거나 아직 출가하지 않은 미혼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가족팽창기로 볼 수 있는 30-44세 연령층 사별·이혼여성들의 경우 60%가까이가 미혼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 연령층보다 젊거나(30세 미만) 높은 연령층(45세 이상)에서는 「편부모+미혼자녀」의 비율이 각각 34.5%, 22%로 30-44세 연령층의 비율보다 훨씬 낮게 나타난다.

자녀들이 비교적 아주 어린 30세 미만의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한 여성들의 가구형태를 보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3세대 이상의 가족형태나 미혼자녀와 다른 가구원과 함께 2세대 가족에서 사는 비율이 높다. 이것은 이들이 경제활동을 할 경우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들을 돌보아야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45세 이상 연령층의 사별, 이혼여성들은 출가한 자녀의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이들 중 혼자 사는 비율도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도시보다도 2배 이상 높은 농촌지역의 1인

가구 비율(25.5%)은 자녀가 다른 곳으로 이주해 고향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여성들 중에서도 농촌지역에 혼자 사는 비율이 23.6%로 도시의 11.6%보다 높게 나타난다<표 3-11>. 그러나 44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사별, 이혼여성들의 1인가구 비율이 도시에서 더 높다. 30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도시가 농촌의 6배, 30-44세 연령에서는 2배 정도 높다<표 3-10>.

<표 3-11> 사별·이혼 여성의 생존자녀유무에 따른 가구형태 (1990년)

(단위 : %)

자녀유무/가구형태	전국	시부	군부
무자녀/ 친족가구			
가구주	4.7	5.6	2.7
기타 친족	27.9	27.9	27.7
1인 가구	60.8	60.1	62.5
기타 비친족가구	6.6	6.4	7.1
유자녀/ 친족가구			
가구주	34.5	38.4	27.7
기타 친족	48.3	48.9	47.4
1인 가구	16.0	11.6	23.6
기타 비친족가구	1.2	1.1	1.3

주 : 가구형태중 친족가구는 가구주와의 관계에 따라 분류한 것임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생존자녀의 유무에 따른 가구형태를 살펴 보면, 생존자녀가 없는 경우 사별, 이혼한 여성들이 혼자 사는 비율은 60% 이상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혼자 살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표 3-11>. 친족가족을 이루고 사는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생존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하여 가족의 가구주일 비율이 훨씬 높아 도시의 경우는 38.4%, 농촌에서는 27.7%가 가장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주가 아닌 가



## 나. 가족구성원의 연령별 가족구성 유형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 가족내에서 지위가 달라지고 속해 있는 가족의 형태가 달라진다. 보통 성년이 되기전까지의 어린이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부모의 가족에서 산다. 자녀들은 성년이 되면 집을 떠나기도 하고, 결혼할 때까지 부모와 같이 살다가 결혼과 동시에 부모의 가족을 떠나기도 하고, 결혼 후 계속 부모와 같이 살기도 한다. 자녀들이 성년이 되면서 어떠한 생활을 하느냐는 그 사회의 가족규범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주어진 인구학적 조건하에서는 결혼에 대한 관념, 이혼과 재혼, 자녀에 대한 가치, 부모 부양에 대한 관행 등 각종 가족 및 혼인과 연관된 가치와 규범에 따라 사람들의 가족생활이 결정지워진다. 따라서 가족 가치와 규범이 변하면 개인의 가족생활의 양상도 달라지게 된다.

반대로 우리는 연령별로 또는 성별로 사람들이 어떠한 가족구성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가족가치나 규범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서는 1990년의 연령별 가족구성을 살피고 있다. 연령별 가족형태의 분포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림 3-1>과 <그림 3-2>에 누적분포를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다(<표 부-2>참조). 여기서 각각의 형태의 비중은 그 이전 것과의 거리를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이들 그림에서 보면, 0-4세 어린이의 대부분은 부모와 함께 사는 핵가족에서 생활을 한다. 도시에서는 약 75%가 농촌에서는 60%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많은 0-4세 어린이들은 「편부모 직계가족」, 즉 부모와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한 분과 같이 생활하는 가족과, 순수핵가족이나 직계가족이 아닌 친족가족, 즉 부모와 고모나 이모, 삼촌 등과 생활하는

가족에서 자란다. 자녀의 나이가 들어 가면서, 특히 10세 이후부터 부모와 같이 사는 비율이 줄어, 20-24세에 도달하면 도시나 농촌을 불구하고 남녀 모두에서 50%이하로 떨어진다. 대신 기타친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고, 도시에서는 비친족가구, 즉 가족을 완전히 떠나 생활하는 경우도 상당히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미혼연령층의 농촌-도시 이동의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부모 중 한쪽의 사망으로 편부모, 특히 편모와 함께 사는 비율도 20-24세 연령층에서는 10%가 넘는다.

도시에 거주하는 남자의 경우 20-30세 사이의 연령층에서 가족생활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농촌에서는 25-29세에서 비교적 다양한 가족형태 구성이 발견되지만 도시와 같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 여자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도시와 농촌 모두 20-24세 집단에서 관찰된다. 즉 결혼 직전에 부모를 떠나 사는 비율이 가장 높아진다.

20-34세 사이에 관찰되는 부부가족의 증가는 이 기간이 바로 주어진 개인에게 자기 스스로의 가족생활 주기가 시작되는, 즉 혼인에 의해 자신의 생식가족이 출발하는 시기임을 가리킨다.<sup>17)</sup> 그러나 <그림 3-1>과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연령층에서도 부부만이 사는 비율은 매우 낮다. 가장 높은 것은 「부부+미혼자녀」 가족이고 다음이 「기타 친족가족」을 이루는 경우이다. 이러한 관찰로부터 우리는 가족형성과 관련하여 두가지 지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가족 생활주기의 첫 단계인 가족형성기와 둘째 단계인 가족확대기 사이의 간격이 매우 짧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마도 첫 출산을 연기하려는 부부가 아직도 매우 적다는 점과, 또한 혼인연령의 상승과 결혼 전 부모가족으로부터의 이탈자의 증가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혼전임신의 증가에 의해 상당한 부분 설명이

17) 실제 1990년 센서스의 연령별 미혼자의 비율로부터 계산된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이 28.6세, 여성이 25.5세로 나타나고 있다.

가능할 것이다. 두번째 지배적인 현상은 혼인 후 「기타 친족가구」를 이루는 경우가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혼인 후 부모 및 형제들과 같이 사는 경우와, 특히 도시에서는 당분간 미혼형제를 데리고 있는 경우가 주로 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격적인 가족확장기에 들어가는 30세 이후에는 다시 「부부+미혼자녀」 가족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그러한 경향은 도시에서 더 강하다. 가족확장기 연령층에서는 가족형태의 구성이 도시와 농촌 그리고 남성과 여성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도시 남성의 경우 자녀출산에 의한 가족의 확장이 40대 초반까지 급속히 진행된다.<sup>18)</sup> 그리고 미혼 자녀와 부인과 함께 핵가족을 이루는 비율이 40대에서 가장 높아 75%를 넘는다. 한편 도시여성의 유형은 상당히 다르다. 우선 「부부+미혼자녀」로 이루어지는 핵가족의 비율이 30대 중반 이후 빨리 떨어진다. 대신 「편모+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비율이 급속한 증가를 나타낸다. 이는 30대 중반부터 남성의 사망률이 여자에 비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남자의 경우 부인이 사망하였을 때 재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특히 자녀가 있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농촌에서는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핵가족의 비율이 도시에 비해 낮다. 남성의 경우에는 10%이상, 여자는 5%정도 낮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이러한 「부부+미혼 자녀」 가족의 비율이 남녀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남성의 경우 도시와 농촌 사이의 차이는 주로 농촌에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으며, 부인이 남편을 사별하였을 때 농촌에 사는 아들과 합류하는

18) 가족확장 기간은 출산력과 직접 관련이 있다. 최근 코호트일수록 그 기간은 짧아지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30대 초반층과 40대 중반층사이에는 그 기간이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부부+미혼자녀」가족의 비율 증가가 바로 평균 자녀수의 증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경험적인 연관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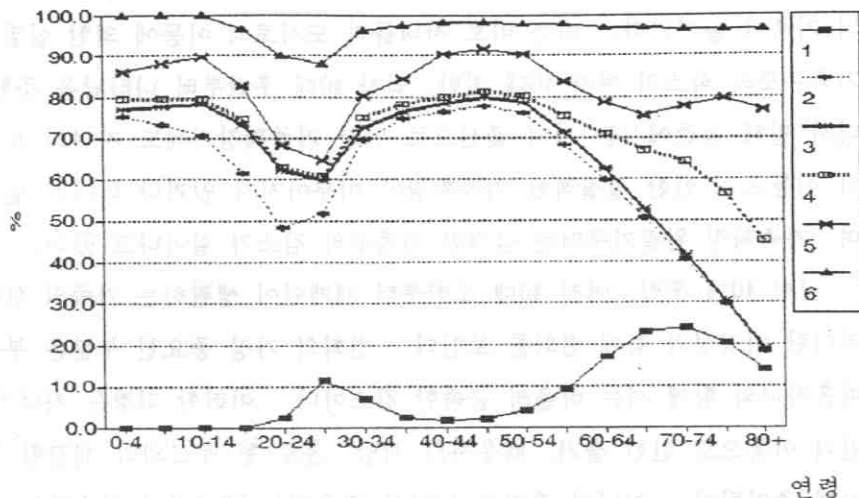
경향이 높다는데 기인한다. 이와 달리 농촌에서는 40대 후반부터 부부만의 가족이 늘어난다. 이는 바로 자녀들의 도시로의 이동에 의한 실질적인 가족규모의 축소가 여자 40대 전반, 남자 40대 후반부터 나타남을 뜻한다. 다시 말해 농촌에서는 자녀 출산으로 인한 가족확장기에도 자녀의 도시로의 이동으로 인한 실질적인 가족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디게 일어나며, 가족확장 완결기부터는 급격한 가족수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

남자 40대 후반, 여자 40대 초반부터 개개인이 생활하는 가족의 형태는 커다란 다양성과 함께 변화를 보인다. 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부가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의 급속한 감소이다. 이러한 과정은 자녀의 혼인과 이동으로 인한 출가, 배우자의 사망, 홀로 된 부모와의 재결합 등에 의해 촉진된다. 자녀의 출가는 남자의 경우에는 70대까지 지속되는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60대 중반이면 거의 끝이 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1990년 현재 60대 및 70대 연령층의 출산력이 매우 높았던데 기인한다. 앞으로 자녀의 출가로 인한 가족의 축소는 훨씬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남녀의 차이는 주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또는 이혼한 남자의 재혼으로 인한 남자의 늦은 자녀출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한 자녀의 혼인과 출가는 직계 또는 확대가족과 노인부부가족의 증가로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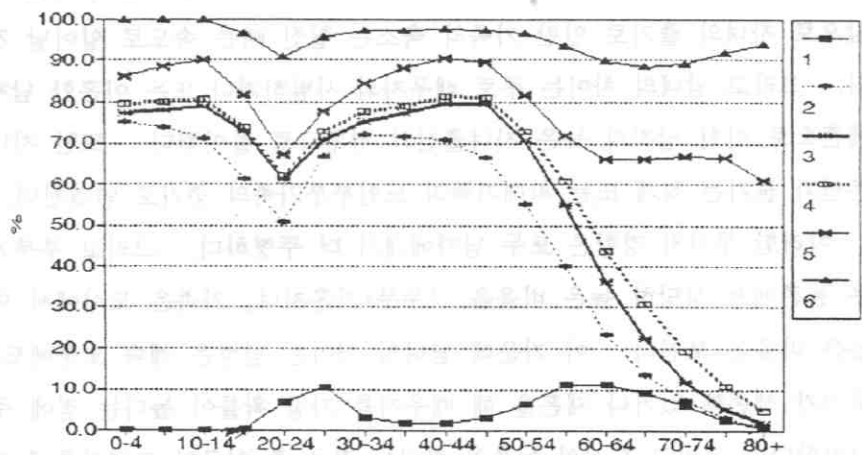
이러한 두가지 경향은 모두 남자에게서 더 뚜렷하다. 그리고 부부가족은 농촌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부부+기혼자녀」 가족은 도시에서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 가운데 남녀의 차이는 남성은 계속 노후에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거나 재혼을 해 배우자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점에 주로 기인한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젊은 층 인구의 도시집중에 의해 설명된다.

한편 배우자의 사망은 여러 가지 경로로 가족생활의 변화를 가져온다. 재혼, 1인가구의 형성, 「부부+편친」 가족으로의 전환이나 새로운 「부부+편

남성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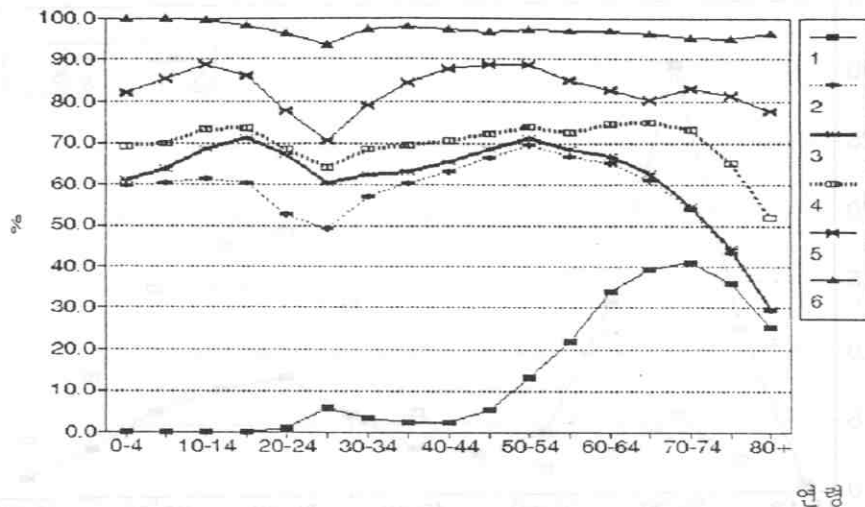


<그림 3-1> 연령별 가족형태분포, 1990(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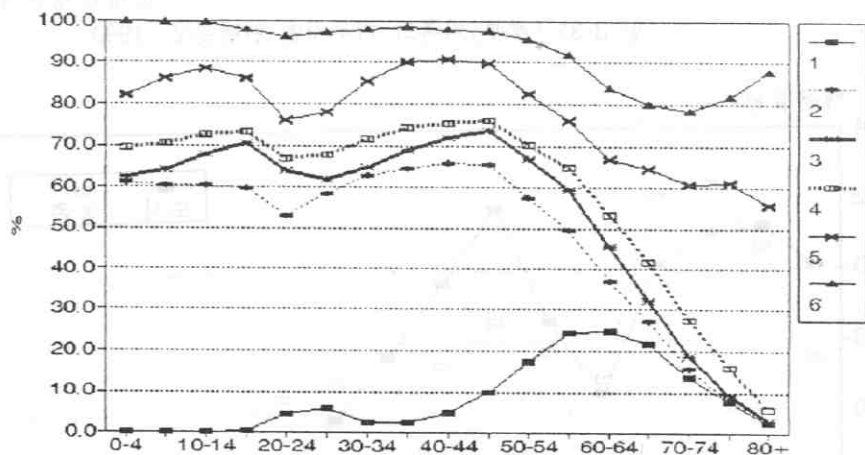
- \*1: "부부"가족                      2: "부부+미혼자녀"가족
- 3: "편부모+미혼자녀"가족      4: "부부+부모+(자녀)"가족
- 5: "부부+편친+(자녀)"가족      6: 기타 친족가족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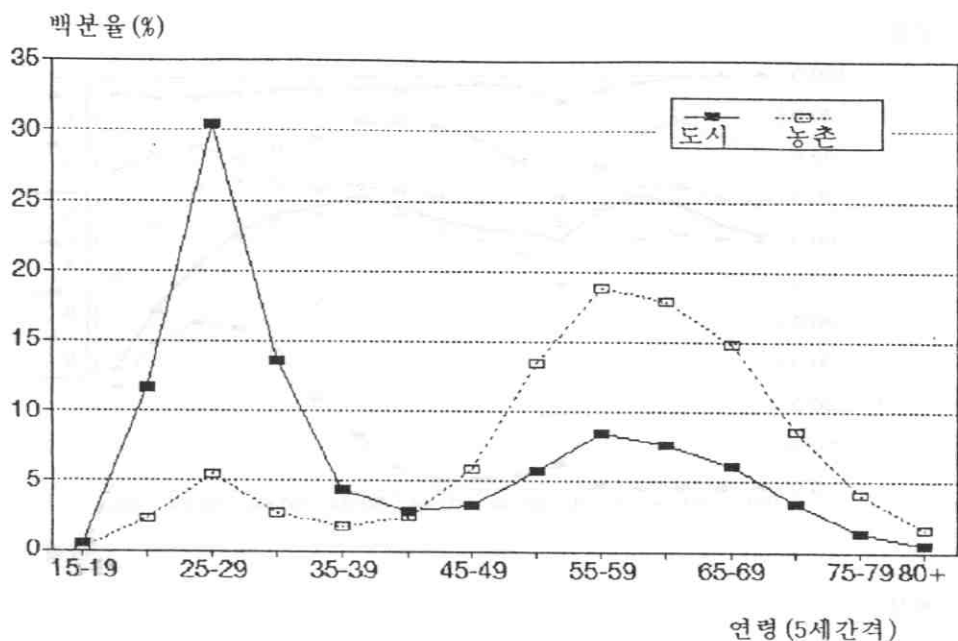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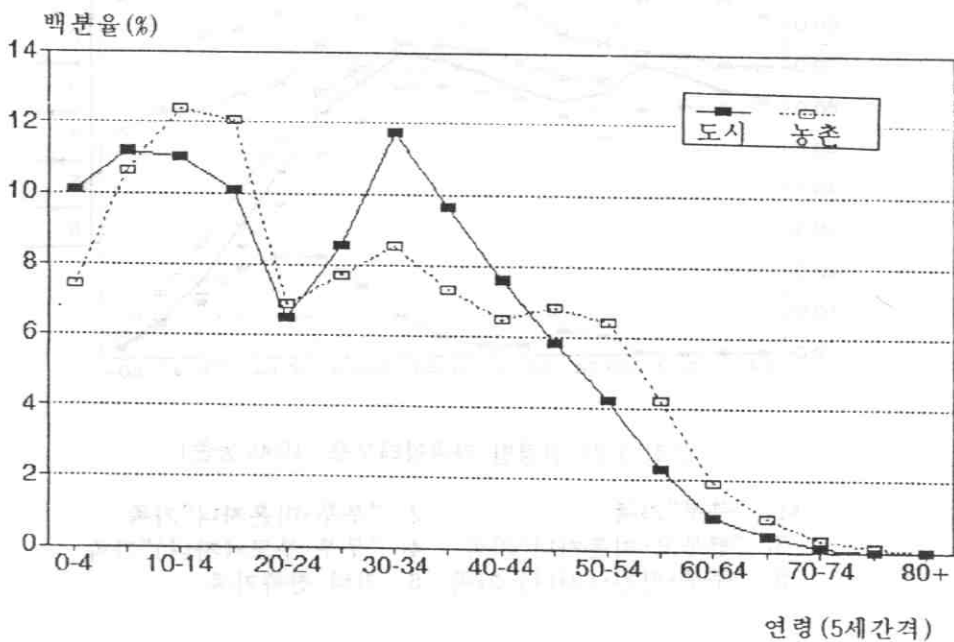


〈그림 3-2〉 연령별 가족형태분포, 1990(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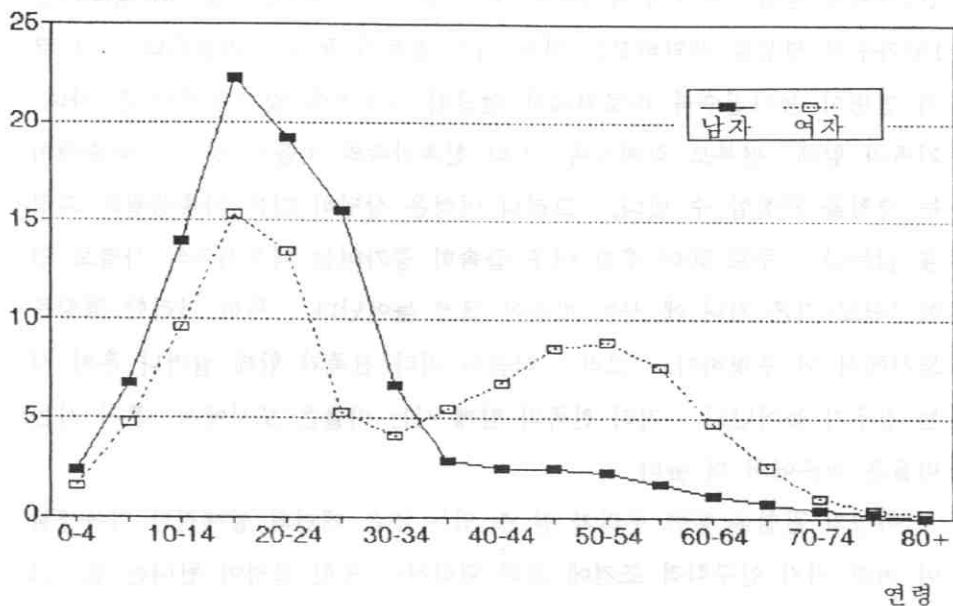
- #1: “부부”가족                      2: “부부+미혼자녀”가족  
 3: “편부모+미혼자녀”가족      4: “부부+부모+(자녀)”가족  
 5: “부부+편친+(자녀)”가족      6: 기타 친족가족



〈그림 3-3〉 「부부」가족의 거주지별 연령분포,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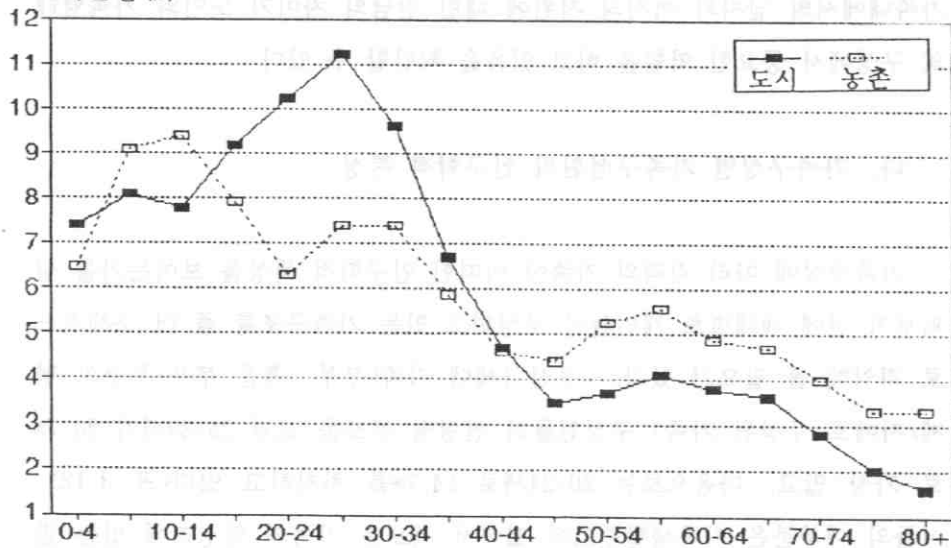


백분율(%)



〈그림 3-5〉 「편부모+미혼자녀」가족의 성별 연령분포, 1990

백분율(%)



친」가족의 형성, 기타 친족가족의 형성 등이 그것이다. 남자의 경우에는 1인가구의 형성을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경로가 동시에 관찰된다. 그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바로위에서 언급한 부부가족 및 「부부+기혼 자녀」가족과 함께, 편부모 직계가족, 기타 친족가족의 비율이 상당히 비슷해지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은 상당히 다른 가족생활의 과정을 밟는다. 주로 50대 후반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해 「편모+기혼 자녀」에 사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도시에서 더 뚜렷하다. 그리고 다음이 기타 친족과 함께 살거나 혼자 사는 경우가 늘어난다. 기타 친족과 함께 사는 비율은 도시에서, 혼자 사는 비율은 농촌에서 더 높다.

이상의 관찰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실제적인 가족생활이 여러 가지 인구학적 조건에 의해 달라지며 또한 설명이 된다는 점, 그리고 아직도 소위 전통적인 가족규범이 개인의 가족형태구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혼에 대한 남녀 사이의 차별적 규범, 가족내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지위에 대한 관념의 차이가 노인의 가족형태의 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가족구성별 가족구성원의 인구학적 특성

가족구성에 따라 각각의 가족이 어떠한 인구학적 특성을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세대별로 개인들이 구성하고 있는 가족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1세대 가족(부부, 혹은 부부+부부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5-29세가 20.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20-24세로 14.7%를 차지하고 있다<표 3-12>. 이들의 대부분은 가족생활주기에 있어서 새로운 가족의 형성기에 있는 젊

은 부부들로서 1세대가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55-59세(9.7%)와 60-64세(9.1%) 연령층의 경우는 대부분이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가족주기의 완결단계인 1세대 축소기에 있는 노부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1세대가족 구성원들의 연령별분포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도시지역에서는 1세대가족원들의 60%에 달하는 인구가 젊은 20-34세 연령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반해, 농촌지역에서는 62%정도가 55세 이상의 노인연령층에 속해 있다.

<표 3-12> 친족가구원의 세대구성 및 지역별 연령분포(1990년)

(단위 : %)

연령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이상 가구		
	전국	시부	군부	전국	시부	군부	전국	시부	군부
0-4세	0.2	0.2	0.2	8.6	9.2	6.5	7.8	7.8	7.7
5-9세	0.2	0.2	0.2	10.3	10.5	9.6	9.3	8.9	10.1
10-14세	1.0	1.1	0.7	10.9	10.6	11.8	9.2	8.7	10.2
15-19세	6.1	8.3	1.6	10.9	10.6	12.1	7.9	7.9	8.0
20-24세	14.7	20.1	3.7	7.8	7.9	7.8	6.1	6.4	5.5
25-29세	20.7	27.7	6.5	8.9	9.3	7.4	7.6	8.0	6.8
30-34세	8.5	11.2	3.0	10.5	11.2	8.0	8.4	8.9	7.6
35-39세	3.0	3.5	2.0	8.4	8.9	6.7	6.7	7.1	6.1
40-44세	2.3	2.1	2.6	6.8	7.0	5.9	5.3	5.5	4.8
45-49세	3.5	2.4	5.7	5.7	5.5	6.5	4.3	4.2	4.4
50-54세	6.8	4.0	12.5	4.8	4.3	6.6	4.5	4.3	4.9
55-59세	9.7	5.9	17.6	3.1	2.6	4.9	4.7	4.7	4.7
60-64세	9.1	5.4	16.6	1.6	1.2	2.7	4.5	4.6	4.4
65-69세	7.4	4.3	13.7	0.9	0.7	1.6	4.6	4.6	4.6
70-74세	4.2	2.4	8.1	0.4	0.3	0.8	3.8	3.7	4.0
75-79세	1.8	0.9	3.8	0.2	0.1	0.5	2.9	2.7	3.3
80+ 세	0.7	0.3	1.5	0.2	0.1	0.6	2.4	2.1	2.9

주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의 세대구성별 총친족 가구원수는 다음과 같다.

전국: 1세대가구원수(54,169); 2세대(591,810); 3세대이상(157,100)

도시: 1세대가구원수(36,307); 2세대(461,253); 3세대이상(101,082)

농촌: 1세대가구원수(17,862); 2세대(130,557); 3세대이상(56,018)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2세대가족의 성원은 19세 이하의 미혼연령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 40대 연령층으로 이것은 대부분의 2세대가족이 가족주기에 있어서 팽창기에 있는 중년층의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별차이는 미미하지만 도시에 비하여 농촌의 2세대가족 구성원이 19세 이하의 연령층에 다소 높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과거 도시와 농촌간의 출산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3세대 이상의 가족은 그 성격상 뚜렷하게 높은 분포를 보이는 연령을 상정하기 어렵다.

#### (1) 「부부」가족

가족형태중 「부부」가족은 핵가족의 하나로 주로 자녀를 낳기 전의 부부나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따로 사는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이러한 부부들은 25-29세의 연령층에 가장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55-69세 연령층에 모여 있다<표 3-13>. 이들 연령집단은 가족형성기 초기와 가족생활주기 완결기를 내포한다.

부부가족의 연령분포는 지역별로 극심한 차이를 보인다. 도시지역의 경우는 부부가족의 반수 이상이 가족형성기의 20-34세 젊은 부부인데 반해 농촌의 경우는 70%이상의 부부가족이 50세 이상의 노년층에 속해 있다(<그림 3-3>참조). 부부가족의 연령분포를 보면 두 군데의 최고점을 가진 곡선형태를 나타내는데, 도시지역의 경우는 25-29세가 첫번째 최고점이고 55-59세가 두번째의 최고점으로 나타나는 반면, 반대로 농촌은 55-59세 연령층이 첫번째 최고점이고 25-29세가 두번째 최고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연령분포는 부부사이에 차이가 난다. 남편의 연령은 25-34세와 55-69세에 집중되어 있고 부인들의 경우는 이보다 아래인 연령층인 20-29

세와 50-64세에 많다<표 3-13>. 이것은 초혼연령에 있어서의 성별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지난 30여 년간 평균초혼연령은 1960년에 남자의 경우 25.4세, 여자의 경우 21.6세이던 것이 1990년에 와서는 남자가 28.6세, 여자가 25.5세로 증가추세에 있다. 평균초혼연령의 증가와 사망력의 저하가 계속된다고 볼 때 앞으로 부부가족의 연령분포는 1990년의 연령분포에 비해 약간 높은 연령층에 치우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모두 출가하기 전이라도 성년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떨어져서 다른 가구를 형성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미혼인구의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정확한 연령분포의 예측은 좀 더 많은 분석을 요구한다.

<표 3-13> 「부부」가족 구성원의 거주지 및 성별 연령분포(1990년)  
(단위 : %)

연령	전 국			시 부			군 부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15-19	0.4	0.1	0.6	0.5	0.2	0.8	0.2	0.1	0.3
20-24	7.8	3.1	12.6	11.6	4.6	18.6	2.3	0.9	3.7
25-29	20.4	20.6	20.2	30.5	30.7	30.3	5.5	5.7	5.3
30-34	9.2	12.5	5.9	13.6	18.8	8.5	2.7	3.4	2.1
35-39	3.3	3.7	2.8	4.4	5.1	3.5	1.7	1.7	1.7
40-44	2.7	2.3	3.0	2.8	2.8	2.8	2.4	1.6	3.2
45-49	4.3	3.1	5.5	3.3	2.7	3.9	5.9	3.9	8.0
50-54	8.8	7.2	10.5	5.7	4.6	6.8	13.5	10.9	15.9
55-59	12.7	10.7	14.6	8.5	7.2	9.7	18.8	15.9	21.8
60-64	11.8	12.2	11.5	7.7	8.1	7.4	17.8	18.1	17.5
65-69	9.7	11.5	7.8	6.2	7.6	4.8	14.8	17.3	12.2
70-74	5.6	7.7	3.4	3.4	4.7	2.1	8.7	12.0	5.4
75-79	2.4	3.7	1.2	1.3	2.1	0.6	4.1	6.0	2.2
80+	0.9	1.5	0.4	0.5	0.8	0.2	1.6	2.5	0.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지역 및 성별 표본 「부부」가족 구성원수는 다음과 같다.

전국: 남자(19,956) 여자(19,955)

시부: 남자(11,888) 여자(11,889)

군부: 남자(8,068) 여자(8,066)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 (2) 「부부+미혼자녀」 가족

가장 전형적인 핵가족의 모습인 부부와 미혼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의 성원은 2세대가족의 연령분포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30대 연령층과 19세 이하의 연령층에 가장 많다<표 3-14>. 이것은 현재 30대가 가족생활주기에 있어 팽창기에 속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또한 「부부+미혼자녀」가족성원의 연령분포는 출산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집단의 연령분포는 도시와 농촌사이에 흥미로운 차이를 나타낸다(<그림 3-4

<표 3-14> 「부부+미혼자녀」가족 구성원의 거주지 및 성별 연령분포(1990년)  
(단위 : %)

연령	전 국			시 부			군 부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0-4	9.5	9.8	9.2	10.1	10.5	9.8	7.4	7.5	7.3
5-9	11.1	11.1	11.1	11.2	11.3	11.1	10.6	10.4	10.8
10-14	11.3	11.3	11.3	11.0	11.1	10.9	12.4	12.1	12.9
15-19	10.5	10.5	10.5	10.1	10.1	10.1	12.1	12.0	12.2
20-24	6.6	5.9	7.4	6.5	5.5	7.6	6.9	7.2	6.7
25-29	8.2	6.5	9.9	8.5	6.6	10.5	7.7	6.3	7.9
30-34	11.0	10.3	11.8	11.7	10.9	12.5	8.5	7.9	9.2
35-39	9.1	9.2	9.0	9.6	9.8	9.4	7.3	7.0	7.7
40-44	7.4	7.5	7.2	7.6	7.9	7.3	6.5	6.3	6.8
45-49	6.0	6.4	5.6	5.8	6.4	5.2	6.8	6.6	7.1
50-54	4.7	5.4	4.0	4.2	5.0	3.4	6.4	7.0	5.9
55-59	2.7	3.3	2.0	2.3	2.8	1.6	4.2	4.9	3.5
60-64	1.1	1.5	0.7	0.9	1.2	0.5	1.9	2.5	1.4
65-69	0.5	0.8	0.2	0.4	0.6	0.1	0.9	1.4	0.5
70-74	0.2	0.3	0.1	0.1	0.2	-	0.3	0.6	0.1
75-79	0.1	0.1	-	-	0.1	-	0.1	0.2	-
80+	-	-	-	-	-	-	-	0.1	-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지역 및 성별 표본 「부부+미혼자녀」가족 구성원수는 다음과 같다.

전국: 남자(245,885) 여자(234,374)

시부: 남자(192,103) 여자(184,213)

군부: 남자(53,782) 여자(50,161)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참조). 도시에서는 부모세대에 속하는 30-34세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 자녀세대에 속하는 5-14세 가구원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10-19세의 자녀세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34세의 부모층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의 연령분포를 보면 도시에 비하여 50대의 중년 연령층 부부가 비교적 많고 아주 어린 0-4세의 자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족팽창기에 접어든 농촌의 젊은 부부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표 3-15〉 「편부모+미혼자녀」가족 구성원의 거주지 및 성별 연령분포(1990년)  
(단위 : %)

연령	전 국			시 부			군 부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0-4	1.9	2.3	1.5	2.0	2.5	1.6	1.4	1.7	1.1
5-9	5.7	6.8	4.8	5.9	7.2	4.8	5.1	5.7	4.6
10-14	11.4	13.9	9.6	11.2	14.1	9.1	12.3	13.4	11.3
15-19	18.3	22.3	15.4	18.2	22.5	15.2	18.8	21.8	16.4
20-24	15.8	19.2	13.4	16.2	19.0	14.2	14.6	19.8	10.6
25-29	9.6	15.5	5.3	9.8	15.4	5.7	8.9	15.6	3.7
30-34	5.2	6.6	4.1	5.3	6.2	4.7	4.7	7.6	2.4
35-39	4.3	2.8	5.5	4.5	2.6	5.9	3.7	3.1	4.0
40-44	5.0	2.4	6.8	5.3	2.4	7.4	3.9	2.4	5.0
45-49	5.9	2.4	8.5	6.1	2.4	9.1	5.3	2.3	7.7
50-54	6.0	2.2	8.8	5.8	2.3	8.3	6.7	2.1	10.4
55-59	5.0	1.6	7.5	4.6	1.6	6.7	6.5	1.8	10.2
60-64	3.2	1.0	4.8	2.8	1.0	4.1	4.4	1.3	6.9
65-69	1.7	0.6	2.5	1.5	0.5	2.2	2.3	0.8	3.4
70-74	0.7	0.3	0.9	0.5	0.2	0.7	1.0	0.4	1.6
75-79	0.2	0.1	0.3	0.2	0.1	0.2	0.3	0.2	0.5
80+	0.1	-	0.1	0.1	-	0.1	0.1	-	0.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지역 및 성별 표본 「편부모+미혼자녀」가족 구성원수는 다음과 같다.

전국: 남자(22,237) 여자(30,302)

시부: 남자(16,751) 여자(23,347)

군부: 남자(5,486) 여자(6,955)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 (3) 「편부모+미혼자녀」 가족

핵가족의 나머지 유형인 편부모와 미혼자녀가족은 그것이 부모 중 한 사람만이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자연히 미혼자녀의 연령층의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또한 편부모의 평균연령은 같은 2세대가족 유형인 「부부+미혼자녀」가족의 부부연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3-15>. 30대 연령층의 편부모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연령구성상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혼자녀들의 연령도 10대 및 20대에 걸쳐 있다.

&lt;표 3-16&gt; 편부, 편모의 연령분포(1990년)

(단위 : %)

연령	편부			편모		
	전국	시부	군부	전국	시부	군부
30세 미만	22.4	21.6	24.5	3.1	3.4	2.0
30-44세	36.0	36.8	33.8	34.1	37.3	23.5
45-59세	31.7	32.7	29.0	49.7	47.9	55.4
60세 이상	9.9	8.9	12.7	13.2	11.4	19.0

주 : 지역별 표본 편부, 편모의 수는 다음과 같다.

전국: 편부( 4,235) 편모(13,429)

시부: 편부( 3,109) 편모(10,282)

군부: 편부( 1,126) 편모( 3,147)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그림 3-5>의 성별 연령분포를 보면, 「편부모+미혼자녀」가족형태에 사는 남성 가족원들은 대부분이 미혼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낮은 연령층에 몰려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40대 이상의 중년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편모가구의 수가 편부가구의 수보다 3배 정도 많으며 편모의 대부분이 남편과 사별한 중년이상의 여성들이기 때문이다<표 3-16>. 또한 여자가 혼자되었을 경우, 재혼하여 다시 부부중심의 가족을 형성하는 확률이 남성들보다 훨씬 낮고 높은 연령층의 여성일수록 재혼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편부, 편모의 연령분포를 보면 편부인 경우 30세 미만이 22.4%, 30-44세가 36%, 45세 이상이 41.6%인데 반해 편모의 연령분포는 30세 미만은 3.1%에 불과하고 30-44세가 34.1%, 나머지가 45세 이상의 높은 연령층에 몰려 있다<표 3-16>.

#### (4) 기타 친족가족

여기서 기타 친족가족은 이제까지 살펴 본 세 가지의 핵가족유형을 제외한 확대가족을 비롯한 기타 친족가구를 모두 일컫는다. 기타 친족가구는 가족원의 구성이 다양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있으므로 연령분포도 고르다<표 3-17>. 일반적으로 25-29세 연령층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은 낮아진다.

<그림 3-6>은 도시와 농촌의 판이하게 다른 기타 친족가족의 연령분포를 제시해 주고 있다. 도시의 경우는 10대, 20대, 30대의 젊은 연령층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는 이 연령층의 젊은 가족원들보다는 5-14세의 어린 연령층과 50대 이상의 노인가족원이 비교적 많다. 또한 연령분포로 쉽게 파악될 수 있듯이 도시의 경우, 기타 친족가족 가족원의 상당 부분인 젊은 연령층의 가족원들은 주로 언젠가 분가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룰 젊은 부부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타 친족가족의 지역간 연령분포의 차이는 농촌의 인구구조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다<표 3-17>.

〈표 3-17〉 기타 친족가족 구성원의 거주지 및 성별 연령분포(1990년)  
(단위 : %)

연령	전 국			시 부			군 부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0-4	7.2	8.1	6.3	7.4	8.3	6.4	6.5	7.8	5.9
5-9	8.4	9.4	7.6	8.1	9.0	7.2	9.1	10.1	8.4
10-14	8.3	9.1	7.6	7.8	8.7	7.0	9.4	10.0	8.9
15-19	8.8	9.5	8.2	9.2	9.9	8.6	7.9	8.6	7.4
20-24	9.9	8.2	9.7	10.2	8.8	11.5	6.3	6.5	5.9
25-29	10.0	10.9	9.2	11.2	12.3	10.2	7.4	7.8	7.0
30-34	8.9	9.9	8.1	9.6	10.6	8.7	7.4	8.2	6.7
35-39	6.4	7.3	5.3	6.7	7.6	5.6	5.9	6.7	4.8
40-44	4.6	5.4	4.0	4.7	5.5	4.1	4.6	5.3	3.8
45-49	3.8	4.3	3.4	3.5	4.0	3.1	4.4	4.9	4.1
50-54	4.2	4.0	4.5	3.7	3.4	4.0	5.3	5.2	5.5
55-59	4.5	3.9	5.2	4.1	3.4	4.8	5.6	5.0	6.0
60-64	4.1	3.0	5.2	3.8	2.6	4.9	4.9	3.8	5.6
65-69	4.0	2.7	5.1	3.6	2.4	4.8	4.7	3.6	5.8
70-74	3.3	2.1	4.2	2.8	1.7	3.8	4.0	2.9	5.0
75-79	2.4	1.4	3.3	2.0	1.1	2.9	3.3	2.0	4.4
80+	2.1	1.0	3.1	1.6	0.7	2.4	3.3	1.6	4.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지역 및 성별 표본 기타 친족가족 구성원수는 다음과 같다.

전국: 남자(107,800) 여자(121,976)

시부: 남자( 74,218) 여자( 83,752)

군부: 남자( 33,582) 여자( 38,224)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 IV. 가구분화와 탈가족화

1960년대 이후의 인구변천과 사회변동으로 인한 가구형태 및 가족구조의 변화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구분화 현상과 이에 기인한 높은 가구수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다. 가구분화 현상은 구체적으로 핵가족화 및 소가족화와 1인 가구의 급증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사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중요한 인구학적 변천은 대체수준이하의 출산력 저하, 합법적인 결혼의 연기 혹은 회피, 이혼율의 증가 등과 이로 인한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와 1인가구 등의 소가족규모에서 사는 인구 비율의 증가 등을 수반하고 있다. 우리사회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인구학적 변천과 함께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와 기능이 축소 내지 약화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해체도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어떠한 가구나 가족을 이루어 매일매일의 생활을 할 것인가?”의 변화를 뜻한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혼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올라가고, 연령별·성별 역할의 변화, 특히 연령별·성별 역할의 동질화는 소가족화를 선호하는 가치를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현대기술의 발전이나 산업화, 도시화 등이 가구원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Burch and Matthews, 1987).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결과로, 서구사회에서는 가족에서 벗어나 홀로, 혹은 가족이 아닌 비친족인들과 같이 사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도 그 정도는 아직 심하지 않지만 1인가구와 비친족가구 또는 이러한 가구에 사는 사람의 비율이 지난 30년 사이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가족의 구조적 변화는 전체인구의 연령구조가 친족가구의 연령구조와 상당히 불일치하고 있다는 데서도 확인될 수 있다<표 4-1>. 이

러한 불일치는 인구 중 그러한 가족에서 벗어난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1> 전체인구와 친족가구인구의 연령구조의 비교(1990년)  
(단위 : %)

연령	전 체		남 성		여 성	
	전체인구	친족가구	전체인구	친족가구	전체인구	친족가구
0-4	7.6	8.4	7.9	9.0	7.2	7.8
5-9	8.9	9.6	9.2	10.1	8.6	9.1
10-14	9.2	9.7	9.4	10.2	8.9	9.2
15-19	10.3	10.0	10.4	10.4	10.1	9.7
20-24	10.1	8.4	10.5	7.1	9.7	9.6
25-29	10.0	10.2	9.9	9.5	10.0	10.8
30-34	9.7	10.8	9.9	10.9	9.5	10.7
35-39	7.4	8.3	7.6	8.6	7.2	7.9
40-44	5.8	6.5	6.0	6.8	5.7	6.2
45-49	5.0	5.1	5.1	5.4	5.0	4.9
50-54	4.6	4.3	4.6	4.4	4.7	4.1
55-59	3.7	3.1	3.5	3.1	4.0	3.2
60-64	2.7	2.1	2.3	1.9	3.1	2.3
65-69	2.1	1.5	1.7	1.3	2.4	1.8
70-74	1.4	1.0	1.1	0.8	1.7	1.2
75-79	0.9	0.6	0.6	0.4	1.2	0.8
80+	0.7	0.5	0.3	0.2	1.0	0.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친족가구인구의 연령분포는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자료에서 계산되었고, 전체인구의 연령분포는 1990년 인구 센서스 보고서에서 계산된 것임.

2) 친족가구인구는 1인가구와 비친족가구형태를 제외한 모든 가족형태에 사는 인구임.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전체인구와 친족가구인구의 연령구조 차이를 보면 15세 미만의 연령층에 속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분포보다 친족가구 분포에서 높게 나타나고, 15-19세 연령에서는 친족가구에서의 이 연령층의 구성비율이 낮게 되고, 20-24세에서는 그 차이가 커진다<표 4-1>. 25세 이상에서는 다시 친족가구에서의 연령구성의 비율이 높아지다가 차츰 그 차이가 좁혀지면서 50세 이상에서의 연령구성 비율이 친족가구인구의 연령분포에서 낮게 나타난다. 친족가구인구의 연령분포에서 15-24세 연령층과 50세 이상 연령층의 구성비율이 전체인구의 비율보다 낮은 것은 특히 두 연령집단의 인구 중 가족에서 벗어나 가구를 형성하는 인구가 비교적 많음을 말해 준다.

## 1. 1인가구

### 가. 1인가구의 성향과 특성

우리는 이미 가구유형의 변화에 있어서 1인가구의 비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1990년 현재 일반가구 중 1인가구의 비율이 9.0%로 대략 10가구 중 1인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임을 보았다. 이러한 1인가구 형성의 성향은 연령별·성별·혼인상태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다. 우선 미혼인구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가구를 형성하는 성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표 4-2>. 물론 미혼 1인가구는 낮은 연령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미혼자 가운데 1인가구를 이루는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급속히 높아진다. 이는 나이에 따른 경제적 기반의 차이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결혼의 기회를 포기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더욱 혼자 가구를 형성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표 4-2> 각각의 연령, 성, 혼인상태별 인구집단의 1인가구 인구비율 (1990년)  
(단위 : %)

연령 / 성별		혼인상태		
		미혼	이혼	사별
15-24	남성	2.3 (1,652)	-	-
	여성	2.7 (1,963)	-	-
25-34	남성	14.1 (3,911)	11.8 (50)	10.9 (10)
	여성	14.3 (1,572)	26.4 (172)	6.6 (36)
35-44	남성	24.6 (378)	15.6 (140)	13.3 (52)
	여성	36.3 (368)	32.0 (368)	5.7 (141)
45-54	남성	34.6 (82)	20.6 (125)	13.9 (110)
	여성	43.8 (92)	33.4 (221)	10.9 (659)
55-64	남성	28.3 (13)	35.7 (60)	23.3 (281)
	여성	38.7 (29)	39.5 (105)	20.6 (2,373)
65-74	남성	30.0 (6)	32.3 (10)	22.3 (315)
	여성	51.5 (17)	56.9 (33)	20.8 (2,454)
75+	남성	-	-	10.2 (124)
	여성	-	-	11.7 (964)

주 : 1) 1인가구 인구비율,  $P = S_{ijk}/P_{ijk} \times 100$ . 즉, 각 연령, 성, 혼인상태별 인구집단에 대한 1인가구 인구의 비율임

2) ( )안의 수는 각 연령, 성, 혼인상태별 인구집단의 표본 1인가구 인구임

3) "-"은 혼자 사는 인구가 5미만인 경우임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이러한 현상은 혼인적령기 또는 바로 혼인적령기를 지난 연령층인 25-34세의 미혼자의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에 있어, 혼자 사는 사람이 15%에도 이르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이들 연령



층에서는 경제적 안정이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을 뿐더러 결혼에 대한 본인 및 부모의 기대가 이들로 하여금 친족가구에 머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미혼인구의 1인가구 형성비율의 성별차이를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높은 1인가구 형성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별차이는 남성과 여성사이의 전통적인 가정내 역할분담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남성의 경우 가정일을 하는 것을 어색하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혼자 살기보다는 부모나 친족과 함께 살 확률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인구를 보면 미혼이나 이혼인구와 조금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사별한 경우에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혼자 사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약해지고 75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이 혼자 사는 비율이 더 높아진다. 또한 이혼인구와 마찬가지로 사별인구도 60대 초반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젊을수록 자녀가 어리고 따라서 자녀와 같이 살 확률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혼자의 1인가구 분포는 미혼자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미혼자의 1인가구 거주확률은 나이가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그러나 25-34세 여성이혼자 가운데 1인가구 거주자의 비율은 미혼자에 비해 크게 높은 반면, 35-54세 집단에서는 낮다. 또한 남성이혼자의 경우 50대 중반까지 1인가구형성 비율이 미혼자에 비해 상당히 낮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혼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념,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자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그 부양권리가 남자에게 주어진다든 점, 성별 재혼가능성의 차이 등에 의해 설명된다.

혼자 사는 인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 보면, 우선 연령별 분포에 있

어서 남성과 여성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표 4-3>. 남성 1인가구의 경우에는 반수에 가까운 48%가 25-34세 연령층에 속해 있는 반면에 이 연령층의 여성 1인가구비율은 16%에 불과하다. 그리고 50% 정도가 55세 이상의 연령층에 속해 있다. 한편 55세 이상의 남성 1인가구의 비율은 13% 정도에 불과하다.

<표 4-3> 1인가구의 지역 및 성별 연령분포 (1990년)

(단위 : %)

연령	전 국		시 부		군 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5-24	18.8	15.5	21.2	21.9	9.2	4.0
25-34	48.0	16.0	53.3	22.6	26.6	3.8
35-44	11.5	9.1	11.1	12.7	13.4	2.5
45-54	8.5	9.6	6.7	9.6	15.9	9.6
55-64	6.8	21.6	4.4	16.2	16.4	31.4
65-74	4.8	20.5	2.6	12.9	13.5	34.2
75 +	1.6	7.8	0.8	4.1	5.0	14.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지역 및 성별 표본 1인가구 인구는 다음과 같다.

전국: 남성(8,821) 여성(12,743)

시부: 남성(7,064) 여성(8,209)

군부: 남성(1,757) 여성(4,534)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볼 때, 상당히 높은 도시의 젊은 남성 1인가구 비율과 농촌의 노인 여성 1인가구 비율이 두드러진다. 도시 남성의 경우는 1인가구의 3/4에 이르는 대다수(74.5%)가 15-34세의 젊은 연령층에 속해 있으며, 농촌지역 여성의 경우는 1인가구의 대다수(80%)가 55세 이상의

노년층에 속해 있다. 도시 여성의 1인가구 비율을 보면 비교적 연령별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 나. 25-34세 미혼 1인가구의 특성 및 결정요인

우리 사회는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많은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경험해 왔다. 특히 여성의 노동력 참여, 교육 등에 있어서의 변화는 지대하다. 이러한 변화는 미혼 성인들의 가구 또는 가족형성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4> 25-34세 미혼인구의 성 및 교육상태별 1인가구형성자의 비율(1990년)

(단위 : %)

교육수준	남 성	여 성
국민학교	10.7 ( 188)	12.1 ( 44)
중학교	16.5 ( 602)	18.0 (196)
고등학교	15.9 (1,910)	16.0 (895)
전문대, 대학교	11.7 (1,110)	11.4 (415)
대학원	12.0 ( 82)	6.8 ( 18)

주 : 1) ( )안의 수는 각 성별, 교육상태별 25-34세 미혼인구집단의 표본 1인가구 인구임.

2) 비율은 각 성별, 교육상태별 25-34세 미혼인구에 대한 그 인구 집단의 1인가구수의 비율에 100을 곱한 것임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우선 25-34세 미혼인구의 교육수준에 따른 1인가구 성향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중학교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4>. 중학교 교육까지 받은 남성 인구의 16.5%, 여성인구의 18%가 혼자 살고 있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미혼의 경우로 남성의 15.9%, 여성의 16%가 홀로 살고 있다.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미혼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1인가구 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교육수준에 따른 1인가구 형성의 경향은 그들의 경제활동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4-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5-34세의 미혼인구 가운데 혼자 사는 사람의 비율은 현재 완전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와 전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 취업자의 1인가구형성 비율이 일이 없는 사람인 경우의 3배 가까이 된다. 이것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미혼의 경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4-5> 25-34세 미혼인구의 성 및 경제활동상태별 1인가구형성자의 비율(1990년)

(단위 : %)

경제활동상태	남 성	여 성
full-time으로 일함	17.3 ( 3,339)	17.5 ( 1,186)
part-time으로 일함	4.5 ( 41)	10.8 ( 37)
일은 있으나 쉬고 있음	25.3 ( 24)	27.6 ( 8)
일을 찾고 있음	6.8 ( 222)	16.3 ( 177)
전혀 일을 하지 않음	6.8 ( 285)	5.9 ( 164)

주 : 1) ( )안의 수는 각 성별, 경제활동상태별 25-34세 미혼인구집단의 표본 1인가구 인구임

2) 비율은 각 성별, 경제활동상태별 25-34세 미혼인구에 대한 그 인구집단의 1인가구수의 비율에 100을 곱한 것임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직업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서어비스직 종사자들과 생산직 종사자들 가운데 1인가구형성 비율이 높다. 이들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미혼자들은 5명 중 1명 꼴로 1인가구를 형성하고 있다<표 4-6>. 다음이 전문·기술직, 판매직의 순으로 나타난다. 미혼여성의 경우도 미혼남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거나 서어비스직 여성들의 경우 특히 높은 1인가구형성 경향(29.5%)을 보인다. 인구이동은 일반적으로 취업, 교육 등의 기회와 관련되어 있다. 개인이동의 경우 이동은 이동자와 가족과의 분리를 뜻한다. 물론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지만 성년의 미혼자의 이동은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개인이동이 일반적이다.

<표 4-6> 25-34세 미혼인구의 성 및 직업별 1인가구형성자의 비율(1990년)  
(단위 : %)

직업	남성	여성
전문·기술직	18.9 ( 189)	16.0 (219)
행정·관리직	13.6 ( 26)	19.2 ( 5)
사무직	14.4 ( 537)	13.0 (312)
판매직	17.3 ( 496)	19.8 (189)
서어비스직	21.2 ( 200)	29.5 (255)
농·어·축산업	2.9 ( 60)	0.6 ( 1)
생산 및 관련종사직	20.3 (1,757)	20.7 (205)

주 : 1) ( )안의 수는 각 성별, 직업별 25-34세 미혼인구집단의 표본 1인가구 인구수임.

2) 비율은 각 성별, 직업별 25-34세 미혼인구에 대한 그 인구집단의 1인가구수의 비율에 100을 곱한 것임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혼인구의 거주지이동은 1인가구의 증가에 기여한다. <표 4-7>, <표 4-8>에 제시되어 있는 이동상태에 따른 1인가구

<표 4-7> 25-34세 미혼인구의 성 및 1년간의 이동상태별 1인가구  
형성자의 비율(1990년) (단위 : %)

이동상태	전체	남성	여성
이동하지 않음	12.2 (4202)	12.1 (2977)	12.5 (1225)
군부-시부 이동	30.5 ( 297)	30.7 ( 230)	29.8 ( 67)
시부-군부 이동	24.0 ( 204)	26.2 ( 151)	19.3 ( 53)
시부-시부 이동	30.5 ( 655)	30.2 ( 461)	31.0 ( 194)
군부-군부 이동	30.3 ( 125)	32.3 ( 92)	26.0 ( 33)

주 : 1) ( )안의 수는 각 성별, 이동상태별 25-34세 미혼인구집단의 표본  
1인가구 인구임

2)비율은 각 성별, 이동상태별 25-34세 미혼인구에 대한 그 인구집단  
의 1인가구수의 비율에 100을 곱한 것임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표 4-8> 25-34세 미혼인구의 성 및 5년간의 이동상태별 1인가구  
형성자의 비율(1990년) (단위 : %)

이동상태	전체	남성	여성
이동하지 않음	8.7 (2371)	8.5 (1656)	9.3 ( 715)
군부-시부 이동	30.3 ( 915)	30.0 ( 709)	31.0 ( 206)
시부-군부 이동	23.7 ( 500)	25.1 ( 352)	20.9 ( 148)
시부-시부 이동	25.4 (1370)	25.5 ( 933)	25.1 ( 437)
군부-군부 이동	29.6 ( 327)	30.8 ( 261)	25.6 ( 66)

주 : 1) ( )안의 수는 각 성별, 이동상태별 25-34세 미혼인구집단의 표본  
1인가구 인구수임.

2)비율은 각 성별, 이동상태별 25-34세 미혼인구에 대한 그 인구집단  
의 1인가구수의 비율에 100을 곱한 것임.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성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989-1990년 사이 혹은 1985-1990년 사이에 거주지 이동<sup>19)</sup>을 한 25-34세 미혼자의 경우 이동을 하지 않았던 미혼자보다 혼자 사는 경향이 훨씬 높다.

1년 동안의 이동상태에 따르면, 전혀 이동하지 않은 미혼자의 12.2%가 1인가구에 살고 있는 반면에 농촌 혹은 도시에서 도시 혹은 다른 도시로 이동한 미혼자의 30.5%가 이주지인 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반대로 농촌으로 이동한 미혼자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의 1인가구 거주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4-7>. 좀 더 긴 기간인 5년 동안의 거주지 이동여부에 따른 1인가구 거주자 비율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표 4-8>.

개인의 가구구성 요인으로서는 여러 인구학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5-34세 미혼인구의 가구구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거주지, 성, 교육수준, 경제활동, 지난 1년간 이동상태, 지난 5년간 이동상태를 선택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미혼인구의 1인가구 형성에 거주지,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이동상태 요인들은 상당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 주지 않고 있다<표 4-9>.

변수별로 보면 우선 도시지역에의 거주, 낮은 교육수준이 25-34세 미혼자의 경우 1인 가구 형성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활동상태에 있어서는 취업이 1인가구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동상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혀 이동하지 않은 미혼자의 경우 혼자 사는 경향이 약하며,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경우에 비교적 높은 1인가구 거주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1인가구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에서 도시로의 이동은 1인가구 형성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지난 5년간의 이동상태에 따른 미혼인구의 1인가구 성향을 보면 역시 거주지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혼자 사는 경향이 약하

19) 여기서 이동은 1년 혹은 5년전 거주지와 현거주지가 다른 경우를 뜻한다.

다. 반면에 지난 5년간 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혼자들은 1년간 이동자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 5년 동안 농촌에서 도시로의

<표 4-9> 25-34세 미혼자의 1인가구거주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1990년)  
(Maximum Likelihood Logistic Regression: N=38,555)

변 수	Estimate
종속변수 :	
0 = 1인 가구	
1 = 1인 가구 아님	
거주지	
도시	0.4206***
농촌	
성별	
남성	-0.0330
여성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3166***
고등학교	0.1423***
전문대, 대학	-0.2197***
경제활동	
full-time일함	0.4762***
part-time 혹은 구직중	-0.0309
전혀 일 안함	
1년간 이동상태	
이동안했음	-0.2667***
군부-시부 이동	0.0545
시부-군부 이동	-0.0939
시부-시부 이동	0.1770**
군부-군부 이동	
5년간 이동상태	
이동안했음	-0.9574***
군부-시부 이동	0.2451***
시부-군부 이동	0.2691***
시부-시부 이동	0.0091
군부-군부 이동	

\*\*\*:  $p < 0.001$

\*\* :  $p < 0.01$

주 : 회귀분석은 PROC CATMOD Procedure (SAS)에 의해 수행되었고, 회귀계수는 각 변수의 마지막 범주의 경우 제시되지는 않지만 모든 범주의 회귀계수의 합은 "0"이 됨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이동은 1인가구 형성에 상당히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최소 5년간의 도시생활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반대로 지난 5년간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미혼 이동인구의 높은 1인가구 형성경향도 주목할 만하다.

#### 다. 여성노인 1인가구의 특성 및 결정요인

1인가구 인구의 비율이 높은 또 하나의 연령층은 노년층이다. 또한 이러한 노인들의 1인가구 인구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고찰한 바다.<sup>20)</sup> 혼자 사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가족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노인들의 가족(가구)생활의 변화는 결국 전체적인 가족체제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부부 중심의 핵가족화, 소규모 가족화의 영향으로 소외되고, 홀로 외롭게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90년 현재 60세 이상 노인인구 중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인구의 비율은 9%에 달한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3.2%, 여자노인의 12.8%가 혼자 살고 있다<표 4-10>.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인가구 비율은 전체가 9.5%, 남성 3.4%, 여성 13.1%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이 높아진다. 또한 노인인구의 1인가구 비율은 도시, 농촌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농촌의 경우 남성, 여성 모두 1인가구형성 비율이 도시보다 훨씬 높으며, 특히 농촌 여성노인의 경우는 도시 여성의 2배 가까운 1인가구 비율을 보인다. 즉 노인인구 중 혼자 사는 여성의 비율이 높고, 특히 농촌지역의

20) 자료의 비교성이 문제가 되지만 1988년의 인구보건연구원의 전국조사자료에 의하면(이가족 육 외 1989) 60세 이상 노인인구중 1인가구 거주자의 비율은 7.6%에 이른다. 이 자료로부터 우리는 최근에 노인 1인가구 비율의 증가가 상당히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혼자 사는 노인여성의 비율은 남성이나 도시 여성보다 단연 높게 나타난다.

노인 1인가구의 분석은 60세 이상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행하고 있다. 그것은 사망력의 차이 때문에 노인연령층 인구가 여성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1인가구 형성 비율도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4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인여성의 연령을 통상적인 65세 이상으로 하지 않고 60세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60-64세 여성들의 1인가구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표 4-10>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인구의 비율(1990)  
(단위 : %)

지역 /성	노인인구	
	60세 이상	65세 이상
전국/ 전체	9.0	9.5
남성	3.2	3.4
여성	12.8	13.1
시부/ 전체	6.8	7.0
남성	2.8	2.9
여성	9.3	9.2
군부/ 전체	11.6	12.4
남성	3.6	4.0
여성	17.1	17.9

자료: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우선 여성노인 1인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60%정도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표 4-11>, <표 4-12> 참조). 또한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남편과 사별한 노인이 1인가구를 형성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표 4-2〉 참조). 대부분 홀로 사는 여성노인들은 오히려 자녀들을 도시로 떠나 보낸 후 남편과 사별한 농촌 거주자라고 할 수 있다.

〈표 4-11〉 여성노인인구(60세 이상)의 지역 및 경제활동상태별 1인가구 인구비율 (1990년)

(단위 : %)

경제활동상태	전국	시부	군부
full-time일함	32.7(1202)	23.5( 211)	35.7( 991)
part-time 혹은 구직 중	11.7( 397)	19.9( 120)	9.9( 277)
전혀 일하지 않음	10.7(3610)	8.4(1796)	14.6(1814)
전체	12.8(5209)	9.3(2127)	17.1(3082)

- 주 : 1) ( )안의 수는 각 지역별, 경제활동상태별 여성노인 인구집단의 표본 1인가구 인구수임  
 2) 비율은 각 지역별, 경제활동상태별 여성노인인구에 대한 그 인구집단의 1인가구수의 비율에 100을 곱한 것임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이러한 60세 이상의 여성노인들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1인가구 성향을 보면 경제활동을 할수록 혼자 사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표 4-11〉). 그러나 혼자 사는 노인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도시지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며(2,127 1인가구 중 1,797가구로 84.4%), 농촌에서도 도시보다는 훨씬 낮지만 약 60%가량이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혼자 사는 노인여성의 대부분이 자식의 경제적 보조를 받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인여성은 현존 자녀의 수에 따라서 1인가구 형성비율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생존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1인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표 4-12>. 생존자녀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50%이상이 혼자 살고 있으며, 생존자녀가 하나인 때에는 20.9%가 혼자 살고 있으며, 자녀가 두명 이상 살아 있는 노인들 중에는 11%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출생자녀수가 많은 여성일수록 노후에 혼자 살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자 사는 노인여성들의 생존자녀수별 분포를 보면 2명 이상의 자녀가 살아 있는 경우가 80%이상 된다. 이것은 현재 노인여성들의 출산력이 매우 높았고 그간 사망력의 저하로 자녀들의 생존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표 4-12> 여성노인인구(60세 이상)의 지역 및 생존자녀수별  
1인가구 인구비율 (1990년)

(단위 : %)

생존자녀수	전국	시부	군부
0	51.5( 467)	49.7( 240)	53.5( 227)
1	20.9( 592)	16.2( 299)	29.6( 293)
2명 이상	11.0(4036)	7.5(1516)	15.3(2520)

주 : 1)( )안의 수는 각 지역별, 생존자녀수별 여성노인 인구집단의 표본 1인가구 인구수임

2)비율은 각 지역별, 생존자녀수별 여성노인인구에 대한 그 인구집단의 1인가구수의 비율에 100을 곱한 것임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이상의 고찰로써 우리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 특히 아들이 노 부모를 모신다는 관념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했을 경우, 이러한 규범적 요구는 더 강하게 작용한다. 농촌 여성노인의 경우 자녀가 모두 도시로 이동한 후 남편과 사별하였을 때 농촌에서 그대로 혼자 사는 확률이 높은 것은 사회심리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사회심리적 요인으로서 노인들이 생활세계를 바꾸기를 꺼린다는 점, 또한 농촌 커뮤니티가 그들의 최소한의 심리적 안정과 기타 보호를 보장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농촌의 노인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생활이 가능하다.

<표 4-13> 여성노인인구(60세 이상)의 1인가구 거주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1990년)  
(Maximum Likelihood Logistic Regression: N=40,272)

변 수	Estimates
종속변수 : 0 = 1인 가구 1 = 1인 가구 아님	
거주지 시부 군부	-0.3356***
혼인상태 결혼	-2.3301***
사별	0.5650***
이혼	
생존자녀수 없음	1.2207***
1명	-0.3013***
2명 이상	
경제활동 full-time일함	0.7943***
part-time 혹은 구직중	-0.0523
전혀 일 안함	

\*\*\* :  $p < 0.001$

주 : 회귀분석은 PROC CATMOD Procedure (SAS)에 의해 수행되었고, 회귀계수는 각 변수의 마지막 범주의 경우 제시되지는 않지만 모든 범주의 회귀계수의 합은 "0"이 됨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60세 이상 노인 여성인구의 1인가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기 위하여 우리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요인은 거주지, 혼인상태, 생존자녀수, 그리고 경제활동상태로 그 결과는 <표 4-1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의하면 거주지, 혼인상태, 출산력, 경제활동 모두가 60세 이상 노인여성들의 1인가구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의 경우, 노인 여성이 도시에 거주할수록 혼자 사는 경향이 작으며, 이것은 25-34세 젊은 미혼인구의 경우와 반대이다. 또한 당연한 결과이지만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한 노인 여성이 혼자 사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우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훨씬 크고,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혼자 사는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 노인가구

사회변동과 인구변천에 따라 대두되는 가족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문제중의 하나가 노인문제이다. 사망률이 떨어지면 인구의 고령화현상이 나타나고, 다시 출산력이 떨어지면 노인인구 비율과 함께 부양부담이 늘어난다. 또한 도시의 주택문제 및 지가 상승 그리고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이동, 가족생활규범의 변화는 노인만의 가구 또는 가족의 증가를 가져 왔다. 노인의 부양이 전통적으로 가족안에서 이루어져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는 이제는 노인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인가구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으며, 정책적으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표 4-14〉 노인인구(65세 이상)의 지역 및 성별 노인가구 인구비율 (1990년)  
(단위 : %)

노인가구유형	전 국		시 부		군 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부부가구(1)	15.4	9.1	10.7	5.8	20.1	13.2
부부가구(2)	14.4	0.2	11.3	0.1	17.6	0.3
기타친족가구	0.3	0.5	0.2	0.2	0.4	0.7
1인가구	3.4	13.1	2.9	9.2	4.0	17.9
비친족가구	0.4	0.6	0.3	0.5	0.4	0.7
비노인가구	66.1	76.5	74.6	84.1	57.5	67.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노인가구유형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①부부가구(1) :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로 모두 65세 이상인 가구  
 ②부부가구(2) : 부부만 사는 가구이나 부부중 한사람만 65세 이상인 가구  
 ③기타 친족가구: 부부가 아닌 혈연관계의 65세 이상노인들만이 사는 가구  
 ④1인가구: 65세 이상의 노인 혼자 사는 가구.  
 ⑤비친족가구: 혈연관계가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들만이 사는 가구

(2) 지역 및 성별 표본 노인인구(65세 이상)의 수는 다음과 같다.

전국: 남성(16,282) 여성(27,447) 시부: 남성(8,199) 여성(15,148)

군부: 남성(8,083) 여성(12,299).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 가. 노인가구의 유형과 특성

여기에서 노인가구는 노인(들)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노인과 그 배우자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뜻한다. 우선 '노인'은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노인들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일반가구 전체의 4.1%정도 가 되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노인만이 사는 가구에 사는 노인의 비율은 남자 노인의 경우 33.9%, 여자 노인의 경우 23.5%에 달하고 있다<표

## 4-14&gt;.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구를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노인부부가구를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두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이며 둘째는 부부 중 한 사람만 65세 이상인 경우이다. 셋째로 부부이외의 혈연관계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만이 사는 경우 기타 노인친족가구로 분류하였다. 넷째는 노인 혼자 사는 가구와 다섯째는 전혀 친족관계가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들로만 구성된 비친족가구이다.

<표 4-14>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가구유형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 남자 노인의 경우 33.9%가 노인가구에 살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29.8%) 부인과 둘이서만 사는 부부가구를 형성하고 있다. 다른 형태의 가구에 사는 노인은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인다. 남자노인 1인가구의 비율은 3.4%로 여자노인의 것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 여자노인 가운데 혼자서 사는 비율은 13.1%에 달한다. 그리고 두번째 유형의 부부가구의 경우 남자와 여자 사이에 커다란 비율의 차이가 있다. 남성노인 중 이 형태의 가구를 형성하는 사람은 14.4%인데 여성의 경우는 0.2%에 불과하다. 이것은 보통 부부간에 남편이 부인보다 연령이 높는데 기인한다. 또한 남자 노인들이 부인과 사별한 후 낮은 연령의 여성과 재혼하는 성향도 이러한 현상에 어느 정도 공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가구에 사는 노인들의 비율은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도시에 거주하는 남자 노인들 중 25.4%가 노인가구에 살고 있는 반면 농촌에서는 42.5%의 노인들이 노인가구에 살고 있다. 여자의 경우는 그 비율이 도시와 농촌에서 각각 15.9%와 32.8%를 보인다. 부부가구에 사는 노인들의 비율도 농촌과 도시 사이에 약 2배의 차이가 난다. 가족구조에 있어서 확대가족의 비율이 농촌이 도시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역간의 차이는 가족제도의 차이보다는 도시와 농촌간의 연령 선택적인 인구이동의



결과로 해석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농촌 여자노인들의 1인가구 비율이다. 65세 이상의 농촌 노인가구거주 여성 중 1인가구에 사는 사람은 17.9%로 다른 어떠한 형태의 노인가구에 사는 사람들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노인가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 불안정이다. 우리 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혁신의 도입,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과거 산업화 이전 시대와는 달리 노인들의 직업적 지위는 저하되었으며, 더군다나 도시지역에서의 고용기회의 증가는 농촌의 노부모와 도시 자녀간의 가족분리를 가져왔다. 한편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의 부양은 가족내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노인만의 가구의 증가는 노인부양에 있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수 없다.

노인가구의 경제적 안정은 물론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자녀들의 재정적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노인가구의 경제적 안정은 결국 노인들의 복지문제와 결부하여 생각할 수 있다. 노인들의 노후에 대한 사회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 모아 둔 재산이 많이 있거나 혹은 자녀들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있다면 경제적 곤란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노인들의 고용확대, 복지증진, 주택문제 해결 등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한편 현재 노인층 인구의 대부분이 스스로 노후를 위해 부를 축적하거나 제도적인 마련을 할 수 없었던 세대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불안정과 관련하여 노인가구의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노인가구의 경제적 안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인구센서스가 제공하는 자료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노인들은 대부분이 이미 경제활동을 그만 둔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경제활동상태

<표 4-15> 노인인구의 지역, 성 및 가구의 경제상태에 따른 노인가구 인구비율 (1990년) (단위 : %)

노인가구유형/ 경제상태	전 국		시 부		군 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부부가구(1)/						
안정가구	41.8	41.8	16.8	16.8	55.4	55.4
다소 안정가구	5.8	5.8	4.8	4.8	6.4	6.4
불안정가구	52.3	52.3	78.4	78.4	38.2	38.2
부부가구(2)/						
안정가구	57.7	64.7	32.4	50.0	74.2	74.2
다소 안정가구	6.6	5.9	5.1	-	7.7	9.7
불안정가구	35.7	29.4	62.5	50.0	18.2	16.1
기타 친족가구/						
안정가구	57.8	46.0	37.5	33.3	69.0	51.1
다소 안정가구	8.9	11.3	-	-	13.8	15.9
불안정가구	33.3	42.7	62.5	66.7	17.2	33.0
1인가구/						
안정가구	28.2	17.2	17.0	6.5	36.3	24.0
다소 안정가구	4.5	6.0	1.3	3.5	6.8	7.6
불안정가구	67.3	76.8	81.7	90.0	56.9	68.4
친족가구/						
안정가구	26.3	16.6	21.7	11.5	29.4	21.2
다소 안정가구	1.8	3.7	-	5.1	2.9	2.4
불안정가구	71.9	79.8	78.3	83.3	67.6	76.5
비노인가구/						
안정가구	86.1	86.6	83.9	85.4	89.0	88.3
다소 안정가구	3.7	3.5	2.5	2.2	5.2	5.4
불안정가구	10.3	10.0	13.7	12.4	5.8	6.3
전 체 /						
안정가구	72.9	72.7	68.7	73.6	77.2	71.6
다소 안정가구	4.5	4.1	3.0	2.5	6.0	6.0
불안정가구	22.7	23.2	28.4	23.9	16.9	22.4

주 : 노인가구유형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① 부부가구(1) :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로 모두 65세 이상인 가구
  - ② 부부가구(2) : 부부만 사는 가구이나 부부중 한사람만 65세 이상인 가구
  - ③ 기타 친족가구 : 부부가 아닌 혈연관계의 65세 이상노인들만이 사는 가구
  - ④ 1인가구 : 65세 이상의 노인 혼자 사는 가구
  - ⑤ 비친족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들만이 사는 가구
- 가구의 경제적 안정은 가구원들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분류하였다.
- ① 안정가구 : 가구 내에 전업으로 일하는 가구원이 최소한 1명 있는 가구
  - ② 다소 안정가구 : 가구 내에 전업자는 없으나 부업으로 일하는 가구원이나 임시직을 가지고 있는 가구원이 최소한 1명 있는 가구
  - ③ 불안정가구 : 가구 내에 일하는 가구원이 전혀 없는 가구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나 현재의 소득을 가지고 경제적 안정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인들의 경우 생활수준과 생활양식을 경제적 안정도의 척도로 삼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한성 때문에 노인가구 가구원들의 경제활동상태를 일단 경제적 안정도의 척도로 사용하였다. 경제활동은 가구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제적 안정을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노인가구의 경제적 안정은 노인들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가구 내에 전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최소한 한 사람 있을 경우 경제적 안정가구로 보았고, 두번째로 전업으로 일하는 가구원은 없으나 부업의 일이나 임시직을 가지고 있는 가구원이 최소한 한 명 있는 경우에는 다소 안정된 가구로, 그리고 가구내에 일하는 가구원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불안정 가구로 분류하였다.

<표 4-1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노인만이 사는 가구의 경우 노인이 다른 젊은 가족원과 함께 사는 가구에 비해서 경제적 안정가구의 비율이 훨씬 낮다. 노인가구가 아닌 가구에 사는 노인들의 경우 86.1%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반면에 노인가구의 노인들은 훨씬 낮은 비율의 안정도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불안정한 가구는 노인 1인가구와 비친족가구로 나타난다. 노인 1인가구의 경우 여성 노인 1인가구가 훨씬 더 불안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노인 부부가구나 기타 친족가구의 경우에는 반 수 정도의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농촌지역에서는 아직도 농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도시보다는 활발하다. 특히 도시지역의 노인 부부가구(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가구)와 도시 노인

1인가구 가구의 경제활동은 매우 낮다. 이러한 점은 도시에 노인 노동의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도시 노인가구의 문제가 농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 1인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을 살필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는 주택소유 여부이다. 노인 1인가구의 경우 다른 형태의 노인가구에 비하여 소유율이 69.7%로 매우 낮다. 월세나 무상으로 사는 1인가구도 20% 가까이 된다<표 4-16>.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84.7%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6> 노인가구의 가구유형별 소유형태분포 (1990년)  
(단위 : %)

소유형태	가 구 유 형			
	부부가구	기타친족가구	1인가구	비친족가구
자기집	84.7	95.5	69.7	72.8
전세	6.8	-	9.4	11.1
보증부월세	2.4	-	2.9	2.5
월세	2.7	-	8.6	7.4
무상	3.4	4.5	9.4	6.2
전체	100.0	100.0	100.0	100.0

주 : 각 가구유형별 표본 노인가구의 수는 다음과 같다.

부부가구(4,909) 기타 친족가구( 67)

1인가구(4,161) 비친족가구( 162)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 나. 노인가구 가구주의 특성

노인가구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남성 가구주의 경우 유배우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로 부부가구를 형성하고 있다. 가구주의 연령별로 보면 65-69세에서는 91.6%가 유배우 가구주로 노인 부부가구를 형성하고 있고, 70-74세에서는 91%, 75세 이상의 남성 가구주 경우는 88.1%이다<표 4-17>. 연령별 혼인상태 분포에서 볼 수 있듯이 부부가구의 비율이 노령 가구주 가구일수록 낮아진다. 이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사망 수준이 높고 부부가 모두 살아 남아 있을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인과 사별하고 다른 형태의 가구를 형성하고 사는 남성 가구주의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표 4-17> 노인가구 가구주의 성 및 연령별 혼인상태분포(1990년)  
(단위 : %)

연령/혼인상태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65-69세/		
미혼	0.1	0.9
유배우	91.6	7.1
사별·이혼	8.2	92.0
70-74세/		
미혼	-	1.8
유배우	91.0	4.1
사별·이혼	9.0	94.0
75세 이상/		
미혼	-	1.1
유배우	88.1	3.9
사별·이혼	11.9	95.0

자료: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여성 가구주는 남성 가구주와는 대조적으로 남편과 사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부가 모두 살아 있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남자가 가구주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부부가구가 아닌 경우가 주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여성 가구주의 연령별 혼인상태 분포에도 나타나듯이, 남편과 사별한 후 노인가구의 가구주가 된 여성이 65-69세 연령층에서는 92%, 70-74세 연령층의 경우 94%, 75세 이상은 95%로 이러한 여성노인 가구들은 남편과 사별 후 주로 혼자 살거나, 다른 친족과 혹은 비친족인과 함께 살고 있다.

<표 4-18> 노인가구 가구주의 성 및 연령별 경제활동상태분포(1990년)  
(단위 : %)

성별 / 연령		경제 활동 상태					전체
		전혀 일을 하지 않음	full-time 으로 일을 하고 있음	part-time 으로 일을 하고 있음	일 있으나 잠시 쉬고 있음	일을 찾고 있음	
남성	65-69세	38.8	54.8	5.0	0.1	1.4	100
	70-74세	50.9	43.1	5.2	-	0.8	100
	75세 이상	71.4	26.0	2.4	-	0.2	100
여성	65-69세	66.2	25.6	7.6	-	0.6	100
	70-74세	79.1	15.1	5.5	-	0.3	100
	75세 이상	89.4	6.5	3.9	-	0.1	100

자료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노인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남성 가구주 가구와 여성 가구주 가구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눈에 띈다. 연령별로 볼 때 65-69세 집단

에서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남성 가구주는 38.8%인데 반해 여성 가구주는 66.2%나 되며, 70-74세 연령에서는 가구주가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남성이 50.9%, 여성이 79.1%임을 알 수 있다(표 4-18). 여성 가구주 가구의 높은 경제적 불안정성과 이러한 가구의 대부분이 노인 여성이 혼자 사는 가구라는 점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바로 노인 불안정가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1인가구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V. 요약 및 결론

1960-90년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나라가 전통적인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탈바꿈한 시기이다. 우리 사회는 이 기간에 엄청난 경제성장과 공업화를 이루었고, 농촌중심 사회에서 도시중심 사회로 바뀌었고, 인구변천의 마지막 단계인 출산력 변천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사회의 전반적인 재구성은 모든 부분에서 관찰된다. 가족생활의 변화도 이와 같은 전체 사회적인 변화의 하나로 간주된다. 또한 가족생활의 변화원인으로서 공업화, 도시화, 인구변천 등이 논의되기도 하고, 그 결과로서 각종 사회문제를 논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생활 변화의 구체적인 양상과 조건, 요인, 결과 및 함의에 대한 논의는 이제까지 별로 없었다. 그것은 가족과 가구에 대한 연구를 위한 이론적인 틀과 방법의 결여, 실증적인 자료의 부족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센서스를 통한 가구와 가족에 대한 기초 자료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 자료 분석을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66년 이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가구와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센서스를 통해 수집 제표되었다. 이 자료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전환기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가구와 가족의 변화를 조망할 수 있게 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 자료의 분석은 우리 사회에서 가구 및 가족의 변화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면서 진행되었는가를 이해하는데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으며 그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피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생각이 이 연구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 연구는 199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특별 분석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구와 가족에 대한 논의를 주로 인구학



적 관점에서 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도 센서스 보고서와 1990년 센서스 2% 표본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1990년 센서스에서 관찰된 여러 가지 가구 및 가족과 관련된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을 이전의 센서스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는 가구와 가족의 각종 변화의 양상과 정도를 알려주며, 따라서 1990년에 관찰된 사항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비교적인 관점에서의 고찰은 1966년 이후의 센서스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주로 가구 및 가족 규모의 변화, 가족의 세대구성과 형태별 구성의 추이, 그리고 가구주를 중심으로 한 가구 및 가족에 대한 논의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보다 심층적인 분석에는 1990년 센서스 2% 표본자료가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가구 및 가족형태 각각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가족해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1인가구, 노인 부부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경제적 불안정 가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을 하였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먼저 센서스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1960년대 이후의 가구 및 가족구성의 변화 유형에 대해 정리해 보자.

1960년 이후 우리 사회는 가구구성에 있어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우선 출산력 저하에 따른 가구원수의 급격한 감소가 관찰된다. 지역별 가구원수 감소의 변화 유형도 대체로 지역별 출산력 변화의 유형과 일치한다. 즉 초기의 도시 중심의 출산력 저하가 일어났을 때에는 도시에서, 그리고 최근에 농촌에서 보다 급격한 출산력 저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농촌에서 더 큰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가 관찰된다.

일반적으로 근대화 이론에 따르면 도시화와 산업화는 도시지역에서의 가족의 해체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친족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 또한 가족해체의 지표로서 흔히 사용되는 1인가구의 비율도 농촌에서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도시의 1인가구는 미혼의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어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다. 반대로 농촌의 1인가구는 노인층에 몰려 있다. 농촌 1인가구의 증가는 노인만의 가족의 증가와 함께 농촌사회의 변화의 양상과 문제의 이해에 중요한 요소로서 간주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젊은 층의 지속적인 대규모 이촌향도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해 설명된다.

전국적으로 1960년대 이후의 가족구성의 변화는 1-2세대 가족 및 핵가족 비율의 증가와 3세대 이상 가족 및 확대가족의 감소로 요약된다. 이는 한마디로 이 시기에 핵가족화 현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핵가족 비율의 증가는 별로 크지 않았고, 그것도 주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농촌의 이러한 현상은 노인부부만이 사는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는 서구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도시화와 산업화는 도시에서 핵가족화를 촉진시킨다는 명제에는 전혀 맞지 않는 관찰이다. 또한 아직 근대화 및 경제발전의 영향이 느껴지지 않았던 1960년대에 핵가족 지배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직계가족도 소위 가부장적 확대가족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양친이 동거하는 경우는 35%에 불과하고, 편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인구학적 조건과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함께 고려할 때, 우리 전통사회의 지배적인 실제 가족형태는 핵가족이었고 규범적으로 이상화되어 있던 가부장적 확대가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을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확인할 수 있다.

여성 가구주의 비율은 두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이는 불안정 가족의 정도나 가족해체의 지표로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는 이를 가족의

기능과 가족 성원들 사이의 역할구조의 변화로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비율은 1966-90년 사이에 약간 증가해 1990년 현재 15.7%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가구주 비율의 증가는 거의가 농촌에서 관찰된다. 도시에서는 비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또한 여성 가구주 가구 대부분이 소규모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관찰과 함께, 도시에서 미혼 여성의 독신가구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점, 혼인이 아직도 보편적이라는 점, 그리고 농촌에서는 여성가구주 비율의 증가가 대부분 노인 1인가구 또는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노인가구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가족기능과 가족성원들의 역할구조는 서구의 것과 완전히 다르며, 도시의 가족은 매우 안정적이고 농촌에서는 가족해체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그들이 생활하는 가족의 구성이 완전히 달라진다. 대체적으로 남성의 혼인이 끝나고 재생산이 시작되는 20대 후반부터 재생산이 끝나는 40대 중반까지는 2세대 핵가족이 압도적이다. 그 이전에는 1세대 미혼 형제가족이 주를 이루고 40대 후반부터는 어떤 한가지 형태의 가족구성이 지배하는 경향이 점차 줄고 모든 형태의 가족구성이 혼재하는 경향이 강화된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에서 더 뚜렷하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별 가족구성의 유형은 그것이 바로 가구주의 가족 생활주기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실이 우리의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우리 사회가 경험해 온 가구 및 가족 성격의 변화는 표면적으로 소가족화, 친족가구 비율의 감소, 핵가족 비율의 증가, 1인가구, 노인가구의 증가 등 가구분화와 가족해체현상으로 특징지어지지만, 그 변화의 내면적 양상을 보면 과거 서구사회가 경험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는 가구 및 가족체계의 변화는 가족의 기능과 가족성원들의 역할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이었기보다는 오히려 인구학적 변화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지역간의 불균형적인 인구이동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구 및 가족체계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가족체계의 변화양상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두드러진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가족해체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는 인구학적, 사회적 변화의 필연적 결과로 해석된다.

출산력과 사망력의 저하로 특징지워지는 인구학적 변천, 도시화, 인구 이동, 새로운 가족관념의 도입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 관찰되는 외면적인 가족 생활주기의 조건은 많이 달라졌다. 결혼전에도 부모의 집에 거주하지 않는 미혼자들이 많아졌고, 결혼후에도 바로 분가하여 사는 핵가족이 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자녀가 성장한 후, 혹은 자녀가 출가한 후 노인(들)만이 남는 가구도 많아졌다. 최근 들어 나타나는 이러한 가구 및 가족형태의 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1990년 인구센서스 2%표본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을 통하여 관찰된 것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결혼전의 미혼인구 집단은 부모의 가족에서 다른 형제, 자매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직까지 일반적이다. 이러한 미혼자녀의 부모중심가족(Family of Orientation)에서 생활하는 양상은 자녀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라지게 된다.

젊은 미혼자들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것은 대부분이 교육, 취업 등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여 혼자 살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들 젊은 층 미혼자들의 1인가구 거주비율의 급속한 증가가 도시에서 관찰되었지만, 최근 들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도시에서 자란 미혼자들의 1인가구형성의 경향이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자녀들이 결혼 전에 부모의 집을 떠나 1인가구 또는 비친족가구를 형성하게 되는 경향이 보편화되리라고 상정하

기는 어렵다.

한편 나이가 많은 미혼자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앞으로 쉽게 결혼하기 힘든, 혹은 “영구히” 결혼하지 않을 인구집단으로서 이들에게는 현재의 가구가 결혼 전에 거주하는 임시가구라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살아야 할 영원한 가구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능력이 된다면 혼자 독립해 살거나 비슷한 형편의 친족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가구를 구성하려는 경향이 높게 된다. 따라서 아직은 결혼이 보편적이지만, 결혼율이 떨어지고, 여성 노동력 참여가 증가하고, 가치관이 변화하여 독신생활을 선호하는 성향이 커지면 나이가 많은 미혼인구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미혼인구의 1인가구거주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방향으로의 가족규범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자기자신의 가족 생활주기가 시작된다. 최근 유배우 인구의 가구형태 분포를 보면 결혼 후 분가로 인한 핵가족화 추세가 분명해진다. 이러한 부부, 자녀중심의 핵가족 성향은 농촌보다 도시에서 두드러진다. 그러나 핵가족 구성으로 볼 때 「부부」만의 가족 비율은 농촌이 도시의 2배에 달하는데, 이것은 농촌의 높은 노인 부부가족의 비율에 기인한다. 한편 30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도시의 「부부」가족형태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농촌의 2배정도가 된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무자녀 규범이 널리 용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유배우 인구 중 결혼 후 첫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이 도시에서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연령집단별 가족형태 및 세대구성 분포의 관찰을 통해 최근의 가족 생활주기상의 특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주기의 시작인 결혼에 의한 생식가족(Family of Procreation)의 형

성은 25-29세 연령층을 전후로 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첫 자녀 출산으로 인한 가족확대기로의 전환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진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족확대기 기간은 출산력에 의해 결정되지만 1990년 현재까지는 그 기간이 남자 40대 초반, 여자 30대 후반까지로 비교적 길다. 그리고 도시가 농촌에 비하여 그 기간이 훨씬 짧게 나타난다. 가족확대기 단계에서의 가족구성에 있어서도 도시와 농촌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 기간에 핵가족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도시에서 훨씬 많고, 농촌에서는 양친이나 편친을 모시고 직계 확대가족 체제에서 사는 경우가 도시에 비해 훨씬 많다.

자녀가 결혼하기 시작하여 자녀 모두가 결혼하기까지의 단계인 가족축소기는 출생자녀수와 출산간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녀가 결혼을 하여 동지를 떠나게 되는 단계는 40대 후반, 50대 초로 이 기간 중 특징적인 것은 「부부」가족의 비율이 다시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가 모두 출가한 후 부부만이 사는 경우가 늘고 있음으로 해석된다. 특히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농촌의 「부부」가족의 비율은 1960년대부터 광범하게 나타나는 젊은 층의 이혼향도현상의 결과이다. 가족 구성원의 성별로는 이 기간에 「부부」가족에서 사는 경우가 남성이 훨씬 많고 또한 부부가 출가한 자녀의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도 남성이 훨씬 많은 반면에, 「편모+부부+(자녀)」가족형태에서 사는 경우는 여성에게서 많은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결국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해 가족해체기 단계에 들어서는 확률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으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높은 연령층에서의 여성의 생존율이 남성보다 높고, 남편의 평균연령이 부인보다 높으며, 남자의 경우 부인이 먼저 죽게 되었다라든가 재혼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가족해체의 원인으로서의 배우자와의 사별 혹은 이혼은 최근 들어 가구 혹은 가족을 다룰 때 특별한 관심이 되고 있다. 이것은 여성가구주 가구,

편모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여성 노인(들)만의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도시에서보다 농촌에서 모두 높다.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가구주들의 대부분은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이 모두 도시로 이동하여 농촌에 홀로 남은 여성들로서 주로 45세 이상의 연령층에 속한다. 이러한 관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록 혼자 사는 노인 여성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자녀 특히 아들이 노부모를 모신다는 관념이 지배적으로 남아있고,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규범적 요구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함께 살 자녀가 있으면서도 홀로 사는 농촌 노인여성들의 경우는 이들 자녀가 도시로 이주했다는 점 이외에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젊은 층에 비해서 자기들이 평생 익숙한 생활세계를 바꾸기 힘든 점과 농촌에서 최소한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는 노인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생활을 꾸려가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한편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 여성들의 경우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사는 확률이 낮은 것은 경제적 이유가 크게 작용하며, 여러 가지 도시환경이 노인 여성들이 혼자 지내기에 적합치 못한 것도 주 이유의 하나로 여겨진다.

노인가구의 특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노인가구에 사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남성들이 살고 있는 노인가구는 대부분이 「부부」 가구인 반면에 여성들이 이루는 노인가구는 반수 이상이 1인가구다. 도시와 농촌간의 연령선택적인 인구이동의 결과로 노인인구 중 노인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은 도시에서보다 농촌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현재 노인 가운데에는 스스로 노후를 위해 부를 축적해 두었거나 제도적으로 노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노인(들)만이 사는 가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 불안정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노인가구의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불안정한 가구로 관찰된 노인 여성 1인가구와 비친족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커다란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도시의 경우 노인 노동의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도시 지역의 노인 부부가구와 1인가구 가구원의 경제 활동이 무척 빈약하다는 점은 도시 노인가구 문제의 심각성의 일면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가구 및 가족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가구의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 ▣ 참고 문헌 ▣

### <한국문헌>

- 공세권 외 (1987). 「한국가족구조의 변화」,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공세권 외 (1990).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가옥 외 (1989). 「노인가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이해영 (1978). 「가족」, 이해영·권태환 (편) 「한국사회: 인구와 발전」,  
서울: 서울대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 , 권태환 (1968). “한국 가족형태의 한 연구”, 「동아문화」 8.
- 최봉호 (1990). “우리 나라의 가구 및 가족구조의 변동”, 「우리 나라 인구  
변동의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재석 (1966). 「한국가족연구」, 민중서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우리 나라의 가구변동과 그 전망」 (내부자료).

## 〈자료〉

경제기획원 (1963). 「1960 인구주택 국세조사보고: 제2권 20% 추출 집계 결과」 11-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68). 「1966 인구센서스보고」.

————— (1973). 「1970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 (1977). 「1975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 (1982). 「1980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 (1985). 「1985 인구 및 주택센서스 인구종합분석보고서」.

————— (1987). 「1985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내무부 통계국 (1959). 「대한민국 제1회 간이 총 인구조사 보고: 전국편」.

통계청 (1992). 「1990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외국문헌>

- Angel, Ronald, and Marta Tienda. 1982. "Determinants of Extended Household Structure: Cultural Pattern or Economic Ne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1360-83.
- Becker, Gary S.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Bongaarts, J. 1983. "The Formal Demography of Families and Households: An Overview." *IUSSP Newsletter* 17.
- \_\_\_\_\_, T. K. Burch, and K. W. Wachter (eds.). 1987. *Family Demography: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 Clarendon Press: Oxford.
- Burch, Thomas K. 1967. "The Size and Structure of Famil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Census Dat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2:347-63.
- \_\_\_\_\_, and Beverly J. Matthews. 1987. "Household Formation in Developed Societ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3(3):495-511.
- Hareven, Tamara K. 1976. "Modernization and Family History: Perspectives on Social Change." *Signs* 2:190-206.
- Keyfitz, Nathan. 1987. "Form and Substance in Family Demography."

- Bongaarts and others (eds.), *Family Demography: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 Oxford: Clarendon Press.
- Kim, Yun. 1966. *The Population of Korea 1910-45*. Unpublished Ph.D. thesi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Kobrin, R. E. 1976. "The Fall in Household Size and the Rise of the Primary Individuals in the U.S." *Demography* 13:127-138.
- Kuroda, T. 1991. "Structural Change of Age Composition in the Future and Its Socio-Economic Implications." Pp. 89-95 in *Population Aging in Asia*. Asian Population Studies Series No. 108 Bangkok: ESCAP.
- Kwon, Tai-Hwan. 1977. *Demography of Korea: Population Change and Its Components 1925-66*.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Kwon, Tai-Hwan. 1992. "Social Change and Family System in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mpact of Fertility Decline on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me Strategies. Seoul: KIHASA.
- \_\_\_\_\_, and others. 1976. *The Population of Korea*. Seoul: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Laslett, Peter. 1972. "Introduction: The History of the Family." Pp. 1-89 in *Household and Family in Past Time*, edited by Peter Laslett

(Manual VII).

Wolf, Douglas A., and Beth J. Soldo. 1988. "Household Composition Choices of Older Unmarried Women." *Demography* 25(3):387-403.

(Manual VII).

Wolf, Douglas A., and Beth J. Soldo. 1988. "Household Composition Choices of Older Unmarried Women." *Demography* 25(3):387-403.

< 부      록 >

〈표 부-1〉 일반가구 가구주의 연령별 평균가구원수, 1975-90

(단위 : 명)

가구주 성·연령/년도	1975	1980	1985	1990
계 /		(a) 전 국		
15세 이하	3.15	2.81	2.44	1.78
15-24세	2.86	2.52	2.22	2.06
25-29세	3.56	3.33	3.07	2.73
30-34세	4.63	4.29	3.98	3.59
35-39세	5.58	5.01	4.53	4.07
40-44세	5.72	5.41	4.84	4.36
45-49세	5.75	5.31	4.87	4.40
50-54세	5.48	4.90	4.54	4.18
55-59세	5.15	4.59	4.09	3.76
60세 이상	4.64	4.13	3.58	3.21
남성 /				
15세 이하	3.36	3.05	2.61	1.67
15-24세	3.17	2.72	2.41	2.18
25-29세	3.63	3.40	3.16	2.82
30-34세	4.70	4.36	4.07	3.67
35-39세	5.71	5.12	4.65	4.18
40-44세	6.17	5.59	5.01	4.50
45-49세	6.12	5.59	5.09	4.60
50-54세	5.87	5.28	4.84	4.42
55-59세	5.54	4.99	4.48	4.06
60세 이상	5.06	4.59	4.05	3.62
여성 /				
15세 이하	2.44	2.38	2.20	1.88
15-24세	2.10	2.16	1.97	1.93
25-29세	2.59	2.53	2.15	1.94
30-34세	3.48	3.25	2.76	2.37
35-39세	4.01	3.73	3.24	2.80
40-44세	4.10	3.94	3.53	3.10
45-49세	3.87	3.76	3.50	3.18
50-54세	3.62	3.44	3.20	3.02
55-59세	3.26	3.12	2.84	2.72
60세 이상	2.84	2.65	2.37	2.26

(계속)



〈표 부-1〉 (계속)

(단위 : 명)

가구주 성·연령/년도	1975	1980	1985	1990
계 /		(b) 시 부		
15세 이하	2.71	2.62	2.40	1.76
15-24세	2.49	2.39	2.14	2.03
25-29세	3.34	3.20	2.95	2.68
30-34세	4.40	4.14	3.87	3.53
35-39세	5.26	4.81	4.39	4.00
40-44세	5.30	5.23	4.72	4.28
45-49세	5.64	5.29	4.87	4.40
50-54세	5.51	5.02	4.68	4.30
55-59세	5.24	4.80	4.30	3.95
60세 이상	4.78	4.38	3.90	3.45
남성 /				
15세 이하	2.85	2.81	2.52	1.65
15-24세	2.72	2.54	2.30	2.13
25-29세	3.42	3.27	3.06	2.77
30-34세	4.48	4.21	3.96	3.62
35-39세	5.40	4.93	4.51	4.12
40-44세	5.92	5.42	4.89	4.43
45-49세	6.04	5.59	5.11	4.60
50-54세	5.95	5.42	5.01	4.55
55-59세	5.70	5.23	4.71	4.25
60세 이상	5.27	4.87	4.38	3.85
여성 /				
15세 이하	2.42	2.27	2.21	1.86
15-24세	2.13	2.17	1.98	1.94
25-29세	2.51	2.46	2.12	1.93
30-34세	3.27	3.10	2.67	2.32
35-39세	3.83	3.55	3.13	2.73
40-44세	4.09	3.86	3.46	3.06
45-49세	4.02	3.83	3.55	3.19
50-54세	3.92	3.67	3.38	3.12
55-59세	3.64	3.47	3.15	2.90
60세 이상	3.32	3.09	2.84	2.58

(계속)

&lt;표 부-1&gt; (계속)

(단위 : 명)

가구주 성·연령/년도	1975	1980	1985	1990
계 /		(c)	읍 부	
15세 이하	2.94	2.83	2.56	1.79
15-24세	2.99	2.69	2.38	2.19
25-29세	3.61	3.53	3.28	2.98
30-34세	4.65	4.45	4.13	3.77
35-39세	5.58	5.18	4.73	4.23
40-44세	5.92	5.57	5.02	4.54
45-49세	5.72	5.41	4.95	4.44
50-54세	5.36	5.00	4.57	4.13
55-59세	5.13	4.67	4.13	3.75
60세 이상	4.61	4.22	3.58	3.20
남성 /				
15세 이하	3.14	3.25	2.73	1.66
15-24세	3.31	2.92	2.60	2.40
25-29세	3.68	3.59	3.36	3.06
30-34세	4.71	4.51	4.19	3.83
35-39세	5.70	5.28	4.82	4.32
40-44세	6.15	5.74	5.19	4.67
45-49세	6.08	5.67	5.16	4.64
50-54세	5.72	5.36	4.86	4.35
55-59세	5.49	5.07	4.54	4.03
60세 이상	5.01	4.68	4.11	3.67
여성 /				
15세 이하	2.38	2.25	2.30	1.87
15-24세	1.98	2.18	1.98	1.90
25-29세	2.60	2.73	2.27	2.04
30-34세	3.56	3.48	3.03	2.69
35-39세	4.06	3.92	3.45	3.10
40-44세	4.13	4.08	3.65	3.30
45-49세	3.85	3.87	3.55	3.22
50-54세	3.52	3.55	3.15	2.99
55-59세	3.18	3.19	2.77	2.73
60세 이상	2.78	2.72	2.19	2.19

(계속)

&lt;표 부-1&gt; (계속)

(단위 : 명)

가구주 성·연령/년도	1975	1980	1985	1990
계 /		(d) 면 부		
15세 이하	3.60	3.04	2.45	1.84
15-24세	3.56	3.09	2.72	2.33
25-29세	4.00	3.78	3.57	3.09
30-34세	5.08	4.76	4.46	3.98
35-39세	6.06	5.50	5.06	4.48
40-44세	6.25	5.72	5.20	4.70
45-49세	5.88	5.30	4.82	4.39
50-54세	5.48	4.72	4.25	3.86
55-59세	5.09	4.33	3.76	3.40
60세 이상	4.55	3.91	3.22	2.87
남성 /				
15세 이하	3.79	3.33	2.72	1.73
15-24세	3.76	3.30	2.96	2.52
25-29세	4.04	3.83	3.63	3.16
30-34세	5.13	4.80	4.51	4.03
35-39세	6.16	5.59	5.14	4.54
40-44세	6.46	5.88	5.35	4.83
45-49세	6.21	5.55	5.01	4.57
50-54세	5.83	5.08	4.52	4.07
55-59세	5.43	4.72	4.13	3.68
60세 이상	4.95	4.37	3.69	3.31
여성 /				
15세 이하	2.52	2.57	2.11	1.94
15-24세	1.96	2.10	1.79	1.86
25-29세	2.95	2.96	2.45	1.98
30-34세	4.07	3.88	3.38	2.83
35-39세	4.40	4.29	3.84	3.33
40-44세	4.10	4.07	3.75	3.35
45-49세	3.62	3.55	3.32	3.09
50-54세	3.17	3.00	2.75	2.70
55-59세	2.75	2.59	2.27	2.30
60세 이상	2.34	2.17	1.75	1.80

자료: 경제기획원, 1975, 1980, 1985, 각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표 부-2〉 가구구성원의 지역 및 연령별 가구형태 분포, 1990

(단위 : %)

지역/연령	가구형태							
	부부 부부	부부 +미혼자녀	편부모 +미혼자녀	부부+부모 +(자녀)	부부+편친 +(자녀)	기타친족 가구	1인 가구	비친족 가구
도시/				남	성			
0-4세	0.0	75.3	1.6	2.6	6.5	13.9	0.0	0.0
5-9세	0.0	73.3	4.1	2.1	8.7	11.8	0.0	0.0
10-14세	0.0	70.5	7.8	1.6	10.0	10.0	0.0	0.1
15-19세	0.1	61.4	11.9	1.1	8.1	14.0	1.0	2.5
20-24세	2.4	45.8	13.7	0.6	5.5	22.1	5.5	4.9
25-29세	11.5	40.0	8.1	1.3	3.6	23.8	8.4	3.3
30-34세	6.7	62.8	3.1	2.3	5.4	15.9	3.3	0.6
35-39세	2.3	72.2	1.7	2.0	8.2	11.4	1.8	0.3
40-44세	1.6	74.6	2.0	1.8	10.3	7.9	1.5	0.2
45-49세	1.9	75.6	2.5	1.4	10.5	6.3	1.5	0.2
50-54세	4.1	71.9	2.8	1.5	10.4	7.3	1.7	0.2
55-59세	9.3	58.9	2.8	4.2	8.5	14.3	1.7	0.2
60-64세	17.1	42.4	2.9	8.5	7.6	18.6	2.6	0.3
65-69세	23.0	27.5	2.0	14.3	8.4	21.7	2.8	0.3
70-74세	24.1	16.3	1.5	22.0	13.5	19.4	3.0	0.2
75-79세	20.3	9.4	0.9	25.8	23.1	17.1	2.8	0.7
80세 이상	14.0	4.3	0.7	26.2	31.5	19.7	2.7	0.9
				여	성			
0-4세	0.0	75.5	1.6	2.6	6.2	14.1	0.0	0.0
5-9세	0.0	73.9	4.1	2.1	8.3	11.6	0.0	0.1
10-14세	0.0	71.4	7.6	1.6	9.5	9.8	0.0	0.1
15-19세	0.3	61.0	11.6	1.0	7.8	14.7	1.2	2.3
20-24세	6.9	43.9	10.4	0.9	5.2	24.0	4.5	4.1
25-29세	10.5	56.3	3.9	2.2	4.8	18.0	3.2	1.2
30-34세	3.0	69.1	3.3	2.0	7.2	12.7	2.2	0.4
35-39세	1.7	69.9	5.6	1.8	9.1	9.2	2.4	0.4
40-44세	1.7	69.2	8.9	1.4	9.2	7.1	2.3	0.3
45-49세	3.0	63.5	13.3	1.1	8.7	7.6	2.4	0.4
50-54세	6.3	49.0	15.1	2.5	8.7	14.8	3.3	0.4
55-59세	11.1	28.8	15.2	5.7	11.2	21.6	5.7	0.6
60-64세	11.4	12.1	12.9	7.5	22.2	23.7	9.6	0.7
65-69세	9.4	4.4	8.6	8.4	35.4	22.3	10.6	0.8
70-74세	6.0	1.6	4.4	7.2	47.5	22.5	10.0	0.8
75-79세	2.5	0.6	2.1	5.5	55.6	25.4	7.7	0.6
80세 이상	0.8	0.1	0.9	2.8	56.5	32.8	5.7	0.3

(계속)

〈표 부-2〉 (계속)

(단위 : %)

지역/연령	가구형태							비친족 가구
	부부 가구	부부 +미혼자녀	편부모 +미혼자녀	부부+부모 +(자녀)	부부+편친 +(자녀)	기타친족 가구	1인 가구	
농촌/				남 성				
0-4세	0.0	59.8	1.4	8.1	12.8	17.9	0.0	0.0
5-9세	0.0	60.2	3.4	6.2	15.7	14.4	0.0	0.1
10-14세	0.0	61.4	6.9	4.7	15.9	10.9	0.0	0.1
15-19세	0.0	60.2	11.2	2.2	12.6	12.2	0.3	1.2
20-24세	1.0	51.7	14.4	1.3	9.1	18.7	1.7	2.2
25-29세	5.9	43.3	11.0	3.9	6.5	23.1	4.1	2.2
30-34세	3.4	53.6	5.2	6.4	10.3	18.3	1.9	0.9
35-39세	2.2	58.2	2.6	6.6	14.9	13.4	1.6	0.6
40-44세	2.4	60.7	2.4	5.0	17.1	9.6	2.4	0.5
45-49세	5.4	61.0	2.2	3.6	16.7	7.9	2.4	0.9
50-54세	13.2	56.4	1.7	2.6	14.9	8.5	2.1	0.6
55-59세	21.9	44.7	1.7	4.1	12.6	11.9	2.8	0.4
60-64세	33.8	31.5	1.6	7.6	8.2	14.3	2.8	0.3
65-69세	39.3	21.9	1.3	12.5	7.4	13.7	3.7	0.3
70-74세	40.9	12.8	0.9	18.7	9.9	12.0	4.5	0.3
75-79세	35.9	7.7	0.7	20.9	16.1	13.7	4.6	0.4
80세 이상	25.4	4.1	0.2	22.3	25.5	18.6	3.0	0.9
				여 성				
0-4세	0.0	61.1	1.3	7.0	12.6	17.9	0.1	0.0
5-9세	0.0	60.4	3.6	6.6	15.6	13.6	0.0	0.2
10-14세	0.0	60.5	7.4	4.5	16.1	11.2	0.1	0.3
15-19세	0.2	59.3	11.1	2.6	13.0	11.7	0.6	1.5
20-24세	4.3	48.6	10.7	3.1	9.3	20.3	1.7	2.1
25-29세	5.7	52.5	3.4	6.3	10.1	19.2	1.5	1.5
30-34세	2.2	60.5	2.2	6.7	13.8	12.7	0.8	1.0
35-39세	2.2	62.1	4.5	5.4	15.9	8.4	0.8	0.6
40-44세	4.6	61.1	6.3	3.5	15.4	7.2	1.2	0.7
45-49세	10.0	55.4	8.3	2.3	13.8	7.9	1.9	0.3
50-54세	17.4	39.8	9.8	3.1	12.3	13.1	4.2	0.4
55-59세	24.6	24.8	10.0	5.4	11.2	15.8	7.7	0.6
60-64세	24.7	12.3	8.4	7.8	13.8	16.8	15.3	0.8
65-69세	21.6	5.5	5.1	9.6	22.5	15.8	19.4	0.5
70-74세	13.8	1.6	3.3	8.7	33.4	17.4	20.7	1.1
75-79세	7.6	0.4	1.4	6.5	45.2	20.4	17.3	1.1
80세 이상	2.4	0.1	0.6	2.6	49.9	32.1	11.6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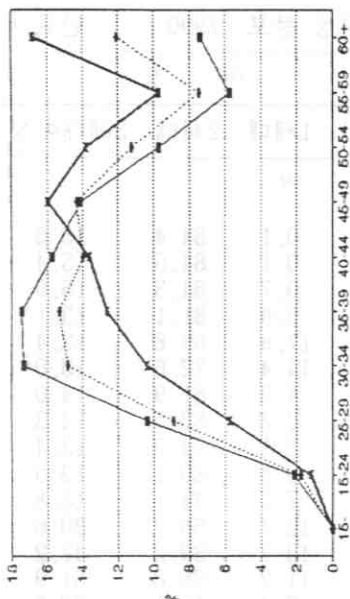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표 부-3〉 가구구성원의 연령별 세대구성 분포, 1990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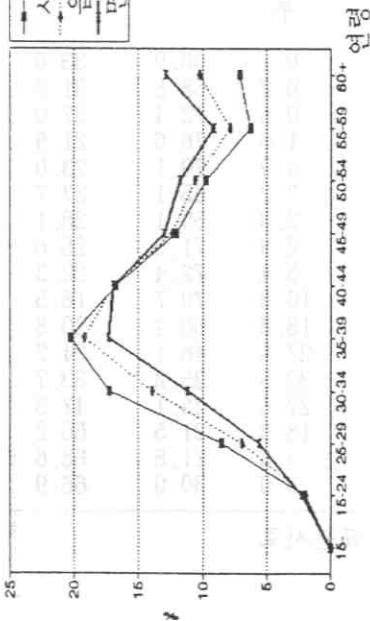
연령/세대구성	남 성			여 성		
	1세대	2세대	3세대이상	1세대	2세대	3세대이상
	시			부		
0-4세	0.1	84.2	15.7	0.1	84.4	15.5
5-9세	0.1	84.1	15.8	0.1	84.5	15.4
10-14세	0.6	84.0	15.3	0.7	84.3	15.0
15-19세	4.3	82.3	13.4	5.9	81.1	13.1
20-24세	9.9	76.2	13.9	17.9	69.8	12.4
25-29세	19.0	67.4	13.5	14.4	72.6	13.0
30-34세	8.5	77.9	13.7	4.0	81.9	14.0
35-39세	2.9	82.6	14.5	2.3	83.5	14.3
40-44세	1.9	82.8	15.2	2.1	84.5	13.4
45-49세	2.2	83.3	14.4	3.5	83.1	13.5
50-54세	4.5	80.5	15.0	7.0	74.1	18.8
55-59세	10.0	70.1	19.8	12.7	56.7	30.6
60-64세	18.5	55.8	25.6	13.7	39.2	47.2
65-69세	25.1	40.8	34.1	11.2	26.8	61.9
70-74세	25.9	27.6	46.5	7.4	19.1	73.5
75-79세	21.8	20.0	58.1	2.9	15.9	81.2
80세 이상	15.0	17.1	67.9	1.1	17.1	81.8
	군			부		
0-4세	0.1	65.8	34.1	0.1	66.9	33.0
5-9세	0.2	68.8	31.0	0.2	68.8	31.0
10-14세	0.6	72.8	26.6	0.6	72.4	27.0
15-19세	1.3	77.1	21.6	1.6	76.6	21.9
20-24세	2.7	75.6	21.7	6.9	70.1	23.0
25-29세	8.6	67.2	24.2	7.2	65.1	27.7
30-34세	4.3	68.0	27.7	2.8	69.1	28.1
35-39세	2.9	67.9	29.2	2.9	71.5	25.6
40-44세	3.2	69.6	27.2	5.4	72.4	22.3
45-49세	6.2	70.9	22.9	10.8	70.7	18.5
50-54세	14.1	66.4	19.5	18.8	60.4	20.8
55-59세	23.4	57.8	18.8	27.6	48.1	24.2
60-64세	36.0	43.7	20.2	30.5	35.8	33.7
65-69세	42.0	32.8	25.2	27.6	25.1	47.3
70-74세	43.8	23.4	32.9	18.3	21.5	60.2
75-79세	38.3	20.5	41.2	9.6	21.8	68.6
80세 이상	26.9	25.1	47.9	3.0	30.0	66.9

자료 :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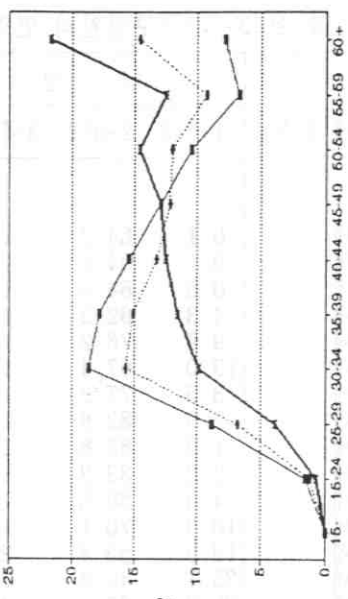
19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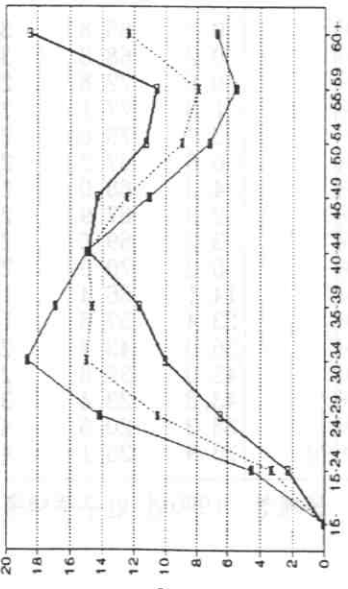
7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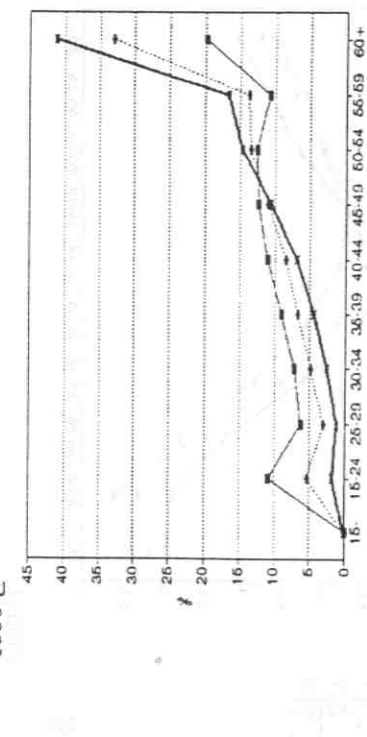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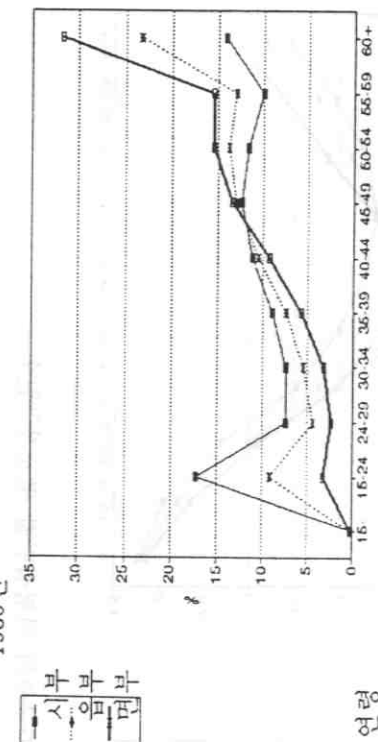
1990년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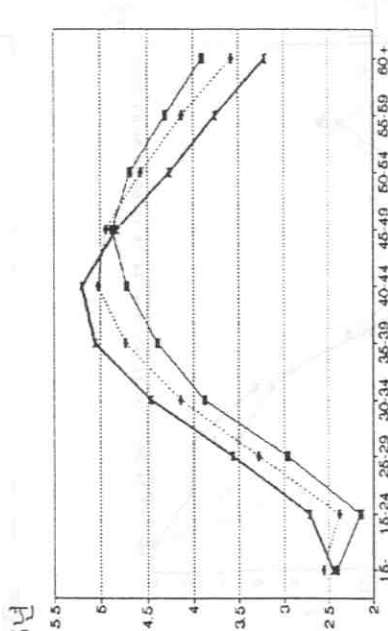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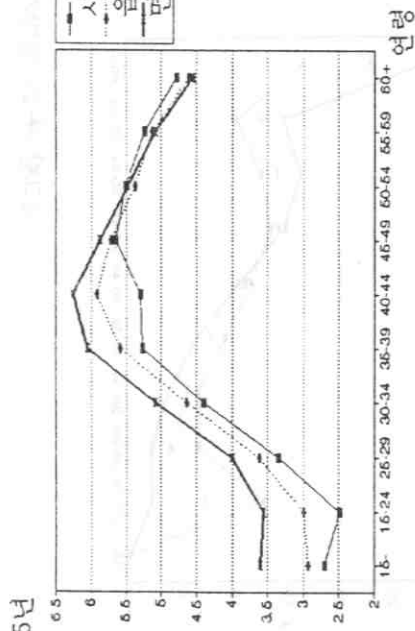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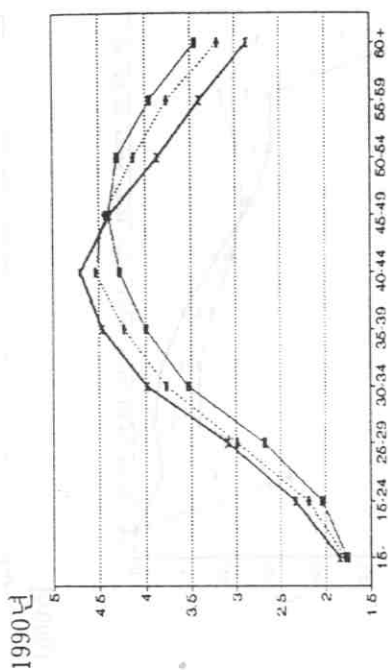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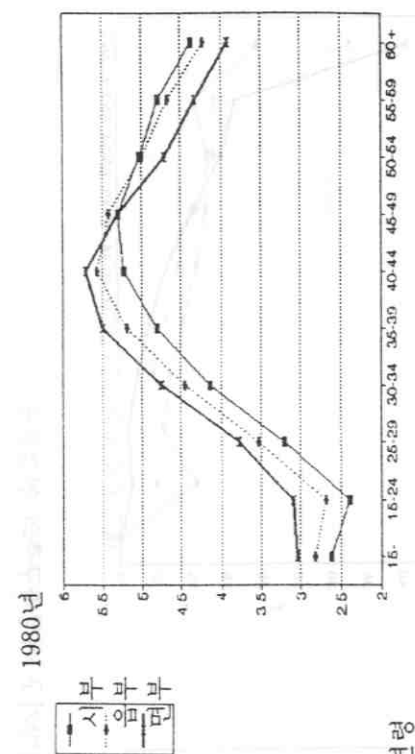


〈그림 부-1〉 일반가구 남성가구주의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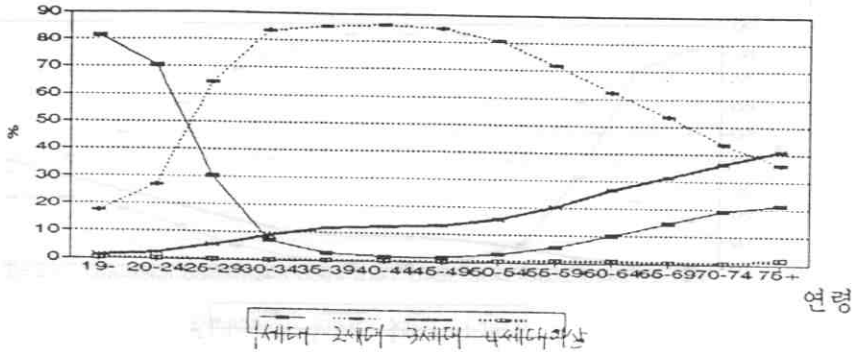
〈그림 부2〉 일반가구 여성가구주의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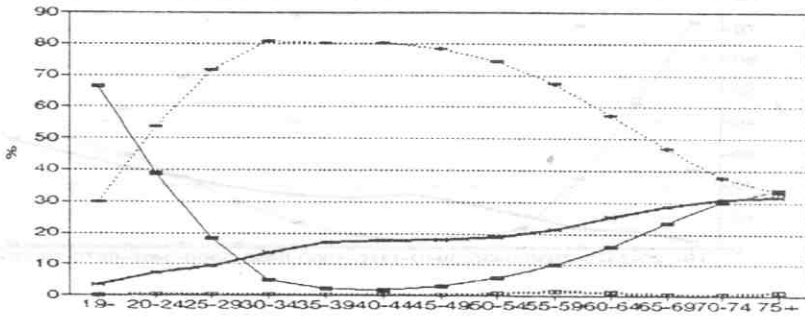


〈그림 부-3〉 일반가구의 연령집단별 평균자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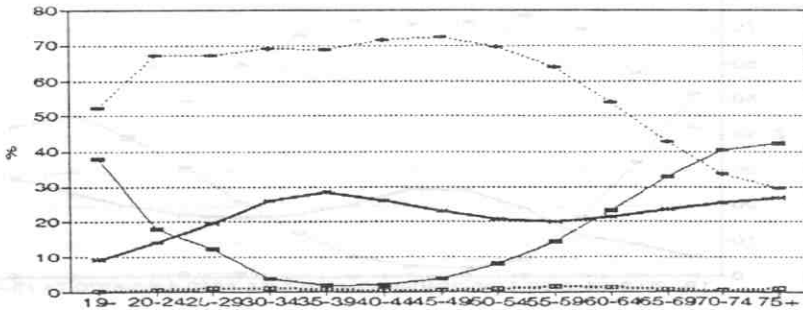
시부



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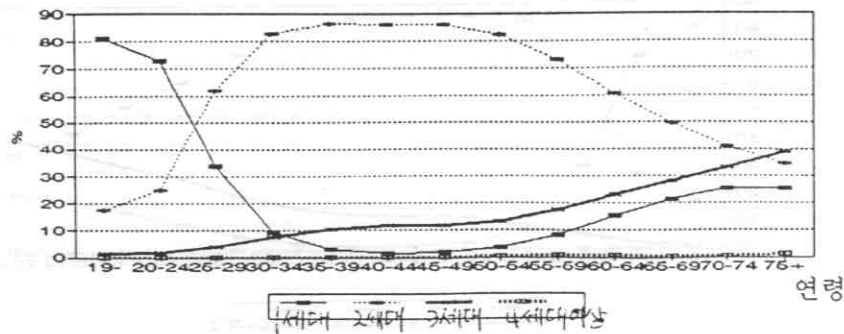


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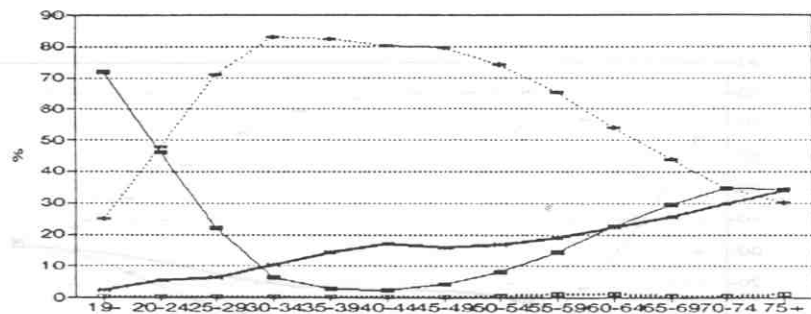


<그림 부.4.1> 친족가구 가구주의 연령별 세대구성, 1985(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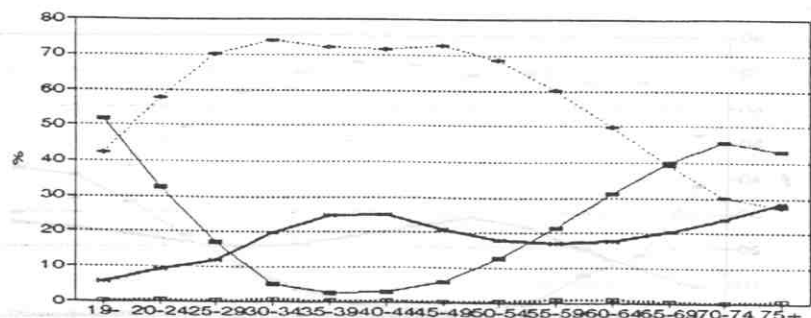
시부



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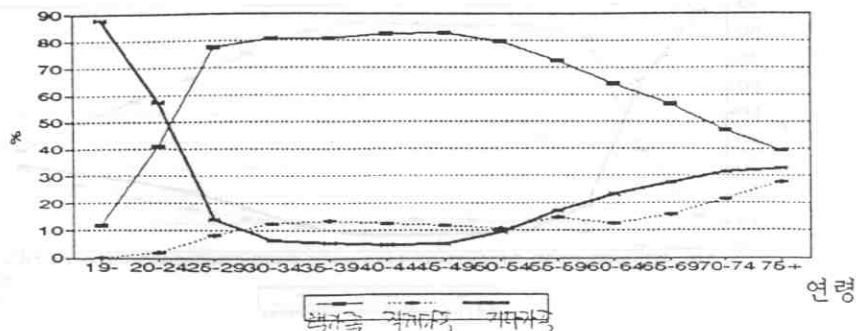


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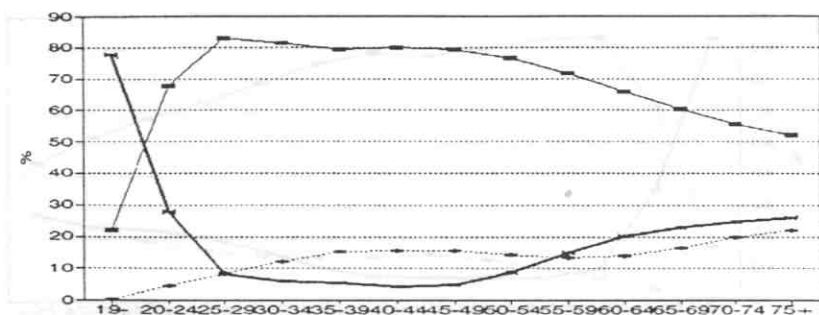


<그림 부-4.2> 친족가구 가구주의 연령별 세대구성, 1990(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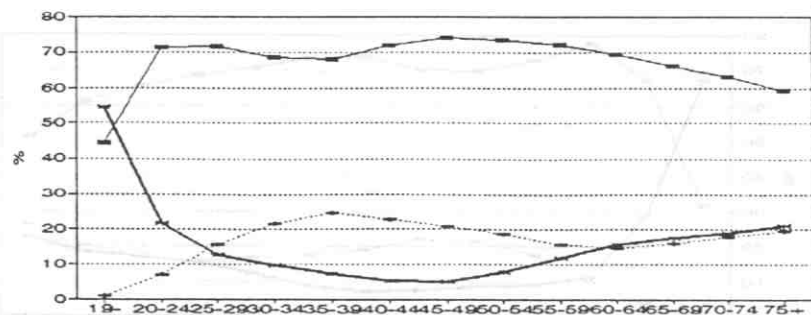
시부



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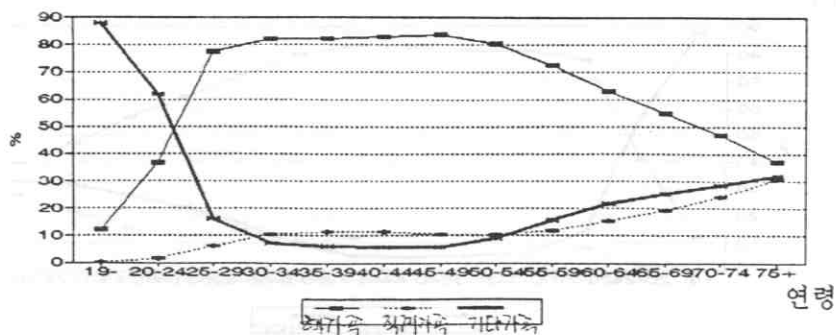


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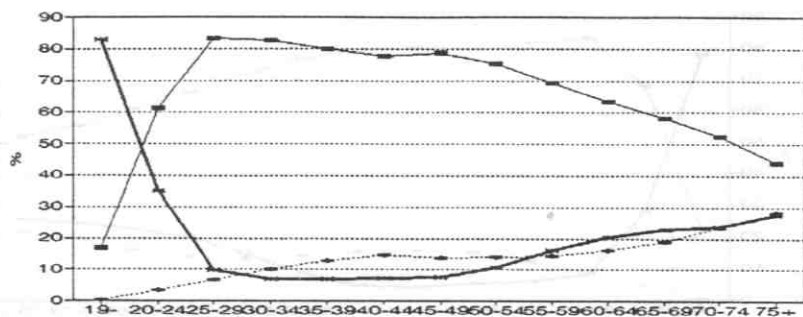


<그림 부.5.1> 친족가구 가구주의 연령별 가족형태구성, 1985(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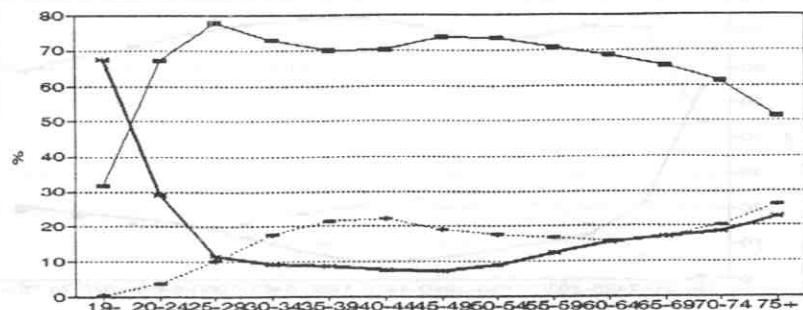
## 시부



## 읍부



## 면부



<그림 부-5.2> 친족가구 가구주의 연령별 가족형태구성, 1990(지역별)

---

1993년 12월 일 펴냄

1990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4-3)

## 한국의 가구 및 가족유형

펴낸곳 : 통 계 청

---